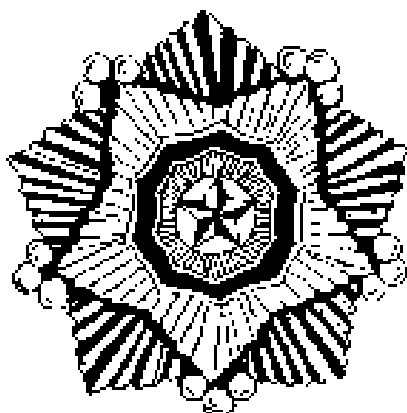




8

주체 90 (200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0(2001)년 제8호

(루계 제 646 호)

◆◆◆◆◆◆◆◆◆◆

차 례

◆◆◆◆◆◆◆◆◆◆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	4
가지 않는 시절	8
생의 메아리	9
장군님 안겨 주신 총.....	22
린저의 감탄	23
사랑이 불 타는 땅	24
물	26
만경대의 갈림길(외 1 편)	27
12 월의 눈	27
회초리	28
땅을 들어 올렸다.....	40
풀판의 새 노래	41
심산속의 새 풍경.....	41
이 가슴에 젖어 드는 물노래는	43
오늘도 들려 오는 한나의 메아리.....	44

양어공처녀	48
영원히 설레여라 비슬나무여	49
동해기슭에 소금꽃 피오	49
세기의 교차점에 다시금 나타난 《바벨 꼬르차긴》	50
끌려 드는 맛과 소설의 여운	51
명언해설	53
푸른 하늘	54
친한 동무들	61
조국통일의 열원과 시인의 시정신	62
시인과 통일	68
로씨야영화의 밤	69
출로	75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

김려숙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신념, 혁명을 해도 제 힘을 믿고 하는 자주의 신념을 간직하는것이다. 혁명적신념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와 믿음이며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 량심과 의리에 관한 문제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천지》(허춘식작)는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조선혁명의 시련에 찬 로정이 시종일관 신념과 의지를 검증한 피어린 력사이며 주체의 기치,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전진해 온 신념의 강자들의 승리의 력사임을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

소설은 소할바령회의직후의 복잡한 정치정세속에서 주체의 신념과 백두의 담력으로 조선혁명의 시련을 맞받아 나가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나게 형상화함으로써 력사문헌적의의를 가지는 총서형식으로서의 사상에술적풍격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소설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독창성과 정당성, 그 생활력을 자주적인 존엄과 신념의 각도에서 예술적으로 확증하고 있는것이다.

소설은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의 독창성과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조국과 민족의 운명적인 문제, 민족자주정신과 자력독립사상에 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그것은 대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국해방의 위업은 큰 나라,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주체적신념의 철저한 구현으로 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고 있다.

소설의 이러한 사상주제적파제는 당시 조성된 복잡하고도 간고한 정세를 심각한 극적환경으로 설정하여 형상적바탕에 깔고 소부대, 소조활동방침을 관철해 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을 기본으로 하는 작품의 전반내용을 통하여 해명되고 있다.

소설의 시대적배경으로 되고 있는 1940년대 초엽으로 말하면 항일혁명투쟁력사에서도 가장 어렵고 간고한 시련의 시기였다고 말할수 있다.

소설에서 보여 주고 있는것처럼 1940년대에 들어 서면서 제2차세계대전은 날로 확대되어 갔으며 전쟁에 휘말려 들게 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가적, 계급적리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극도로 악화된 국제정치정세에 편승하여 일제는 세계재분할을 위한 대전에 뛰어들려고 준비하면서 전시체제화의 명목밑에 그 병참기지인 조선과 만주에서 전례 없는 파쇼적폭압과 식민지적략탈을 강화하였으며 반일무장세력에 대한 대공세와 혁명력량에 대한 탄압에 미쳐 날뛰었다. 교활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소멸》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있어 보지 못한 대규모의 병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동서협격의 위기에 처한 소련의 리해관계를 자극시켜 만주에서 활동하는 반일무장세력을 쏘만국경밖으로 철수시키게끔 소련에 외교적압력을 가하려고 책동한다.

국내외에서 일어 나는 충격적인 사건과 사변들, 각종 어용수단을 통한 정치정세의 오도와 민심의 혼란, 거기에 대국들의 민족리기주의와 편협성까지 겹쳐 조선혁명의 운명문제, 조국해방의 전도문제는 극도의 심각성을 띠지 않을수 없었다. 하여 조국해방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속에서 동요와 나약성이 표현되었고 아직도 큰 나라에 기대를 거는 사대주의적요소도 남아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념문제는 평화로운 시기나 정세가 안정된 시기, 혁명이 고조되고 앙양되는 시기보다는 투쟁의 간고성, 장기성으로 하여 혁명이 우여곡절을 겪게 될 때 심각하고 예리하게 제기되며 사람들을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첨예하고 복잡한 환경이 조선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을 선고할 때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은 눈앞에 다가왔으며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반드시 해방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이미 제시한 소할바령회의방침에 따라 만주와 국내각지에 소부대, 소조들을 파견하시고 적극적인 반일항전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밀고 나가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소부대를 이끄시고 친구에 진출하시어 여러 소부대, 소조들과 지하공작원들의 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군중공작도 심각한 전투라고 하시면서 군중공작

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로부터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과 조건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주신다. 특히 군중공작은 소부대, 소조들의 기본임무로서 각계각층의 군중들을 대상하는것만큼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심중하게 보고 처리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다.

여기서 문제성 있는 인물들인 간도운송회사사장 고형근, 조선어학회 간사 리극로, 좌경모험주의자 서대석, 서남차마을의 촌장과 복지향의 《청년의용대》 대장 원덕천 등과의 사업은 광범한 군중을 반일항전에 묶어 세우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이 얼마나 힘겨운 투쟁인가 하는것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이들과의 사업은 사상에 관한 문제, 신념에 관한 문제, 일제의 모략책동을 발가 놓는 문제로서 결국은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는 문제에 귀착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일인가 친일인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반일전선에 묶여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고형근을 만나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본의 아니게 일제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가 반일의 길에 떳떳이 나서며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묶어 세우는데서 핵심적역할을 놀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신것은 비단 그 한사람의 개인적인 운명문제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개척민》들속에 제놈들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고 《개척민》과 원주민들사이에 불화를 조성하여 반일군중지반을 없애버리려는 일제의 책동을 짓부시고 반일력량을 결속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이 승리한 나라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혁명은 조선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어 수행하겠다는 투지와 신념을 엄숙히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3군회의가 진행되는 나날과 원동훈련기지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을 지도하시는 한편 새로운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신다. 또다시 전구에 진출하시여서는 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시는 전투를 벌리시고 새로운 소부대와 공작조들을 각지에 파견하신다.

그들가운데는 수령님께서 몸소 구해 주신 귀중한 약재를 가지고 위증민에게 떠나는 류경수도 있으며 혁명가가족을 이주시킬데 대한 임무를 받고 떠나는 림춘추도 있고 농촌지구에서의 공작과 함께 적들과의 싸움에서 행방불명된 박중돈의 행처를 찾기 위해 파견되는 공작조들도 있으며 파괴된 연결시대 지하조직을 복구하고 이어 위협에 처한 서울의 차석진을 돕기 위해 파견되는 리

순정이다 있다.

그리하여 전민항쟁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를 불씨들이 도처에 뿌려 졌다. 조선과 만주, 징용과 징병에 끌려 간 조선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 지어 조선주둔군 일본군대안에도 적기관에도 반일조직이 꾸려 지고 여기에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애국적인민들이 망라되었으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소부대, 소조들과 지하조직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유일적인 령도밑에 통일적인 활동을 벌리게 되었다.

소설은 작품이 제기한 사상주제적과제를 새로운 전략적방침의 실현과정의 그 어떤 력사적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라컬로써가 아니라 극적인 사건과 인간관계, 인간들의 운명선에서의 극적변화, 다양한 극적정황과 계기속에서 생활 그대로 펼쳐 보임으로써 커다란 사상예술적 감화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소부대활동방침이 일제의 대공세앞에서의 총퇴각이 아니겠는가 하는 위증민의 우려며 소부대, 소조활동으로 일제와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것 자체를 리해하지 못했던 국제당면락원 크리멘의 의혹, 조, 중, 쏘 3군련합회의에서 제기되는 동북항일련군의 원동군 편입문제, 초기 오백룡소부대와 박중돈소조의 식량공작과 군중공작에서의 실패, 유능한 지하공작원인 전명석의 못지 않은 희생과 그로 하여 새 전략사상을 받지 못한 서울공작원 차석진의 활동에서의 일시적난관, 조선어학회 간사인 리극로와 간도운송회사사장인 고형근의 절교, 서대석의 포섭과정과 차석진의 희생, 3호련락소의 로출과 지영갑의 변절도 주, 지하공작원 차석진과 총독부 경무국 고등과장 미우라와의 관계, 미나미총독의 만주행각과 간도《향토시찰단》의 국내방문 등은 그 어느것이 나 다 극적인 정황과 계기를 조성하면서 궁극에는 소부대, 소조활동방침의 성과적실현과정을 밝히는데로 형상의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소부대, 소조활동방침의 독창성과 정당성은 이렇게 극적으로 생활적으로 밀착되어 자연스럽게 예술적으로 확증되고 있다.

장편소설 《천지》의 주되는 특성은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빛나는 실현과정을 형상화하면서 그것은 오로지 위대한 심장과 크나큰 도량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불멸의 업적임을 감명 깊게 보여 주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에서는 수령님의 비범한 철학세계를 깊이 있게 그려 내야 수령님의 뛰여 난 품모와 업적을 웅게 보여 줄수 있다.》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드눌지 않는 강철의 심장, 천지와도 같은 크고 억센 담력을 지니시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체의 힘으로 마련해 가시

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형상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 뜯는데 이 소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의 비결이 있다.

소설에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백두의 심장파와 담력은 그이의 위대한 철학세계, 인민대중중심의 독창적인 철학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전략적으로선에 관통되고 있는 일관한 사상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혁명의 목적을 세우고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 세워 해방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 준 작품의 전반내용에서 알수 있다.

수령님께서 세계제패를 위한 파쑈국가들의 전쟁에도 놀라지 않으시였고 날을 따라 더 포악해지는 일제의 교활한 술책과 《쏘일중립조약》 체결에도 끄떡하지 않으시였으며 국제당이나 쏘련측의 요구에도 언제나 조선의 심장으로 대응해 나서시였다.

주체의 신념의 상징인 조선의 심장을 지니시였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소멸》 하겠다고 간도에 대 《토벌》 력량을 집중시킬 때 그에 맞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진출하시며 반일무장부대들이 다 원동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대국의 요구가 제기될 때 원동이 아니라 백두산으로 진군하시며 백두산을 타고 앉아 조선혁명을 령도하신다. 그 위대한 심장을 지니시였기에 《혁명의 한길 노래로 가라!》는 혁명적락관주의구호를 제시하시며 소부대, 소조활동으로 일제와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쥘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심을 천명하신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수가 100만 관동군과 비교도 되지 않을 력량이지만 강적 일제를 타승할 무궁한 힘이 있다는것을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보시였고 그 힘을 키운다. 수령님께서 지금 일제가 우리를 완전소탕하려고 대부대들을 들이미는 형세에서 우리 군사들은 불리한 도전을 피해 조선과 만주의 넓은 천지에 물방울처럼 찾아 들었다. 이제 때가 되면 샘줄기가 흘러 개울이 되고 개울이 합쳐 강을 이루듯이 노호하는 항일의 대하를 이루어 원쑤의 아성을 들부실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신다.

조선혁명과 조선민족을 중심에 놓고 자력으로 조국을 해방하는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의 신념이고 의지이시였다.

에스빠냐공민전쟁에서 인민전선측의 실패원인을 국제적지원이 약한데서 찾는 국제당 연락원에게 실패의 결정적원인은 주체적혁명력량이 약했기때문이라는것, 이것은 현 시대 인민혁명에 대한 커다란 역사적교훈이라는것을 명철하게 천명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조, 중, 쏘 3군연합회의에서 조선과 중국의 혁

명군들이 쏘련원동군에 편입할데 대한 안을 제기한 쏘련군대표와 그것을 완강히 거부해 나서는 중국대표(동북항일련군)의 상반되는 주장이 나섰을 때 그 실무적련합의 불합리성을 명백한 론거로 론박하시는 한편 세 나라 공산주의적무장력들의 련합의 필연성과 련합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과학적으로 천명하시는 수령님.

너무나 젊으신 나이에 그토록 높으신 명망을 지니신 위인을 받들어 모신 조선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하며 끝 없는 흥분에 휩싸이는것은 김책이나 주보중만이 아니였다. 국제당대표도 쏘련군대표도 경건히 그이를 우러른다. 혁명의 로선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서 작은 나라가 대국을 누르고 자주, 자력의 기치를 든다는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가 확증해 주고 있다.오로지 주체의 신념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대용단이다.

소설에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한 예리한 판단, 원동군편입안에 숨배여 있는 대국주의, 민족리기주의냄새에 대한 간파, 군중공작에서 있을수 있는 모든 정황에 대한 예견과 대책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과학적예견성과 선견지명의 탁월한 예지들을 보여 주는 생활들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 주고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과 필승의 기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형상화하였다.

시영갑의 변절도주는 신념이 확고하지 못하고 량심과 의리가 없는데 있으며 그것은 사대주의에 물 젖어 큰 나라만 쳐다보면서 자기 힘을 믿지 않는데 있다는것을 명철하게 밝히시고 우리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신념을 굳게 안겨 주시며 항일유격대원들에게 하시는 수령님의 말씀, 《우리 항일유격대는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기 위한 전 인민적항쟁의 앞장에 선 핵심부대인 동시에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주정신을 지니고 자주적인 힘으로 침략자들을 쳐부시는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창조하는 선구자들이라는 높은 자각과 긍지를 지니고 싸워야 합니다...》

자기자신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심오한 철리와 그 어떤 간고성앞에서도 승리를 락관하는 필승의 기상의 력력히 안겨 오는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게 한다.

소설에서는 천출위인이신 우리 수령님의 깊고 넓으신 도량과 다심한 친어버이사랑을 가슴 뜨겁게 그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은 먼저 간 오중흙과 그의 동생, 그의 아버지 오로인에 대한 은정 깊은 사랑과 오백룡소부대 대원들을 위해 남겨 두신 노루고기가루봉지를 비롯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대원들에게 속속들이 미치고 있을뿐아니라 일제놈들의 감언리설에 속히온

사람들, 공산주의에 대한 물리해를 가진 사람들, 파벌에 가담했던 행세식탐스주의자들, 애국적지조를 지켜 나간 지식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비쳐 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넓으신 도량과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의하여 일체의 교활한 술책의 산물인 《개척민》 후원회 회장직까지 겸임하고 동분서주한 고희근이 조국광복회 연결지구 특수회원으로 성장하며 조선말과 글을 지키려는 리극로의 애국적지조가 값높이 평가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인민적품모로 하여 적의 밀정으로 처리될뻔 했던 이름없는 촌장도 혁명가의 아버지로 뿔뿔이 나설수 있었고 항일유격대원인 촌장의 딸 리순정과 지하공작원 차석진의 사랑도 이어 지고 마음속 고충을 겪던 박중돈이 훌륭한 유격대원으로, 소조책임자로, 군중공작의 능수가 되며 자기 마을에 식량공작을 나온 박중돈소조를 적에게 고발했던 《개척민》 마을의 《청년의용대》 대장 원덕천도 일체의 모략에서 벗어나 반일항전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난다.

위대한 수령님의 넓으신 도량과 사랑의 힘은 민족의 테두리를 벗어 나 세계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도 뜨겁게 미쳐 있다. 중국의 혁명가 위증민에게 돌려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사랑과 배려는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소설은 이처럼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은 그 기상과 담력, 넓은 도량과 다심한 인정미에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 인간중의 위대한 인간임을 심장깊이 느끼게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소설의 갈피갈피마다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은 일체의 압제 밑에 신음하는 조선인민이 해방의 그날을 믿고 살며 싸울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기둥, 민족의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 일찌기 수령복을 지닌 궁지 높은 인민이라는것을 절감하게 한다.

그것은 산삼술을 올리는 오로인과 애양피외투를 마련한 고희근의 심중에서도 뜨겁게 안겨 오며 나에게는 친부모보다 더 귀중한 **김일성** 장군님이 계신다고 변절자앞에서 당당하게 웨치는 한영옥의 모습과 **김일성** 동지를 충심으로 받들고 보위해야 한다고 한 국제당대표의 말에서도 뚜렷이 느낄수 있다.

김일성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 민족의 영광, 벌써 그 시절에 수령복을 지닌 우리 인민의 궁지와 행복,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는데 겨레의 운명이 있고 민족의 무궁번영이 있다는 심오한 철학을 항일의 그 나날에 심장으로 체득한 우리 인민이다.

이렇듯 절세의 위인을 조선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갔기에

1940년대 초의 엄혹한 정황에서 새로운 전략적로선인 소부대활동방침이 관철되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주동적으로 마련될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장편소설 《천지》의 형상력과 문학사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천지》가 달성한 성과의 하나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인상 깊게 창조한것이다.

소설에는 김정숙동지의 형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시며 수령님의 전략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시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백두산녀장군의 모습을 몇개의 장면들을 통하여 감명 깊게 형상하였다.

수령님께서 위험한 전구로 진출하시는 문제와 관련하여 나누신 김책과의 담화,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의 머리칼로 신발갈개를 만들어 드리고 속아낸 머리를 가리우느라 늘 모자를 벗지 않고 다니신 원동훈련기지에서의 모습, 전구에 진출하시는 길에 탄생일을 맞으시게 되는 수령님께 드려 달라고 보관했던 것갈 한통을 류경수의 배낭에 넣어주시며 지하공작을 떠나는 리순정에게 구체적인 가르치심도 주시고 변장용양말까지 알뜰히 손질해 주시는 모습, 백발백중의 명사수의 비결이 원쑤에 대한 중요심이라고 하시는 뜻 깊은 말씀들에서 김정숙동지의 형상은 숭고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며 뜻깊게 묘사되었다.

장편소설 《천지》는 예술적인 수법에서도 개성적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작품의 생리에 맞게 구성의 립체성을 잘 보장한것은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소설은 간도와 조선, 원동지구 등을 무대로 하여 항일유격대의 새로운 전략적방침의 실현을 폭넓은 생활로써 보여 주면서도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밀영과 그이의 활동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의 행동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소설에서 극적인 인간관계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설정되고 수령님의 위대성을 부각하는데서 뚜렷한 형상적묘를 안고 있는 인물들을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모시고 있으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들인 김책, 최석천, 안길, 류경수, 림춘추, 오백룡 등 지휘관들과 박중돈, 한영옥, 리순정 등 유격대원들, 지하공작원들인 조봉길, 차석진 그리고 운송회사 사장 고희근, 중국혁명가들인 주보중과 위증민, 국제당련락원인 크리멘과 국제당집행부로성원인 베네그쎈,

쏘련원동군대표 류쎈교장령 등은 다양한 각도에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부각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김책의 시점에 형상적의의를 부여하고 그가 체험한 풍수로인에 대한 이야기를 각이한

정황의 여러 대목에서 반복하여 줌으로써 백두의 담력과 기상을 지니신 수령님에 대한 열화 같은 흠모와 존경, 숭배의 사상감정을 격이 높게 형상하였다.

소설의 인물관계는 깊은 연고관계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진것으로 하여 다양한 생활과 인간성격들, 인물들의 특색 있는 운명선을 창조하게 하였다.

유격대소대장이었으며 고향근의 처조카인 지영함이 변절도주한 운명처리도 심각한 교훈을 줄수 있게 하였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색의 세계, 내

면심리세계를 깊이 파고 든것을 비롯하여 심리묘사와 생활세부형상, 이미 널리 알려 진 사건과 생활에 대한 비판복적인 묘사 등 개성적특성을 살린 측면들을 많이 찾아 볼수 있다.

장편소설 《천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훌륭히 형상한 작품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심장으로 체득하도록 하며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 힘 있게 떨쳐 나서도록 고무추동할것이다.

가지 않는 시절

서봉재

춘삼월이라 해도
울울창창 밀림속엔
눈도 송이송이
함박눈 내리고

빙설우엔 뽕얇게
버들개지 움 텃건만
눈보라소리 찾지 않은 배개봉
눈석이 진창길 걸으시여
장군님 숙영지에 오실줄 어이 알았으랴

어깨우엔 하얀 눈이 쌓이고
옷자락은 매운 바람 흔드는데
지휘부천막앞에 걸음 멈추신 그이
-여기가 최련대장이 숙영한
천막자리란 말이지

타다 남은 우등불 나무가치엔
불도 다시 지펴 주실듯 허리를 굽히시고
온밤련대의 작전을 익히던
통나무의자도 이윽히 더듬으시던 그이
동북켄 밀림우에 눈길을 었으시여라

멀리 수해의 한끝
조국땅깊이에 대오를 이끌고 온
붉은 바위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항일대전장의 생생한 그의 모습
심중에 안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사령부의 명령이라면
드림 없는 철의 신념으로
호랑이같이 성을 내기도 했고

수령님의 안녕이라면
땅을 치며 눈물도 많던 그를
오늘도 못 잊어 외우시는것인가

오직 한분 혁명의 수령을 위해
사신의 결전장도 피로 헤쳐 온
우리의 혁명대오에 어찌
그의 자리가 비었다 하랴
그가 밤을 새며 지펴 가던
저 우등불
어찌 솟으로만 남았다 하랴

투사의 그 모습 주작봉마루에
높이 세워 주신 장군님사랑
오늘은 백두의 옛 숙영지를 찾으시여
그리움에 불려 보시는 뜨거운 말씀
-항일의 련대장은 갔지만
그가 숙영한 이 천막앞에서
우리 사진이라도 한장 찍읍시다

투사여, 오시라
60년도 훨씬 넘은 그날은
아득한 옛 세월로 흘러 갔어도
그날의 풀색군복 그대로 입고
여기로 오시라 다시 오시라

아, 어버이수령님 받들어
백두산악처럼 불변한 옛 투사
그대 밀림속의 청춘시절은
동지의 위대한 태양 장군님품에서
영원한 젊음으로 살아 빛나누나!
-37년배개봉숙영지에서-

생의 메아리

김명익

1

어둠과 비와 바람이 태질하였다.

림진강 하구쪽으로 길길이 자란 해묵은 갈숲이 와스스- 뒤설레었다.

번쩍- 푸른 섬팡이 먹장 같은 밤하늘을 일순 내리쬘었다.

서슬에 갈숲을 헤치며 걷는 짐을 진 두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들뒤로 어지간히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후릿한 체구의 한사람, 그뒤에 따르는 또 다른 세 사나이일행이 드러난것도 이때였다.

철버덕, 철버덕... 갈숲을 헤치며 가던 두사람은 강변으로 나와 바위너설우에 퍼터버리고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선 비물이 줄줄 흘러 내렸다.

《에잇, 죽을 고생이야. 서울에 간다고 무슨 큰 성사나 보겠는지...》

《...》

《이러다 무주고혼이 안되겠소? 성님, 말좀 하구려. 더 가자우?》

《...》

이윽히 말이 없는 사람은 평천메리야스 사장 성태관이었다. 그는 모자를 벗어 얼굴의 비물을 뺍 씻고 나서 발치에 벗어 놓은 짐을 풀었다. 벌써 세번이나 이렇게 풀고 다시 싼 짐이었다. 방수지와 락하산천으로 여러겹 싼것이지만 어딘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금 풀어 헤치는데 번개의 섬팡에 확 빛발친것은 금피였다.

영문자로 24k 라고 찍혀 진 이런 금피를 하나씩 지고 지금 남행길에 나선 두사람이었다.

이윽고 보통기에 켜 다부쳐 보이는 몸을 우쭐쫂며 성태관이 짐을 지고 일어 섰다. 그의 4촌 동생인 성명구도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 뒤쪽 어디선가 분명 사람의 비명같은 소리가 울려 왔다. 두사람은 엉겁결에 몸을 돌리며 귀를 강구었다. 그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혹여 룽감인가? 한참나 그 비명 소리가 재차 났다. 그리고는 더 들리지 않았다. 뒤설레이는 소연한 갈숲의 소리뿐...

그들은 영등포를 좀 못미쳐 두개의 트렁크를 사서 거기에 금피를 넣고 거리로 나섰다.

한식경이 지나 별로 을씨년스러워 보이는 서울 장안으로 들어 섰을 때에는 인왕산쪽에 피빛 같은 락조가 걸려 있었다.

성태관은 사선을 넘어 오느라 며칠째 지질대로

지쳤으나 가슴은 사뭇 들먹이었다. 이만한 고행이 없이 대체 무슨 큰 기업을 장차 서울바닥에 퍼라하는 생각이 부풀어 올랐기때문이었다.

그는 종로에서 은행부터 찾았다. 때마침 얼마를 건지 않아 동척회사 맞은켠에 《게이조(경성)은행》의 현판이 눈에 띄었다.

성태관이 성급히 쉴누런 동관장식을 한 은행출입문을 열고 들어 서려는데 문은 꼭 닫겨 있었다.

무심중 그의 시선은 현판아래 벽에 가 멎었다.

서울시민들에게 알린다

한국의 은행권 동결 차압

부동산 리권포함하여 금융거래

일체 불허한다.

백미 1섬에 50원 90전(한국화폐)으로 인상한다.

미 《군정청》장관 아놀...

1945년 9월...

그는 공시를 다시 읽어 내려 갔다. 그 누구인가 분개하여 공시문 아래단을 뜯어 버렸는지 아놀드소장의 이름과 《명령》날자는 딱히 알수 없었지만 미 《군정》의 공시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았다.

며칠전 미군사령관 하지가 일제의 조선총독 아베노부유키로부터 정권을 이양받고 맥아더의 포고 제1호에 따라 미 《군정》이 선다는 랑설이 나돌더니 이것이 확실한것이 아닌가?...

아, 세상이 되려 뒤집혀 지다니...

들어 보니 천당인데 가보니 지옥이라고 그 말이 이 성태관을 두고 한 말이였구나...

그는 한동안 망연자실하여 터벅터벅 다리가 움직여 지는대로 걸음을 놓았다.

홀연 몽청몽청 허물어 저 내리는 땅을 짚는듯 두다리는 허청거리고 눈앞은 몽롱했다.

이때 허둥거리며 떨어 저 오던 성명구가 느닷없이 허겁지겁 뛰어 왔다.

《성님, 저걸 좀 보우다. 대관절 저게 뉘를 체포한다는거요?》

그가 형님을 성님이라 부르며 가리키는쪽을 보니 사람들이 몰려 서서 웅성거리는 연초전매국담벽에 미 《군정청》의 공개체포령이 나붙어 있었다. 두 수배자의 사진도 걸려 있었다.

A. 수배자; 일본인 관검사 야카기 가꾸노(45세)
대규모 아편밀매의 수괴인물

아편총량 4,800kg

B. 수매자: 조선인(북) 성태관(33세)

평천메리야스 사장

적산금품 횡령, 도피목적으로 남하

공산침자라도 의심됨

...이 무슨 날벼락이냐? 어허...

성태관은 졸지에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 지는듯 아득했다. 그다음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 나고 전신의 피가 발아래로 말끔히 가서 내리는것 같았다. 그는 무작정 팔을 잡아 끄는 성명구에게 끌려 흡사 복마전을 런상시키는 대혼잡의 거리바닥에서 빠져 나왔다.

그들은 마포의 도화동 민가촌으로 몸을 피하기로 하고 걸음을 다그쳤다.

도화동에는 한때 성태관과 함께 고무업과 정미업, 도매업을 한바 있는 김하룡이라는 친구의 집이 있었다.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했다. 계딱지 같은 집들이 딱지딱지한 촌락어귀에 들어 서자 한결 안정이 온 모양 명구가 성태관의 헐색이는 가슴을 두드리며 끼이끼이 울음을 터쳤다.

《대관절 어찌된 판국이요? 생면부지의 성님을 양키들이 왜서 붙잡겠다는거요? 적산금품은 뭐구 공산침자라는건 또 무슨 낫도깨비 같은 소리구요. 으흐흐... 이젠 우린 죽었수다.》

《...》

성태관의 얼굴은 거무죽죽했다.

지그시 내리감는 눈시울아래로 소리없이 굵은 물줄기가 눈물받이김을 타고 흘러 내렸다.

평북향산 어느 절간 중의 아들인 성태관은 아버지 유산으로 물려 준 40그루의 사과나무과수원을 밀천으로 하여 기업을 벌려 놓아 막대하게 저축한 돈으로 불경기때에도 자산의 화폐적가치를 보유하기 위해 해방전에 금을 사들였는데 그가 지금 가지고 가는것이 그 금피였다.

그의 자산의 전부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 금피를 가지고 성태관이 서울에 허위단심 발을 들여 놓으려 한데는 새 나라의 기업을 크게 해보자는 현란한 꿈도 있었거니와 8. 15전에 헤어진 사랑하는 약혼녀도 찾아 보며 장인과 함께 흥행상회를 발족시켜 보려는데도 있었다. 하지만 보다는 그 무슨 《혁명가》들이 갑작스레 나타나 그를 적산금품횡령자라고 오라를 지어 데려다 프로독재맛을 보인다고 하는가 하면 공산당이 온갖 자본을 청산하고 네것네것이 없는 《공유》를 실시하는데 만일 이 《법》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개인기업가들을 모조리 숙청타도해 버린다는데서였다.

더더구나 성태관을 목사의 딸과 약혼을 한 《그리스도교련애주의자》라고 몰아대기까지 했고 한편 서울과 결탁된 자(하지의 수급줄게들과도 련계된자들이었다.)들이 끈질기게 나타나 금력이 있는 그를 얼려도 보고 회유도 하며 자기네한테 데

리고 가려 했다.

성태관이야말로 《황금하늘소》였다. 이 《황금하늘소》의 고삐를 저저마끔 잡으려고 그자들은 성태관의 선친과 어느 땐가 면목이 좀 있었다는 정체모를 사람들까지 내세워 생활이란 영업이고 돈벌이다, 공산사회에선 개인영업을 못한다, 인간은 개체로 태어나 개체로 감각하고 개체로 살다 개체로 죽는다, 이 개체의 생존은 오직 영업하나다, 그러니 자생적계급인 성태관은 서울에 가야 생업을 할수 있다느니 하며 별의별 변죽을 다 쳤다.

성태관은 마파람이 쓸어 내리는 막바지에 홀로 선것만 같았다. 억하심정인들 이보다 더하랴.

그로부터 얼마후 그는 서울길을 단행하기로 하고 재산관리인이자 혈친인 명구를 데리고 떠났던 것이다...

밤이 이슬하여 두사람은 친구의 집에 들어 설수 있었다. 김하룡은 그전날의 자기 기업주를 옛지기로 반가이 맞아 주었다. 그는 성태관의 신변을 걱정하여 《7》자로 된 가옥의 뒤다락에다 방을 꾸려주고 거기서 얼마간 은신할수 있게 해주었다.

그 다락주위를 가끔 지나치곤 하며 오고가는 허우대 큰 한 사나이가 있다는것을 성태관은 물론 김하룡의 내외도 알지 못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불박혀 은신해 있는 사이에 어느덧 10월에 접어 들었다.

성태관은 미군에 붙들리는 한이 있어도 기업의 출로를 찾아 보려 했다. 그에게서 이제 남은 일루의 기대는 귀옥이 아버지를 통해 길을 열어 보자는것이였다.

원리 귀옥이 아버지 허민은 흥안의 시절 구한국의 병졸로 궁성보위를 하다 왜군에 의해 조선군대가 강제로 해산된후 울분을 품고 교회당 사립학교에 들어 갔었는데 지금은 교감겸 목사로 있었다. 그리고 귀옥이는 평양의 언니네 집에 놀러있으면서 너고를 졸업하고 있던차에 성태관을 알게 되어 서로 언약도 맺었다. 그런데 그때 귀옥이는 아버지가 중환으로 몸져 누웠다는 전갈을 받고 서울에 내려와 주저앉아 있다가 그로부터 한해후에 8. 15해방을 거기서 맞았고 오늘은 기약없이 헤어진 성태관을 만나게 된것이다.

성태관은 김하룡에게 부탁하여 저물녘에 귀옥이를 불렀다. 가끔 그를 만나고 싶었지만 바깥출입을 할수 없는데다 기업이 성사된 일후에 기쁜 심정으로 상봉을 하자고 한것이였는데 만사가 그리 되지 않았었다. 하거니 헤어져 한해 남짓했건만 10년은 실히 떨어져 있던것 같은 성태관의 뽀는 심경이였다.

당항라적삼에 까만치마를 받쳐 입은 왜서인지 그새 펄 가얏과 진것 같은 중발머리의 귀옥이가 휘영청 자태를 나타낸것은 땅거미가 내릴무렵이

였다. 그러지 않아도 체포령이 나붙은것을 보고 초상난 집이 된 귀옥이의 집안에서는 기연가미연 가해서 그의 소식을 알아보려 애를 태우고 있던 차였다. 한데 난데없이 수배자가 된 성태관이 불쑥 나타난것을 보자 귀옥이는 실성한 사람모양 그에게 엎어 지며 세차게 어깨를 떨었다.

처녀의 들먹이는 어깨를 쓸어 내리는 성태관의 손도 북받치는 련정에 떨렸다.

그는 귀옥이의 두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며 아버지의 주선을 받아 서울에서 기업을 퍼볼 결심을 말했다.

귀옥이는 하염없이 눈물만 쏟으며 인차 응대를 하지 않았다. 한동안 입술을 감빔하며 은빛나는 약혼반지만 쓸어 만지던 귀옥이는 기여 드는것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관씨, 요즈음 시국에 이 서울서 어떻게 기업을 퍼졌어요? 아버지일도 잘 안되고 심화병으로 누워 계시는데... 고쳐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 와 함께 사시면서 차차 앞일을 생각해 보면 어떠실지...》

성태관은 그때까지도 잡고 있던 귀옥이의 손을 맥없이 놓았다. 서늘한 눈길이 반려의 백옥 같은 얼굴에 가부딴쳤다.

파묵하고 결곡한 그가 기업에 미쳐 돌아 가다 나이 서른이 넘어 규방처녀를 하나 본것이 귀옥이여서 그런지 남다른 애육에 뿔었는데 이런 실망을 던져 줄줄은 전혀 예기치 못했다.

《이 성태관더러 천금을 내던지라는건 아니겠지? ... 귀옥이네 집에 썬평중계 없혀 처가살이나 하면서 말이요. 아니될 말!...》

그는 자못 치밀어 오르는 분격을 가까스로 누르며 이렇게 말을 한것 같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입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저 가슴 한쪽구석이 뭉청 떨어 저 나가는것만 같았다.

《그럴순 없어. 내 목숨따윈 헐히 내버릴수는 있어도 기업은 버리지 못해. 기업만은...》 하고 바위처럼 들어 앉은 자기의 속마음을 다시금 헤쳐 보이며 했던만 무슨 까닭에서인지 그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만두었다.

...

봉선화는 울밑에 피고요
요인생은 초가에 진다요
애달퍼라 내 이팔청춘아

...

누구인가 술에 취해 지나가며 부르는 곡조가 그들의 산란한 가슴을 더한층 울적하게 했다.

언제부터인지 비방울이 드리웠다.

삭풍끝의 가을비는 차거웠다. 비줄기는 어둠을 추척추척 적시며 성태관의 가슴천정에서도 뿌려지는듯 했다.

《귀옥이... 참 안됐지만 우리 둘은 다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인것 같소.

산과 산은 만나지 못하지... 부디 잘 있소...》

성태관에게서 창졸간에 튀어 나온 이 말은 멀리서 울려 오는 메아리 같았다. 그 목소리는 비발에 잠긴듯 고뇌에 젖어 있었다.

《태관씨!... 어찌면, 노여움을 푸세요... 정 그러시면 이 소녀의 머리라도 없어 주고 떠나주세요...》

저옥 흐느낌에 떨리는 귀옥이의 이 애달픈 하소는 성태관에게 가닿지 못했다.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적막한 길거리에는 사위여 가는 흐릿한 등불들이 군데군데 흐르고 있었다.

비바람에 철썩철썩 휘감아 치는 치마자락을 날리며 한 녀인이 길가에 초연히 서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후, 점심나절에 김하룡이 희색이 도는 얼굴로 다락에 올라 왔다.

《성형, 어제(16일) 오후 5시에 리승만이 전주 비행장에 내렸다네. 아님말로 이 <남한>의 정권을 노리고 귀국을 단행한셈이지. 그런즉 해외에서랑 동분서주하며 독립운동을 해왔다는 사람인지라 우리 같은 기업가들에게 혹시 길을 틔워 줄지 알겠나. 그가 독립이람시고 운동자금인들 좀 약차하게 먹었게. 하여간 두고 봅세. 참 <동아일보> 송진우사장이랑 정객들이 미군이 진주한 9월 8일에 <한국민족당>을 내왔다는데 며칠전에 김성수, 윤치영이도 그 신당에 들어 갔다더군. 기업가들이란 정객들과 교제를 해서 크게 나쁠건 없을테니 혹시 알겠소? 우리 일을 나서줄런지...

허허, 오늘밤엔 룡꿈을 꾸길 바라네.》

김하룡은 어느때없이 현현한 기색으로 수정과와 과일다반을 올려 오라고 아래에 대고 소리쳤다. 성태관은 하얗게 조갈이 든 입에 수박 한쪽을 넣었다. 별스레 수박맛이 달고 시원했다. 사면초가의 신세인데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래기라도 붙잡는다는 격으로 김하룡이 던진 말은 은연중 그에게도 일종의 기대감을 안겨 주었다.

이 일이 있던 이튿날 아침이었다. 김하룡이 울려 보내주는 《자유신문》을 뒤적거리던 성태관은 그만 아연해 졌다.

《리승만박사 17일 오전 10시, 미군사령관 하지의 안내로 미<군정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단과 회견》이라는 표제아래에는 리승만이 먼저 하지와 의 간담회에서 남북조선을 분할하여 미쏘량군이 각각 신탁통치한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는데 국제화되지 않게 보자기를 씌우면서 어떻게 하나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데 대해 운운하였다는것 그리고 미합중국 국민들의 기념일들을 <한국>민족도 함께 기념해야 한다는 미<군정>의 요구에 리승만이 쌍수를 들어 찬동했다면서 그 기념일들을 공개한것이였다.

- 정월초하루(신년명일)
- 7월 4일(독립기념일)

- 11월 15일(《평화》 기념일)
- 12월 25일(크리스마스성탄절일)

성태관은 억이 막혔다. 해방년에 《적산금품형령수배인》으로 둔갑한것도 억울했지만 저런 정치 오폭기와 한하늘을 이고 사는 조선사람이라는 수치감으로 하여 더욱 이가 떨렸다.

저 백치 같은 인간추물에게 막연하게나마 그 어떤 기대감까지 가졌던 자신이 혐오스럽기 그지 없었다.

장차 이 나라는 어찌될것인가?... 나 같은 기업가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것이나? 아, 이 가슴이 왜 터지질 않느냐...

그는 련사홀을 거의 음식한점 들지 못했다. 백랍 같은 얼굴에 두눈은 벌겋게 달아 올랐다. 온 심신이 삼거웃처럼 돼버렸다.

(이 하늘아래선 더는 기업을 할수 없구나. 내 인생이 이다지도 허무해 졌던 날이 있었더냐. 아니, 그럴수 없다. 은으로 만든 닛으로 황금이삭을 거두어 들이는게 사람이라 했는데 어디로든 떠나가자. 내게 금이 있는 한 이역의 하늘밑에 가서라도 내 민족기업의 굴뚝을 세우 보자. 이 뜻을 성사 못하면 다신 고국을 찾지 않으리라....)

제물포에서 해외출구를 끝내 찾지 못하면 차라리 황해에 몸을 던져 주검이 되자....)

썩썩 갈라터진 허연 입술사이로는 선홍색의 피가 주르르 흘러 내렸다. 혀를 깨물어 피의 맹약을 굳힌 성태관이었다.

그날 밤, 두사람은 김하룡의 집을 나섰다. 인천으로 향했다. 요사이 갑자기 밀선들이 많아 진터이라 잘하면 손쉽게 아메리카에라도 가닿을수 있었다. 다음날 새벽 그들이 제물포에 당도하는데 별안간 검정색샤쓰에 흙스뽕모자를 내려 쓴 사나리와 검뿔로 가죽잠바를 걸친 두 사나이가 차에서 내려 성태관이쪽으로 접근해 왔다.

그는 첫눈에 이자들이 무엇을 노리고 도적교양이처럼 여기에 나타난것인가를 직감했다.

여차직하면 한두놈은 물고 넘어 질수 있다 손쳐도 금피가 문제였다. 명구는 금피트링크를 바싹 그러안으며 사색이 되어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세 사나이는 곁에 다가섰다.

《성태관씨, 이젠 적산금피를 바다너머로 도피시킬 작정인가요? 당신은 수배자요. 우린 미<군정>의 칙령을 받고 왔소. 그러나 금피만 순순히 반환하면 조용히 물러 가겠소. 아주 조용히...

거절하면 체포해서 미군사령부 특별지하실로 모시고 가겠소. 알겠소?》

검은 샤쓰를 입은 자가 기고만장해서 지껄였다.

그자가 하는 말을 보면 미《군정》의 지령을 받은 놈들이라고는 하지만 노리는것은 역시 금피라는것이 대뜸 알렸다. 금피만 따내가지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작자들이었다. 성태관네를 체포하여 미군사령부로 끌어 간땡자 금은 저희들

손에 넣을수 없다는것이 백일하에 뻔했기때문이었다.

각일각 이제 더는 어쩔수 없었다. 이자들과 격투를 벌리다 죽으면 죽는것이요 살면 사는판이었다.

허나 금만은 티끌만치도 앓기고 싶지 않았다.

인생은 천당에 못간들 황금만은 천당끝에라도 고이 보내고 싶은 성태관이었다.

세 사나이중 한놈은 소형권총을, 두놈은 가죽장화목에서 시퍼런 단도들을 빼들었다.

그때였다. 별안간 부두아래쪽에서 기골이 단단해 보이는 흰칠한 키의 갓 스물을 넘겼음직한 한 사나이가 《가만!-》 하고 소리치며 달려 왔다.

짐짓 숨을 돌리는척 하며 주위를 둘러 보더니 비호처럼 그자들에게 접어 들었다.

먼저 권총을 꺼내든 자의 팔목을 비틀어 꺾으며 등어리를 타격하는것과 거의 동시에 단도들을 빼든 두놈의 면상과 배허벅을 걷어 찼다.

이 일은 실로 한순간에 벌어 졌다.

낫모를 청년은 너부러진자들을 일별하더니 성태관이더러 빨리 송림속으로 몸을 피하라고 가리켜주었다. 이어 그들은 인차 울창한 송림속에 피신하였다. 얼마후 그 청년이 두사람을 찾아 왔다. 다 무사한것을 보자 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후- 하고 내쉬는것이였다.

천명이랄지 세 사나이에게선 구원되었지만 이 낫모를 사나이는 또 어떤 사람인지 대중할수 없어 성태관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 하며 《참 고맙기 이를데 없는데 뉘신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안심하십시오. 혹시 후날 만나게 되면 그때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눈웃음을 지었다.

성태관은 말씨의 억양으로 보아 그가 경기도쪽 사람은 아니고 자기와 같은 평안도사람이란것만은 간파할수 있었다. 무슨 상념에 잠긴듯 했던 청년이 여러겹으로 차곡차곡 접은 신문 한장을 품에서 꺼냈다. 어چه호 《매일신보》였다.

《혹시 <매일신보> 사장인 홍명희선생이 낸 이 특보기사를 보았는지요?》

태관은 무심결에 신보를 받아 펼치였다. 글줄을 따라 읽어 내려 가던 그는 그 어떤 광원과 눈을 마주친듯 시야가 갑자기 부시여 오름을 어찌지 못했다.

《...평양이 낳은 영웅남아- 민족의 령도자 김일성장군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 조국개선연설 퍼력하셨다.

청사에 아로새겨 질 그날은 해방년 1945년 10월 14일이였었다...》

글발들이 살아 움직이는듯 자자구구 빛받치며 안겨 들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하였습니다.》

그는 망막이 콧 흐려 저 더는 글줄들이 보이지 않았다. 두사람은 거창한 물동이 터진듯 서로 붙들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썩아- 흰 물갈기를 일으키며 가없는 황해의 물결이 밀려 와서는 처절씩 기슭을 쳤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생시면 분명 반만년력사국에 해가 솟은거다! 이 사람 명구! 어서 떠나자구.》

성태관은 부지중 금피트링크를 둘다 닝큼 들었다.

《아니 어디로 가자는겁니까? 밀선은 타지 않고...》

신보를 접어 주며 청년이 태관의 팔을 붙잡았다.

《평양으로 가야지요. **김일성** 장군님께서 새 나라 건국사업에 우리 기업가들을 불러 주시지 않았소!》

그 청년은 더없이 기뻐 하면서도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정말 결심을 잘하였습니다. 나도 그러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북로로는 평양으로 갈수 없습니다. 미<군정>에서 길목마다 자객들을 더 파했습니다. 내 똑딱선 한척을 구해 났으니 해주까지 배편으로 가 평양으로 가도록 하십시오. 자, 부두로 내려 갑시다.》

언제한번 만나본적조차 없는 애젊은이는 10년지기처럼 다정히 성태관을 대해 주며 금피트링크도 곁들여 주었다. 그러며 성태관이 금피를 가지고 해외이든 그 어디에 가도 그에 대해선 일체 상관지 않겠지만 이 금폐문에 해방된 새 조선의 한 기업가가 잘못되거나 재난을 당하게 된다면 천만리를 따라 가면서라도 상관하겠다며 《금값에 인생값을 비할수 있겠습니까!》 하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

한 낮모를 사람의 그 말의 의미를 그로부터 떠나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다 알게 되리라고는 이때 미처 생각지 못한 그였다.

그들은 부두가에 이르러 서로 껴안고 불을 마주 부비며 작별의 포옹을 했다.

《용서하십시오, 친구!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수 없으니 말이요. 정말 하늘이 도와준것이 아니겠소. 언제든 다시 만나는 날 내 꼭 곁초보는하리다. 꼭 잊지 않겠소!...》

그들은 헤어 졌다.

배는 부두에서 미끄러 지자 인차 강화만쪽으로 향로를 잡았다. 흰 물결을 가르며 배는 전속으로 전진하였다.

그런데 이때 부두로 여럿의 경관복같은 차림을 한자들이 급정거하는 차에서 뛰어 내리며 그 청년을 에워 싸는것이 성태관의 시야에 안겨 왔다.

이어 격투가 벌어 지고 자지러진 총성이 울렸다.

그런 사품에 청년이 똑딱선을 향해 소리쳤다. 무슨 웨침인지는 딱히 분간할수 없었으나 손을 세차게 흔드는것으로 봐서 어서 빨리 전속으로 경비해구를 빠져 나가라는것임을 알아 차릴수 있었다. 뒤미처 그가 부두바닥에 쓰러지는것이 보였다.

그 모습은 이름석자도, 나이도,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한 애젊은이의 마지막영상이었다.

《성님, 대관절 나나 성님이 뭐길래 우릴 위해 제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다 있는건가요?!...》

명구는 자기의 한쪽가슴을 들부시듯 쿵쿵 들이쳤다.

은인의 생사에 대해서조차 알길이 없이 가야 하는 성태관의 눈앞에는 뿌잇한 안개가 서리었다.

가없는 황해의 물결은 끝없이 설레이며 그들을 얼싸안아 북으로 떠밀어 주었다....

2

이윽도록 정숙이 흐르는 집무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책임부관이 들어 섰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인기척에 회상에서 깨어나시였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셨다. 유난스러운 봄계절이다. 어디서나 봄의 서기가 넘쳤다. 어느새 우수정침이 지나 벌써 연두빛이 완전한 금수산의사당주변의 숲과 록지들에는 이해의 첫 봄비가 줄줄줄 내리고 있었다. 흡사 태동하는 봄의 거세찬 숨결과 춘삼월의 그윽한 훈향은 금수산의사당의 눈부신 창가들에서 비껴 내리어 환희로이 퍼져 가는듯 하였다.

때로 깊은 사색이나 추억에 잠겼다 깨여 나셨을 때에는 의례히 창문가로 가시여 점도록 창밖의 다양한 세계를 감각하시곤 하는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드러운 내리드리운 백설같이 흰 창가림을 가벼이 제쳐 놓으시며 책임부관에게 림춘추부주석이 도착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예, 금방 도착하였습니다, 수령님.》

《그럼 어서...》

책임부관이 나가고 림춘추부주석이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들어 섰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첫 눈결에 어딘가 얼굴이 수척해진것 같아 보이는 부주석의 손을 따뜻이 잡아 주시며 자신의 곁에 앉혀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가는 세월 오는 세월에 변함없이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으면서 묵묵히 일해 오는 혁명의 원로전우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그래 성태관동무의 과거경력에서 아직도 미해명이 있거

나 차이나는 점들은 어떤것들입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입니까?》하고 저으기 궁금하신 안색으로 물으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전화를 받고 인차 해당부문 일군들에게서 알아본데 의하면 전쟁시기 성태관 동무의 정치생활에서 미해명점들은 크게 없는데 아직까지 이러저러한 불미스러웠던 지난 날의 자료들이 남아 있는것들이 있었습시다.》

림춘추부주석은 알아본 문제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 드리었다.

《아직도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다? 그런데 그 문제들에 대한 본인의 진술내용들은 문건에 다 첨부되어 있었습니까?》

《예, 바로 본인의 그 진술내용과 해당기관들에서 료해하여 첨부한 자료들에서 일부 차이나는것들이 있었습시다.》

그이의 안색이 저으기 흐려 지었다.

림춘추부주석은 그런 문제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하여 빚어 진것만 같은 죄송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차대의 담배팩을 당기여 림춘추부주석에게 권하러다가 그만두시었다. 그가 담배를 태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셨기때문이였다.

숙연한 침묵이 흐르는 방안에 푸른 연기가 금실금실 피여 올랐다.

사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외국방문을 며칠 앞두고 있는 어제 다른 나라들에 가서 일보시며 길안경을 하나 더 가지고 가실 생각도 있고 해서 광학유리생산협동조합 관리위원장 성태관을 찾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지난 시기에도 두차례나 그에게 안경을 직접 부탁하시였던것이다.

그런데 의외에도 성태관이 달포전에 관리위원장직책을 내놓고 집에 들어 가 공로보장대우를 받으며 휴식하고 있다는것이였다. 해임리유란 70고령의 나이도 나이려니와 몸도 약해 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 기업관리를 더는 하기 어렵다며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냈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태관이 수십년간 충실히 해오던 관리위원장사업을 그만둔데는 필경 신상에 그 어떤 다른 사연이나 곡절이 있어 그런것만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야 자신에게나 **김정일**조직비서께 편지라도 한장 하고 그만두어도 두었을 성태관이라고 생각되셨기때문이였다.

사람이 어찌면 그럴수가 있는가? 아니, 그럴수는 없다. 그러면 무엇때문일까? 나는 그를 공산주의사회에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일찌기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을 그렇게 저버리다니... 더 지체 말고 알아 봐야 한다...

그이의 심중은 무거우시었다. 그리하여 제3차 당대회이후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시기 개인상공인들과 한때 사업한적이 있는 림춘추부주

석에게 성태관이 혹시 과거경력에서 오늘까지 무슨 번민거리가 있어 그러지 않는가, 그것도 아니면 현행기업관리에서 어떤 문제거리가 생겨 그러지 않았는가를 잘 알아 볼데 대한 과업을 주셨던 것이다.

국가적건지에서 보면 별로 크지도 않은 한개생산협동조합일군의 신상에 생긴 너무도 평범한 일이였지만 한 오랜 기업가의 이러한 일로 하여 어제부터 저속 원심을 쓰다나니 그에 대한 생각이 더나시여 금방 회억에 잠기시였던 그이이시었다.

《그리고 보니 지난날의 성태관에 대해선 강량옥선생이 자상히 알고 있었고 이체는 나와 **김정일**조직비서만큼 정확히 아는 사람도 있는것 같지 않구만. 나는 그가 해방전후부터 개인기업을 하여 왔으나 언제한번 국영에 넘기라고 한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업활동을 많이 도와주었소. 그리하여 전후시기부터 기업이 굉장히 번창해서 10년도 되기전에 백만장자가 되지 않았겠소. 이를테면 로동당시대에 말이요.

그때가 아마 그의 나이가 40대였을것입니다. 그 시기 수백만원의 출자금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하던 성태관이 자금을 전부 조합에 들여 놓고 후에는 당에도 들게 되었는데 나는 그의 사회성분을 개인기업가가 아니라 사무원으로 규정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성태관동무가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다 추었겠소. 그러며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우스개말을 했겠지. <사람에게 두눈과 두귀, 두손과 두발이 있는것은 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어서인데 두눈이 있음은 거짓과 진실을 갈라 보라는것이요 두귀가 있음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는 흘려 버리라는것이요, 두손이 있음은 한손으로는 주고 다른 손으로 받으라는것이요 두발이 있음은 한발로만 서지 말고 서로 의지해 있으라는것이요.> 하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날 개인기업을 해오면서 형성된 그의 《생활론》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기회가 기회이니만치 오늘 부주석동무에게 그에 대해 내 아는것 말해주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많이 아는것이상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많이 알면 세상만사가 다 두렵지 않다는것이 나의 지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이께서는 사뭇 온정이 넘치는 눈길로 부주석을 바라보셨다.

림춘추부주석은 부지중 그 어떤 자책감에 휩싸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한 생산협동조합 일군의 크지 않은 생활을 놓고도 그토록 마음을 쓰시는데 하물며 천태만상의 나라일을 두고는 그 얼마나 많은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랴 하는 새삼스러운 생각이 가슴을 쳤다. 그리고 그이를 부주석인 자기가 보좌해 드리는것은 없고 오히려 걸음걸음 짐만 되는것 같은 송구스러움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 없었다.

불현듯 오래전에 홍명희선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 부수상이 3명 있었는데 김책부수상은 산업부흥을 위해 뛰어 다니고 박헌영은 간첩질을 하느라고 뛰어 다니고 자기는 내부사업을 한다고 늘 사무실에나 앉아 있었다며 그러니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중하가 얼마나 컸겠는가 하면서 눈물을 머금던 그의 모습이 섰다.

일찍부터 수령님을 모시고 일해 온 일꾼들은 이제는 다 앉아 있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만 이 한몸으로 그이의 위업을 받드신다고 생각할수록 조선혁명이 이제는 **김정일** 동지의 대에 이르렀지만 이 땅에 흐르는 세월은 여전히 《군로신일》의 나날로 흐른다는 걱정과 림춘추부주석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 올랐다.

《아니게 아니라 **김정일** 조직비서동무는 백두산 시절부터 일반고생을 다 해오며 오로지 인민을 받들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지 매일같이 그가 보고싶소. 좀 있다 11시에 성태관동무와 판련해서 토론하자고 현지에서 곧장 오겠다고 했으니 그때 우리 같이 만납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차대에 내려 놓으시였다. 그것은 근시안경이였다. 그이께서는 근시안경옆의 다른 원시안경을 들어 꺼보시였다. 인차 어딘가 불편하신틀 그 안경을 내려놓고 근시와 원시를 다 볼수 있게 만든 밤색테안경을 끼셨다.

《그럼 시간이 좀 있으니 성태관의 과거지사를 말해 봅시다. 과거는 서론이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이 그를 리해하는데서 좋으리라 봅니다.

부언하건대 성동무의 일대기를 보면 금의 정치경제학이랄가 아니 사회주의금의 정치경제학편이라고 말해도 별로 틀릴것 같지 않다는것입니다.

부주석동무가 잘 아는것이지만 사실상 금이라는것이 뭐겠소. 하지만 그 금을 인간우에 올려놓는 사회에서는 사람이 그의 노예가 되고 황금만능의 정치가 서고 인간의 가치관이란 하등 보잘것 없는거요.

내자신도 혁명을 오래 해오면서 금의 역사를 놓고 황금의 존재방식에 대해 많은걸 생각하군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인간생활에 금이 들어 온것이 바빌로니아에서 첫 국가가 발생할무렵이었으니까 아마 B.C 일것입니다. 그후 금이 류통수단의 척도로 된것이 B.C 1300여년전이었는데 함무라비법전에 의하여 그 시기 벌써 솔로몬대왕이 금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생활에서 화폐가 발생한것이 B.C 800년경이라면 금이 화폐의 측량단위로 된것은 유크리트기하학이 발견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흘

려 온 금이 착취사회에서는 기본지불수단으로 되고 자본주의는 금본위제로 전락되었던거요. 그러니 금본위제도야말로 자본주의의 생존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회상을 벌써 300~400년전에 작가들이 신랄히 비판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가 소설 <돛비와 아들>일것입니다.

참 고대에쥘트의 한 왕은 어쨌는지 아오. <황금을 위해선 민중과도 싸우고 력사와도 싸우고 자연과도 싸우고 자신과도 싸워야 한다. 황금은 곧 임금이다.>라고 하면서 인간력사를 오욕했더랬소.

지금도 세계적으로 한해 평균 2,000t 의 금을 생산하는데 특히 남아프리카에서는 900t 의 금을 캐서 방매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자주적존엄은 나날이 더 유린당하고 20세기가 저무는 지금에도 황금의 노예로 남아 있는것이 아니요. 왜정때 우리 나라에서도 한해에 20여 t 의 금을 략취 당한적도 있는데 그때 우리 인민이 얼마나 피눈물나는 노예로동을 강요당했습니까.

참으로 금과 인간의 다난사를 다 얘기하자면 끝이 있을상 싶질 않습니다.

이런 금의 획득을 위한 싸움은 지구상에서뿐아니라 앞으로는 우주에서도 벌여 질수 있는데 최근자료를 보니 천체에 약 1천억t 의 금이 매장된 별이 하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제거리리는 그 금을 캐서 지구에 날라오자면 광년으로 가정하여도 무려 175년이나 걸린다는데 있소. 하지만 금에 환장이 된 사람들은 그 금을 따오기 위해 국제적인 우주왕복선을 만들어 보내자고 유엔을 찾아 가지 않겠는지 모르겠거든. 허허...》

그이의 해박한 말쑤에 심취되었던 림춘추부주석도 가볍게 따라 웃었다.

《이런 금의 매력에는 성태관동무의 인생사도 비껴 있지 않겠소?

내가 조국해방전쟁때 성태관에 대해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된것은 내각 제30차전원회의를 지도하려 향하리에 가있는 시기였소. 후퇴시기였지만 반공격작전을 구상하고 한편 전후복구건설문제를 생각하다 잠시 휴식하고 있는데 김책동무가 찾아와 성태관이 반국가행위로 형사책임을 지고 전시재판에 기소되었다면서 아무래도 그 진상을 자기가 직접 알아 보아야 하겠다는것이였습니다.

그때 김책동무가 사법성의 사람들이 한 일이지만 자기가 나가 알아 보겠다고 한것은 내가 성태관을 남달리 밀어 주고 그의 기업활동을 도와준데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때문이였소. 우리 나라 첫 연필인 <삼천리>를 만들었고 이어 강계에 연필공장을 확장할 때는 자기의 그 공장을 나라에 회사한 성태관동무가 아니요.

김책동무가 얼마 있지 않아 지구재판소에 와

있는 성태관도 만나보고 기소된 그의 형사소송자료내용을 나에게 보고하였는데 그의 범행자료는 매우 엄중하게 묶어 저 있었습시다.

소송건은 <개인기업가 성태관이 전시체제의 군수기업을 회피하고 개인영업을 계속하면서 반국가행위를 한데 대한 기소자료>라고 되어 있었는데 전시에 어긋나게 비군수제품인 유리생산업을 하면서 거액의 리윤몹을 사취하였다는것과 지난 시기 일정하게 군기금헌납은 하였으나 자기 개인업을 위한 연막을 치는데 목적을 두었다는것, 해방직후 월남도주하면서 가지고 나간 <적산금품>을 아직 은닉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는것, 약혼녀인 서울에서 들어 오는 목사의 딸과 일시적후퇴때 만나 산에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면서 리적행위를 한데 대해 솔직히 진술하지 않는다는 등등이었습시다.

그런데 이 마지막자료에 대해서는 성태관이 더우기나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료화되었다면서 김책동무에게 이런 실토를 하더라는것이였습니다.

성태관이 X X 지구재판소로 가게 되었는데 일시적후퇴시기라 다른 차는 없고 해서 한 검찰일군의 호송하에 떠났다고 하오. 그렇게 되어 회원쪽으로 들어 오다 어느 고개길에서 저 룡전병놈들과 불의에 조우하게 되었는데 호송일군이 그만 심한 부상으로 더는 움직일수 없게 되었다질 않소.

그래서 그는 하는수없이 개별적으로 후퇴해 들어 오는 사람들을 위한 집결소에다 그 일군을 후송치료하게 하고는 지체없이 또 떠났던거요. 그런데 참 그 후퇴의 길에서 그가 5년전에 헤어진 약혼녀를 만나게 될줄을 어찌 알았겠소. 사실 그로서는 그 정황에서 그 녀자를 만나는것이 매우 불쾌하였소. 왜냐하면 그와는 이미 서울에서 갈라진 사이였고 또 한편 그 녀자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겹쳐 돌아 갈수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었던거요.

그리고 약혼녀인 귀옥이가 북행길에 오르게 된것은 목사로는 살기가 어려워 직조업을 해보려던 아버지가 미<군정>놈들의 기만에 넘어가 밀자금까지 다 털리우고 한지에 나앉은데다 인간생지옥으로 화한 남쪽땅에선 더는 살고싶지 않은데 있었습시다. 인민공화국의 제도에서 마음껏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성태관을 나날이 더욱 따르고 싶어졌소. 매를 맞아 죽어도 그한테서 맞아 죽으면 더없이 행복할것 같았고 하루를 살아도 민주의 세상에서 값 있게 살아 보았으면 여한이 있을것 같지 않아 더욱 북으로 향한 귀옥이었다오. 또 부모들도 어서 그리할것을 바랬던거구. 그래서 후퇴하지만 공화국정권을 따라 고향땅을 지나 강제로 들어 가던 길이였소.

두사람의 상봉이 과연 어떠했으리라는것은 명백했소. <범인>인 성태관이 결을 줄리 만무했고

결별한 녀성에 대해 그 어떤 미련도 가지려 하지 않았던거요. 그는 판결이 기다리는 법기관으로 가던 길을 다시 떠났소. 한 녀인이 울며불며 해야 전쟁은 너무도 가혹했소. 이렇게 일은 되었지만 제기된 자료는 그렇질 않았던거요...》

그이께서 안경을 차대에 내려 놓으시는 소리가 《달가닥》 하고 집무실을 울리었다.

《부주석동무도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는것 같은데 더해도 일없겠습니까?》

《수령님! 어서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성동무에 대해 그렇게까지지는 정말 알지 못하고 있었습시다.

수령님께서저에 대해서도 저나 동지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말이지 우리 인민들과 개개의 일군들에 대해 그 운명사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분은 수령님과 장군님밖에 없습시다.》

그의 얼굴빛은 저으기 상기되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의 모든 운명은 어버이수령님께 의탁되어 있고 수령님의 한평생은 이 나라 수천만사람들의 운명사로 이어져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림춘추부주석은 이어 그이께 이런 진정을 아뢰이고 싶었으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 엄하게 나무라시군 하는 수령님이시여서 묵으로 뜨거운것만 삼키었다.

《그런 일들이 있는 뒤라지만 성태관동문 혼자서 끝내 지구재판소에 당도하였습시다. 이렇게 돼서 나타난 그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에 대해 아는것 해명해 줘야 공명정대하게 문제들이 풀리고 그를 구원할것 같아 내각전원회의를 끝내고는 이어 그의 소송건에 대해 의견을 주기로 하였소.

그래서 전원회의를 일단 결속하고 그의 문제로 넘어 가자고 하는데 적항공대의 맹폭격이 시작되더라 말이요. 강제지구에 대한 폭격이라기보다 내가 와 있는 향하리일대에 대한 전면공습이라는것이 확연히 알리었소. 회의실 창유리들이 깨여 저 나갔소.

이때 정황도 정황이었지만 떠오른 생각이 이 준엄한 전쟁에서 미국놈들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쪽에서 우리 일군들이 사람문제를 잘못처리하여 매장해 버린다면 이 또한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하는것이였습니다.

더우기나 이는 성태관 한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국의 개인기업가들과 관련되는 그들의 운명을 지켜 주는 더없이 신중한 대의명분이라는 생각이 겹쳐 들었소.

그래 김책동무에게 여기 어디에 방공호나 대피호를 파놓은게 없는가, 거기 들어가 지체말고 성태관건을 토의하자고 했더니만 처음엔 펄펄 뛰다 내 성미를 잘 아는 그인지라 하는수없이 동의하더라 말이요.

얼마후 천정에서 돌부스레기가 부슬부슬 떨어지는 방공호안에서 석유방등불을 걸어 놓고 <국가반역자>의 문제를 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 그때 실상은 성태관의 보증인, 변호인이 되어 나선것이나 같았다고 볼수 있었지.

나는 제기된 기소자료에 대해 한건씩 내려 가면서 의견을 주었는데 먼저 전시체제에 맞지 않게 유리생산기업을 하면서 수많은 리운을 사취하였다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선을 세워 주었소.

물론 유리제품은 직접으로는 대포나 땅크, 총과 같은 군수기재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고 인차 전후복구건설을 해야했는데 그때엔 어디서나 절박하게 요구되는것이 유리이다.

우리가 해방후 장대재에 아동궁전을 하나 멋있게 짓자고 하다 전쟁통에 미처 착수하지 못했는데 전쟁을 이기고 그런 궁전들과 살림집들을 짓자고 해도 우리가 없으면 안된다. 그러니 지금부터 유리를 생산해서 나쁠것이 무엇인가? 법일군들이라면 적어도 10년은 앞을 내다보며 일해야 한다. 개인기업가들이라지만 그들은 앞을 내다보며 자기 기업을 하는데 그렇게 법을 근시안적으로 다루면 부끄럽지 않는가.

그러지 않아도 남포유리공장이 다 마사진 형편에서 성태관동무가 전쟁승리후에 리운이 많을것이 유리일것 같아 그리한지는 모르겠으되 여하튼 그가 앞을 내다본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이나!

그리고 많은 리운몹을 사취하였다는것도 믿어지지 않는다. 개인기업가가 자기의 자금을 출자하여 기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에서 리운이 크게 날수도 있고 손실액이 날수도 있다. 경기가 좋을 때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융자해 줄수도 있으며 판로가 괜찮은 다른 기업을 또 내오기 위해 리운몹에서 일부 떼어 놓을수도 있는데 그런식으로 법화하면 그래 누구에게 리롭겠는가? 그래서 개인기업가가 아닌가. 법을 권 사람들이 그래서 안된다고 아퀴를 지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군기금을 적지 않게 헌납했으나 그것이 자기의 개인기업을 위한 연막을 치는데 목적하고 했다는것이었는데 국영공장을 하나 세울 그 많은 돈을 나라에 희사한 사람이 연막은 무슨 연막이겠는가. 설사 연막을 친다 하면 적당히 한 5만원쯤 슬쩍 던지면서 연막을 쳐야 수지타산도 맞을수 있지 그 엄청난 액수를 내면서 <연막>놀음까지 할 필요야 있겠는가.

속담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수 있고 열라대왕도 돈앞에선 한쪽 눈을 감는다고 했지만 성태관동문 억만금을 벌어서는 다 나라에 고스란히 바치군 한것을 그래 법일군들이 모르는가, 그에 대해선 마침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있으니 이 문제도 그를 믿고 기각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다음 <적산금피>를 아직 은니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건이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 우선 사법성의 일부 일군들에게 일제에 대한 계급적관점부터 바로 가지도록 하였었습니다.

물론 일본놈들이 패망해 갈 당시 일부 적산품들을 압수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품 같은것은 구경도 못했다. 일본이 우리 나라에서 해방전에 무려 360여 t 이나 되는 순금을 약탈해 갔지만 패망해가면서 1g 의 금도 남겨 주지 않았다. 그래 과연 왜놈들이 우리가 잘 살라고 황금을 <선사>해 줄 그런 위인들이나 될것 같은가. 어디 적산품에서 금품을 본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말해 보라....

나나 부주석동무가 산에서 싸울 때 가끔 목격했지만 사무라이들이라는게 우리에게 얻어 맞아 줄행랑을 놓으면서도 장교놈들은 자기가 찼던 금시계를 풀어 돌탕쳐 버리군 하지 않았소. 만약 포로되는 경우 빨찌산에 금품 한조각이라도 전리품으로 넘겨 주지나 않을가 하여 그리도 악착하게 놀았거든. 언제인가 조직비서동무도 말했지만 일본놈들은 우리가 대를 두고 해보야 할 백년숙적이요. 바로 이런 천하에 못된 족속들이 도대체 웬 금을 우리에게 남겨 주어 성태관이 <적산금피>를 가지고 있었겠는가 말이요. 우리가 조국에 개선했을 때 국고는 텅 비여 있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맨손으로 건국을 해야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해주었소. 때문에 나는 그전에 대해서도 부정하면서 만일 성태관이 자기 돈으로 몇해전에 사둔 금이 아직 있을수도 있었겠는데 그 금은 어디까지나 그의 소유권에 한한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 개인소유재산은 법적으로 보호해 주게 되어 있으니만큼 그것도 문제시할수 없지 않느냐고 론박을 했소. 마감으로 후퇴도중 조직에서 리탈하여 서울서 들어오는 약혼녀와 산에 들어가 리적행위를 했는데 솔직히 진술하지 않는다는 건이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흥분하였더랬습니다.

동무들, 생각해 보라. 만약 성태관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고의범인이고 당에 속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죄과가 두려워서라도 호송인이 없는 기회에 얼마든지 적의 편에 넘어갈수도 있고 아니면 도주했을수도 있다. 더우기 나 후퇴정황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스스로 공화국의 법기관으로 찾아 갔다. 그는 이렇게 우리 제도를 신성시한 사람이다.

사람이 지은 마음은 사흘을 못간다고 했는데 이것이면 그의 인간됨을 알고도 남음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 전쟁에서 땅과 제도만 사수하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것을 지켜 싸운다. 인간을 지켜 주는것이 나의 군사정치이고 최고사령관으로서의 나의 최대의 직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태관을 믿고 앞에서 제기된 형사건을 모두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한 자산가의 운명을 이 전쟁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이 끝까지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당적립장에서 분석해명해 주었다. 어떤가?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말해 보라...

방공호안은 조용했소. 그 누구도 다른 견해들이 없더라말이요.

이때 그 회의를 사회하던 김책동무가 상정된 의제에 대해 결정으로 채택할것을 건의했는데 일치각결로 채택된 그 결정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개인기업가 성태관의 형사소송을 기각하며 그의 개인기업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줄데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소. 아마 전쟁시기 회의문건들을 찾아 보면 그 결정문이 있을수 있습니다.

후에 보니까 그때 사법성에 따리를 틀고 앉아 있던 나쁜놈들이 나에게서 충실한 일군들을 떼내어 파멸시켜 버리기 위한 일환으로 성태관의 자료도 그렇게 만들어 기소하게 했던거요.

나라가 생사존망에 놓여 있던 어렵던 시기였지만 그때 우리가 성태관동물 구원해 내길 정말 잘했습니다...

나는 성태관을 이렇게 믿어 오는데 그가 왜 나에게나 **김정일**조직비서동무에게 알리지도 않고 벌써 집에 들어 갔는지 그 진실을 모르겠거든. 그 진실을...》

그이의 안광에는 자못 서운한 빛이 비졌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제법 즐기치게 내렸다.

《부주석동무, 그러니 성동무와 관련된 정확치도 않은 지난 날 경력자료들을 뭇때문에 오늘까지도 고문서철처럼 남겨 두어야 하겠습니까.

마침 부주석동무가 항일대전을 종횡무진한 력사가이니만치 당을 따라 온 한 오랜 일군에 대해 우리 당 투쟁력사에는 영원히 남기도록 하고 불미스러운 지난 날의 자료들을 일체 없애 버리도록 합시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었다. 문득 안락의자에서 일어 나시여 탁상달력을 당기시었다.

마치 력사의 갈피를 번지시는듯 며칠여간의 일력장들을 번져 보던 그이께서는 《오늘을 잊고 싶지 않구만! ...》 하며 붉은색연필로 일력장에 등근표식을 크게 하셨다.

이때 책임부관이 들어 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착하시게 되었다고 알려 드렸다.

《그렇소! 그럼 수고스럽지만 부주석동무, 우리 같이 조직비서동무를 현관에 내려가 맞읍시다.

오늘은 아침해를 두번 보는것 같구만!...

그이께서는 만시름을 다 잊으신듯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자리에서 일어 나셨다.

그리고 관옷걸이에 있는 지팡이를 들러다 그만 두시었다. 지팡이를 짚는 자신을 **김정일**동지께서 보시면 마음이 무거워 할것 같아서였다.

그이께서는 림춘추부주석과 같이 총계로 내려 서시다 그에게 홀 천정의 현란한 무리등을 가리키시었다.

《저 무리등이 바로 성태관동무네가 만들어 보낸거라우. 얼마나 훌륭하오. 유리야말로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생산지표가 아니겠소! 허허...

주체사상탑 봉화의 투명강질유리도 성동무기업소에서 처음으로 만들지 않았소! 그때 일군들이 그 유리만은 수입해 오자고 할 때 **김정일**조직비서동무가 다른것도 아닌 주체사상탑의 봉화인데 우리 힘으로 해야지 그러면 안된다며 그 파업을 대담하게 성동무에게 맡겨 주었더랬소.

우리 당 조직비서동무처럼 사람은 믿고 쓰면 열두산을 떠 옮겨 바다도 메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옛 중국의 제갈량도 머리가 좋아 제갈량이 아니라 사람들을 믿고 잘 썼기때문에 제갈공명이 된게 아니요?! 부주석동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못 흡족하시여 한가지 이야기를 더하겠다고 하시며 1970년대 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문동에 만수대에술극장을 지을 구상을 하다 그 부지 가까이에 성태관의 집이 있다는것을 알고 극장위치를 다른곳으로 옮기게 한데 대해 이를 어떻게 알고 그가 당장 자기집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그의 집을 다른 구역에 잘 지어 주었는데 그는 지금도 거기에 살거라며 감회에 잠기셨다.

그이께서는 현관으로 나서시었다. 해토무렵의 날씨는 아직 쌀쌀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부주석의 얼굴을 일별하며 이제 장군님을 만나뵙고는 일정대로 료양치료를 받으러 떠나야 하겠다고 이르시었다.

인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의사당에 도착하시었다.

전연부대에서 돌아 오시는 그이의 야전복은 비에 젖어 있었다.

3

금수산의사당 집무실에 들어 서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래도록 말씀을 나누시었다. 때로는 지구의를 사이에 두고 때론 새로 건설할 거리형성사판을 놓고 때로는 당활동문헌들을 펼치며 거론을 거듭하시었다.

이윽하여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실의 조명등을 손수 켜시고 나서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 어버이수령님께 드렸다.

《수령님께서 찬동하시면 저의 생각은 성태관동무가 나이가 많지만 다시 자기 직무에서 일하도록 하며 제가 곁에서 도와 주자고 합니다. 그리

고 새 당비서로 정천수동무를 임명하였으면 합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성태관과 관련한 부피 큰 대책안을 한장한장 번져 가시었다.

《제기한 안들이 참 좋습니다. 조직비서동무의 의견은 100%, 아니 1,000%도 좋으니 다 그대로 합시다. 아마 일생일대에 내 머리가 일찍 회여진데는 성동무 일로 해서도 그리된것 같았는데 오늘 조직비서동무가 나를 한 10년은 젊어지게 해준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나라 혁명과 계급관계에서처럼 복잡다단하고 첨예한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나니 지난 시기 사람들의 토대와 환경, 경력, 정치생활에서 참으로 곡절이 많았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들이 더러 남아 있었습니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바로 조선로동당이 다 책임지고 옹바로 풀어 주었습니다...》

그럼 조직비서동무가 마침 성태관부부와 정천수동무를 불렀다니 어서 가 만나봅시다.》

불빛이 쏟아 저 내리는 휘넓은 응접실에는 과연 칠순을 넘기였으나 아직도 다부진 체구 그대로를 찾아 볼수 있는 성태관과 머리가 새하얀 귀옥이가 와 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들부부의 인사를 받으시고 나서 손을 뜨겁게 잡아 주시었다.

《이렇게 내외간을 다같이 만나고 보니 더 기뻐! 보아하니 성동무 아직 건강이 크게 일 없는것 같은데 위원장사업을 왜 벌써 그만 두었나?

우리에게 편지도 하지 않고 말이요. 그게 알고 싶어 더 불렀소. 허구많은 날에 그래 편지 한장 쓸 시간도 정말 없었소?...》

그이께서는 의자에 앉으시며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저르기 격해 지려는 마음을 누잠히며 다시 물으셨다.

《어서들 앉아서 말 좀 해보오. 왜 중도에서 당원이 자기 직책을 내놓았소?》

《수령님!... 이 성태관이 수령님과 장군님앞에 두번다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다른 원인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천근무게로 떨어 졌다.

《그러면 뭐요? 지난 날의 일때문에 그런건 아니구? 64년도에 입당할 때 사무원으로 성분규정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었소? 인간 성태관이 로동당을 잘 만나 다시 태어나서 인생살이를 한다고 하잖았잖나.

솔직히 말 좀 해보오. 무슨 후회라도 있는건 아닌가?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래 대체 뭐요? 아직 무엇이 부족하고 뭇이 더 요구되어 그러는가? 말 좀 해보란말이요...》

진정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손때를 묻혀 오며 키워 온 한 인간이 자신의 품에서 끝내 떨어 저

간간것 같은 좌절감에서 오는 피로움으로 하여 그의 가슴은 몹시도 저리고 아프시었다.

《수령님! 절대로 그런건 아닙니다. 제 엇프리질이었습니니다. 인생이 하도 편해지고 호강해 지니 변태가 온것 같습니다...》

지난날 개인업이나 해오면서 아는것도 없는데 다 이젠 나살도 건사하고 보니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기업소일도 그전처럼 제바로 해나가지 못해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말들도 있는것 같아서... 이러루한 웅졸한 생각에 기울어 진데 있었습니니다.

수령님! 이것이 답니다. 제 하늘은 속여도 어떻게 수령님앞에 감히 거짓스런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니까...》

성태관은 쏟아 저 내리는 눈물을 훌쩍 삼키었다.

《그렇다?! 그게 성동무 당성의 전부였겠소? 알고 보니 별로 큰일도 없는걸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있다고 왜서 알리지도 않았나?

난 그게 섭섭해서 더 그래...

성태관이 아무렴 당을 떠나서 가면 어디로 가겠소. 그전날처럼 금을 지고 해외로 가겠다고 할수야 없을테지. 허허...

됐어! 됐어! 이젠 마음이 놓여.

그러면 그렇겠지, 내 성태관이를 모를라구!...》

그이께서는 평생의 천만시름을 일시에 다 가서 버린듯 하시었다.

《성동무, 인생은 마지막을 잘 살아야 해. 나이도 나와 같은데 눈이 잘 안보이면 나처럼 안경을 세개씩 끼면서 일하면 되잖아. 그게 다 어떻게 하나 죽어도 일을 더 하다 죽으려는 각오가 부족한데서 오는거지.

우리 나라의 유명한 요술배우 김택성이 국제요술축전에 나가 매번 특등상을 받군 하는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일군들이 사업에서 요술을 부리고 뼈심을 들여 일하지 않는다면 그게 큰 야단이야.

피 흘려 나라를 찾고 정권을 세우고 사회주의를 건설한 이후 오늘의 우리 혁명은 일군들에게서 바로 이것을 경계하거든...》

쭌전의 강개하였던 어조와는 달리 그의 음성 은 어딘가 갈려 있었다.

그이께서는 얼마전에 수도의 중심관내를 돌아보다 어느 선거구의 대의원 립후보자 공시관에 붙어 있는 성태관의 큼직한 사진을 보았는데 해방직후 온 서울바닥에 미 《군정》의 체포령과 함께 수배자로 사진까지 나붙었던 그의 생각이 나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도 남 부럽지 않을거요. 의대를 나온 막내딸은 안경봉사일군으로 일을 잘해 **김정일** 조직비서동무로부터 여러차례

감사를 받았더니 얼마나 훌륭하오.》

《아버이수령님! 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그는 떨리는 두손으로 얼굴을 덮으며 응접실주단우에 허물어 지듯 꿇어 앉았다. 격할 때면 더 시꺼멓게 보이는 눈물방이 김이 움쭉했다.

김정일 동지께서 그에게 다가서시며 친히 손을 잡아일으켜 주시었다.

《수령님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관리위원장 동무를 공산주의사회에까지 꼭 데리고 가시려는 수령님의 믿음은 그렇게도 꼭진합니다!》

《장군님!...》

성태관은 더는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 하며 그이의 넓은 품에 와락 안기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눈물겨운 그 모습을 력사의 화폭을 한순간 응시하는듯 바라보시다 자신께서는 모든것을 다 용서할수 있으니 당의 그품에서만은 떨어 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는것이였다.

그리고나시여 성태관에게 다홍빛웅단을 씌운 락을 하나 열어 주시며 언제부터 주자고 한 금반지였는데 부인에게 어서 끼워 주라고 이리시였다.

너무 뜻밖이어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그가 서 있는데 **김정일** 동지께서 《수령님께서 성동무가 젊어서부터 많은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까지 부인에게 금반지 하나 기념하지 않은 사실을 아시고 마침 얼마전에 외국의 한 국가수반이 수령님께 선물로 보내온 보석금반지를 위원장부인에게 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젊어서 두번을 헤어졌고 세번째엔 수령님께서 결합시켜 주어 지금토록 원앙새부부가 되어 살아 오고 있는데 부디 여생을 행복히 보내기를 바랍니다.

어서 끼워 드리십시오!》 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누리의 모든 빛을 다 모아 령롱히 발산하는듯한 보석금반지를 백발안해의 주름진 손에 끼워 주는 성태관의 손등에는 뜨거운것이 하염없이 떨어 졌다.

못내 감격해 하는 그전날 중의 아들과 목사의 딸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 《혁명가들이 금은 이렇게 써야 하는거요. 황금이 인민의것으로 된것이 우리 세상이지...》 하고 환히 웃으시었다.

《난 지금도 성동무가 나에게 두개의 금피를 가지고 찾아 왔을 때의 일이 선합니다. 그때로 말하면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었지. 정말 바람에 재가루밖에 펄펄 날리는것이 없었는데 저 성동무가 내앞에 나타나 <수령님, 이 불초한 인간이 갖고 있던것인데 받아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소원이 없으면 마음이 시든다고 일러 왔는데 제 지금토록 속마음만은 시들지 않고 살아오느라 한것은 이 금을 언제든 수령님께 정히 올리고 싶은 제탄의 소망이 하나 있는데 있었습니

다. 나라를 찾아 주시고 전쟁을 이겨 주신 수령님께 백성으로서 다른것은 드릴것이 더 없고 해서 감히 올리고저 하는 이 금이니 꼭 받아 써주십시오.》 하며 금피함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지만 **김일성**이 잡자기 금을 해선 뭘하겠는가, 난 황금으로 자기를 <치부>하느니보다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나를 <치부>하고 싶다, 그러니 이 금피를 인민을 위해 쓰자, 복구건설을 빨리 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겠는데 거기다 의의 있게 쓰자고 하며 즉석에서 금을 중앙은행에 보내주고 저 성동무에게 내각수상명으로 표창을 해주었는데 가만 있자 성동무! 그 표창장이 아직 있나? ...오, 있단 말이지...

그 금인즉 성태관동무가 서울에 지고 나갔던 <적산금피>였지.

참, 그때 같이 갔던 사촌동생은 지금 뭘하나?》

《무역일군으로 자라나 지금 해외에 나가 일하고 있습니다. 수령님!》

그이께서는 대견하신듯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사뭇 성태관은 이시각 아버지수령님은 자신을 위해선 금은 한조박 쓰신적이 없이 한평생 인민을 황금우에 올려 세워 주신 만고의 위인이시라는 생각으로 벅차올랐다.

《내 나라의 수령들께서는 우리 시대에 사회주의 금의 정치경제학, 주체의 인간정치학을 내놓으시고 한몸에 체현한 인민의 령도자들이시다!》 하고 성태관은 온 세상에 대고 웨치고 싶은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잠시 서기실에 가셨던 **김정일** 동지께서 후리후리한 키에 한결차보이는 반백의 나이지숙한 한일군을 데리고 들어 서시며 수령님께 정천수동무를 데려 왔다고 하시었다.

《오, 정천수!... 기다렸소! 이제는 머리가 다 세구, 그렇게 의수한 팔을 가지고도 안전부문에 서 오래동안 당비서사업을 잘한다지.》

온 세상을 안으시는듯 그이께서는 두팔을 벌리시며 정천수를 힘껏 껴안아 주셨다.

문득 그이께서는 성태관을 바라보셨다. 그러시며 생명의 은인이 왔는데 그리도 몰라보다니, 어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짐짓 나무라시면서 웃으시었다.

성태관은 의아쩍어 아무리 뜯어 보아야 길거리나 어느 행사장 같은데서 만난것 같기는 했지만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씀엔 얼른 리해가 되지 않아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은인》에게 인사차림을 했다.

《허허… 성동무가 확실히 젊은 사람들의 뒤소리도 듣게 되긴 된것 같아. 많은것을 잊어 버렸거든. 그래 정말 이 정천수의 모색이 생각나지 않나? 그럼 내가 말해 줘야 하겠구만.》

그이께서는 성태관과 정천수를 자신의 자리결에 나란히 앉혀 주시었다.

《내가 여적 성태관관리위원장에게 40년이 넘도록 말해 주지 않은 사연이 하나 있소. 성동무가 해방년에 금을 가지고 서울에 나간다는것을 우리도 알았고 반동놈들도 알았지. 그러다나니 미<군정청>의 끄나불들까지 알아 차리게 되었소. 그때에 나는 성동무가 금피들을 가지고 그 어디에 가서 무슨 기업을 해도 좋다, 이에 대해선 절대로 간섭하지 말자, 하지만 그 금때문에 새 조선의 한 기업가의 운명이 잘못되거나 불행을 당하게 할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 가까이에서 일하던 젊고 날파람있는 철도기관구출신의 한 일군에게 성태관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특명>을 주었더랬소.

그 일군이 성태관을 해치고 금피를 찾으려는 놈들이 나타날 때마다 림진강기슭에서도, 친구의 집주위에서도, 제물포에서도 지켜 주었고 배편으로 해주까지 무사히 보내주었던말이요…

정천수동무가 제물포에서 총상 당한 한쪽팔을 잃고 나에게 찾아 와 보고할 때 난 너무도 가슴이 쓰려 울었소.

그 애젊었던 청년이 여기 이 정동무였습니다!》

성태관은 삼라만상이 온통 꿈속에 든듯 했다. 꿈이 아니고서 이런 현실이 있을 법이나 한가? 비몽사몽간에 온 심혼을 가다듬어 보려 해도 그리되지 않았다. 눈앞이 짙어 흐려 졌다. 잊지 말자고 하면서도 어느 세월인가 많은것을 잊었고 결초보은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까마득히 망각하고 살아 왔다.

나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나를 위해서 육신이 파괴되고 나에게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의 첫 개선연설을 안겨 주어 인생전환, 재생의 길을 터워 준 눈에 흠이 들어 가도 잊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아득히 잊다니… 이것은 내가 정천수 한 인간을 잊은것도 잊은것이지만 보다는 운명의 《수호신》을 친히 파견해 주신 은혜론 아버지의 신의와 사랑, 숭고한 은덕을 다 잊고 산 여기에 더 큰 배은망덕이 있는것이 아닌가.

아, 내 그때 벌써 열두번은 죽은 몸이었구나! 내 생에서 오늘이 없을 사람이었어. 그 시절에는 아직 나를 지켜 주고 보호해 줄 공화국정권도 군대도 나라의 헌법도 없지 않았던가?

돈박엔 아무것도 모르던 한 자산가가 아직 나라가 서기전의 그 나날에 벌써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며 보호되어야 할 리유는 과연 무엇이었으랴…

아버이수령님의 음성이 다시 울리었다.

《관리위원장, 동무의 사업을 곁에서 잘 도와주게 하자고 정천수동무를 임명해 주었소.

정천수당비서동무, 성동무의 해방직후 정치생활에 대해 유일하게 보충한 동지로서 그 시절처럼 끝까지 잘 도와 주라구. 크게 믿겠소!》

《수령님의 뜻을 꼭 받들겠습니다!》

정천수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두 일군에게 이제는 어서 상봉도 하고 회포도 나누라며 그들의 등을 떠밀어 주시었다.

성태관은 급기야 정천수를 얼싸안았다.

《정천수비서동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소. 곁에 있으면서도 몇번 만나기까지 한것 같은데 여적 모르쇠를하고 있다니. 정말 너무하오. 너무해…》

《성태관위원장동무!》

《정천수동무!》

수십년전 그날, 인천앞바다에서 작별의 포옹을 하였다면 오늘은 두번째로 상봉의 포옹을 하는 그들이었다.

두 일군은 약속을 한듯 오래전에 동지적인연을 맺어 주시고 오늘엔 꿈 같은 상봉까지 의사당에서 마련하여 준 위대한신 수령들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되려 고맙다시며 《관리위원장, 내 며칠 있다 외국방문을 떠나는데 안경을 하나 잘 만들어 달라구. 그러니 이번까지 세번째로 성동무에게 안경을 부탁하는 셈이지?》하고 오른손의 세손가락을 차례로 접었다 펴보이시었다.

《한번은 아마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한 1958년이라고 생각돼. 내가 하루는 농촌에 나갔다가 한 로인을 만났는데 그가 <수상님! 그 안경을 어디서 샀습니까?> 하면서 토지개혁할 때와는 달라 이젠 안경을 걸지 않고선 신문도 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 말이요. 그래서 평양의 친구에게 하나 부탁해서 낀것인데 우선 꺼보라고 그에게 주었소. 그 안경이 성동무가 만들어 준 첫번째것이였지. 그날 수도에 돌아 온 나는 성동무를 찾아 안경을 한 100만개 만들어 농촌부터 보내주자고 과업을 주었됐소.

또 한번은 제5차당대회를 앞둔 때였는데 아무래도 당대회보고를 하자고 해도 새 안경이 있어야 할것 같아 부탁했던것 같애. 옳지?… 다 생각나. 성동무하고 있는 일들은 어느것 하나도 잊혀지질 않아…》

《수령님!… 안경 한두개가 뭐라고…》

그는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저으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뇌이시었다.

《내가 왜 관리위원장에게 안경을 부탁하곤 하는가. 그건 내 시력이 나빠서 그러는데도 있지만 속심정은 성동무가 만들어 보내주는 안경들을

끼면서 한 오랜 기업가를 늘 잊지 않자는데 있었소. 하루 한시도 안경을 끼지 않는적이 없으니 안경을 낄 때마다 관리위원장을 생각하게 되거든....

내 그래 이번에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는 기간에도 애국공신-성태관을 잊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러니 이번에도 잘 만들어 주오!...

이건 내가 국직이나 당직으로서 주는 과업은 아니고 말하자면 인간 **김일성**이 따로 주는 오랜 친구지간의 부탁이야!》

그이께서는 자못 유쾌하신듯 손을 들어 흔드시다 천천히 내리우며 성태관의 손을 꼭 잡아 주시었다.

《내 부탁을 잊지 말라구...》

《수령님!... 고맙습니다, 꼭 그리 하겠습니까...》

비발은 창밖에서도 뿌려 지고 금수산의사당 집무실안에서도 후더운 비발이 되어 흘날렸다.

후기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은물결 금물결 부서져 내리는
내 삶의 정다운 첫 기슭이런가
해빛이 넘치는 저 만경창파로
행복의 뜻을 달고 멀리도 왔구나
아, 내 생의 아름다운 노래여

바다는 설레고 대지는 금나락
사람들 가슴엔 백화가 만발해
이 땅에 살수록 고마운 생각이
끝없이 파도쳐 이 가슴 흔드는
아, 내 생의 아름다운 노래여

성태관의 후반생은 그가 류달리 사랑해 온 이 노래와 더불어 흘렀다.

그것은 그의 생의 메아리였다.

환희에 춤추듯 갈매기 날으네
은혜론 아버지 잘 모신 인생아
나에게 태어난 기슭은 있어도
은인을 따르는 그끝은 없으리
아, 내 생의 아름다운 노래여

주체83(1994)년 1월 11일, 성태관의 사후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생의 언덕우에 그를 높이 세워 주시었다.

《고 성태관동지를 추모하여 **김일성**》

평양교외 애국렬사릉의 렬사비앞에는 아버지 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화환이 세상을 향하여 송엄히 놓여 있었다.

건국초시기부터 당을 따라온 오랜 상공인이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동갑친구》였던 성태관은 82살을 일기로 이렇게 갔다.

그해 7월, 새벽 2시 인간행성에 그리도 많은 비가 억수로 퍼붓는 그날밤 인류의 수령이시며 반만년 민족의 영광이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천만가지 일을 깨끗이 마무리하시고 너무도 뜻밖에 집무실에서 순직하시었다.

집무실 앞책상우에는 그날도 밤이 깊도록 일을 보시며 끼셨던 안경이 숙연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성태관관리위원장이 성의를 다해 만들어 올린 다섯번째의 안경이라고 하였다....

초가을의 비발이 추연히 잠기는 주체87(1998)년 9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애국렬사릉을 뚫소 찾으시여 한 기업가의 렬사비앞에 저물도록 서계시었다.

그이께서는 애국렬사의 묘비우에 우산을 받쳐 주시었다.

비는 그칠줄 모르고 내렸다.

한 인간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던가!...

-대홍단에서-

가사

장군님 안겨 주신 총

서성현

병사들 보고 싶어 오신 그날에
장군님 믿음 담아 안겨 주신 총
영광의 존함이 빛발쳐 가는
그 총은 영원한 혁명의 전우

성스런 사명을 되새겨 주며
장군님 사랑 담아 안겨 주신 총
금별의 위훈을 떨치여 나갈

그 총은 영원한 승리의 기치

결사의 맹세를 총대에 새겨
백승의 위력을 떨쳐 가리라
무장으로 장군님 옹위해 나갈
천만대오 그 총을 높이 들었다

아 위대한 장군님 안겨 주신 총
천만대오 그 총을 높이 들었다

린저의 감탄

주체71(1982)년 7월 2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루이저 린저를 만나시여 담화를 나누시었다.

담화장에는 청량음료들과 함께 리즈(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열대과일)를 비롯한 다과들이 놓여있었다.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린저에게 리즈를 좋아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린저가 좋아 한다고 말씀 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옛 중국의 당나라 황제 현종의 후처였던 양귀비도 리즈를 무척 좋아 하였다고, 그가 리즈를 지나치게 좋아 하였던탓에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였던 리태백이 양귀비를 조롱하고 골탕까지 먹었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린저는 구미가 부쩍 동하여 그 이야기를 들려 주시면 좋겠다고 청을 드렸다.

《그럼 한번 들어 보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린저의 구미를 더욱 돋구어 놓으시었다.

《지금으로부터 한 천여년전 중국에 당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양귀비라는 아주 예쁜 녀자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야기를 시작하시었다.

양귀비의 본명은 양태진이었다. 그는 중국 섬서성의 몰락한 귀족의 딸로서 뛰어난 미모와 예술적재능으로 하여 현종의 아들 수왕의 마음에 들어 그의 안해로 되었다.

그런데 현종은 자기 처가 죽은후 며느리의 미모에 탐이 나 양태진에게 귀비라는 지위를 주어 애첩으로 삼았다.

양귀비는 리즈를 무척 좋아 하였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광동성에서부터 베이징까지 리즈를 날라다 먹었다.

특별한 운수수단이 없었던

그때에는 리즈를 하늘소로 실어 날랐다. 단백질이 많은 리즈를 광동성에서부터 베이징까지 하늘소로 실어 가느라면 거의 다 썩곤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리즈를 실어 날랐다. 양귀비의 눈길 한번에 수십, 수백의 못생명들이 버러지처럼 목을 잘리우던 세상이었던것이다.

양귀비는 인민들에게 이처럼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다.

현종 역시 양귀비의 미모와 애교에 폭 빠져 국사는 돌보지 않고 방탕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리태백은 양귀비를 천하 둘도 없는 요괴라고 하면서 몹시 미워하였다.

어느날 현종이 리태백을 급히 불러 들였다. 그리고는 이웃 나라에서 글월을 보내어 왔는데 하루이틀내로 회답서신을 쓰라는 어명을 내리었다.

리태백은 늘 술에 폭 취하여 살았다. 하지만 문장을 만드는 데서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

어명을 받은 리태백은 이 기회에 현종과 양귀비를 한번 골탕 먹이리라 마음 먹었다.

리태백은 현종에게 자기가 글을 쓸 때에는 한사람은 먹을 갈아 주고 한사람은 글을 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수염을 잡고 있어야 하며 또 한사람은 자기의 다리를 받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글의 품위가 오락가락한다고, 이웃나라에 보내는 회답서신은 왕의 얼굴이자 나라의 얼굴과 같은것이기때문에 자기가 회답서신을 쓸 때에는 양귀비가 먹을 갈고 그의 녀동생은 수염을 잡고 있어야 하며 그의 남동생은 다리를 받들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부름 내놓았다.

현종은 그만 아연해 졌다. 양귀비와 그의 형제들에게 그처

럼 추한 일을 맡겨야 한다는것도 기가 막힌 노릇이었지만 더우기 그 소문이 항간에 새나는 날에는 뒀간냄새보다도 더 구린내나는 망신을 들쓰게 될 판이었다.

하지만 편지 한장 쓸 재간이 없었던 현종은 울며 겨자먹기로 리태백의 요구를 들어 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리태백이 회답서신을 쓸 때 것처럼 오염방자한 양귀비는 은초대처럼 새하얀 손에 검은 칠갑을 하며 먹을 갈았고 그의 녀동생은 술내에 폭 절은 리태백의 어지러운 수염을 잡고 있었으며 양귀비를 등대고 거들먹거리던 그의 남동생은 하루종일 리태백의 다리살밑에 들어 가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자 린저는 배를 그리 쥐고 웃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즐거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이윽하여 린저가 말씀 올렸다.

《중국의 리태백은 유럽에도 많이 알려 져 있기때문에 저도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것처럼 재미 있는 일화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주석각하께서는 중국력사책들을 원문을 가지고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중국책과 소련책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하시었다.

그러자 린저는 크게 감탄하며 말씀 드렸다.

《저는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석각하처럼 다른 나라의 력사에 것처럼 도통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작가로서 정말 감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사랑이 불 타는 땅

김영길

첫 휴양소

푸른 산중에 날아 와 앉은
백학의 무리인가
굽이굽이 골짜기 내물을 따라
산언덕에 줄지어 솟아 있는
하얀 휴양각들

여기로구나
물로 사흘 배 사흘
먼 삼천리라
이 나라 옛 향토시인의 시가락속에
쉴쉴하고 한적하던 산천
산 넘어 지척에서 들려 오는
압록의 소연한 물소리 찾지 않는 곳

여기에 새겨 저 있구나
조국해방의 기쁨이 온 골안에 차넘치던
그 이듬해 10월
지경끝까지 건국의 길 이어 가시던 수령님
삭주라 온천골
풍치 수려한 합수천기슭에 찍으신 자욱

눈물 어린 산천의 전설 아닌 전설을
그이께선 가슴 아피 들으시였네
오랜 풍운의 그 세월
류량의 길손이 찾아 냈다는
풀숲속에 숨어 솟던 온천
왜놈의 관광유흥지로 빼앗겨
원한으로 끓어 솟았다는 온천

피어린 그 세월의 사연을 아뢰는듯
쉽없이 솟고 솟는 물줄기
물에 서린 그 원한을 가셔 내며
불 타는 사랑을 담아 이르는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산천에 뜨겁게 스며들었네

삭주온천 여기에
민주建국의 성과를 보위하는
군인들의 휴양소를 꾸리자고
나라의 이 첫 휴양소에 이어
전국 각지의 온천들에도
인민의 휴양소를 세우자고...

-좌-아!...
지열로만 달아 올라
뜨거워 진 물줄기가 아니라네
온 온천골을 덥히고
일만산야를 울긋불긋 물 들이며
오늘도 끓어 솟는 아버지의 사랑이여

풍기는 그 사랑의 열기에 솟았는가
하얀 첫 휴양각들
기쁨 안고
행복 안고
백학인듯 훨훨 하늘가로 날아 퍼져
이 땅의 골에 골마다
온 나라의 온천들에 다 내려 앉은듯 하여라

풍경화이야기

한낮도 퍼그나 기울넉-
자갈밭 풀숲길 헤치시며
새로 세울 휴양각들의 자리를 잡아 주시고
휴양소 식당에 들어 서시던 수령님
벽에 걸린 한쪽의 풍경화앞에
걸음을 멈추시었다

눈 덮인 아득한 광야
깊은 눈속을 풍기적이며 걸어 가는 흰 곰
먼 하늘끝엔 희뵈뵈 보여 오는
뽕족뽕족한 성당들...

그이께선 낮 선 풍경을 더듬어 보시며

나직이 이르시었다
이 그림은
우리의 감정정서와는 인연이 멀다고...
이 나라의 영웅전사들이 피 흘려 지켜 싸운
이 땅의 아름다운 산과 들 바다...
그 절경들을 옮겨 놓으면
명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마음도 상쾌하고 즐거워 저
밥맛도 나고
조국애의 감정도 자라날거라고...

아 하얀 파도가

여기 온천골 식탁가에 일어 선다
창창한 그 파도 파도-
방선천리 초소식당마다에도 세월 넘어 격랑치며
귀중한 어머니조국의 숨결
충 잡은 가슴마다 이어 주고

이름난 각들의 불 밝은 방들에도
상패함의 물보라 풍겨 주는
천하절승 폭포수 폭포수
만산에 붉은 단풍도 옮겨 와
가슴마다 조국애를 불 태워 주어라

말도 꺾충 기쁨도 훨훨...

멋이로구나
이슬 구르는 파란 잔디밭
가담가담 풀 뜯는 늘씬한 밤빛 가라말
휴양생들 타고 즐기라 수령님 보내주신
그 잔등에도 올라 한장
견마 잡고도 한장
웃고 떠들며 기념사진 찍네

결에서들 로친을 떠밀어 올리네

말잔등이 하늘만큼이라도 높은듯
숏스러운 새각시인듯
몸돌바를 몰라 비틀하며
그만에야 말갈기를 잡아 채니
말이 놀라 번쩍 앞발 추켜 드네
-오-호-흥!...

한생을 하늘길을 날은
영웅비행사 대좌아바이
언제 말 탄 사진 남겨 봤으랴
위엄 있게 단독으로 찍으려는데
시집 오던 옛 시절
못 탄 가마대신 함께 타보라며

-아이구머니나!-
-왓하하하!...
기겁한 로친 덤비며
혼장 주린한 가슴 덥석 부둥켜 안을 때
수령님 고여 주신 그 사랑에 받들려 오르는가
말도 꺾충 기쁨도 훨훨...
이때라 사진기도 반짝 웃음을 못 참았네

등산길은 어디로...

내 어릴적
즐거운 방학의 나날
긴 포충망 둘러 메고
식물표본도 채집하며
은 분단이 줄 지어 오르던
그 등산길이 여기에 이어 졌는가

해빛쪼이기도 하고
등산도 하라시며
수령님 남 먼저 걸어 보시고 정해 주신
사랑의 등산길

문어바위뒤산
무르익은 산딸기 향기에 묻혀
다래덩쿨 헤치며 오르는
휴양의 등산길
기슭엔 산중의 호수를 끼고 돌며
저 하늘가 어디로 닿았는가

아침에 저녁에 오르고 오를수록
해면을 디디는듯
용수철을 밟는듯
온몸에 장수힘은 자라나
높은 고개도 한 보폭에 오를듯 싶구나
천리라도 한달음에 달을듯 하구나

씨엥씨엥-
날개라도 돌힌듯
단숨에 열백고개라도 넘을듯
타고 넘는 츠렁바위우에
먼저 찍으신 사랑의 자욱 어려 오고
앞장서 퇴위 가신 은정의 길 열려 와라

오 등산길 등산길!-
학창시절 그 등산길은
연약한 몸과 마음
강철로 억세게 다져 주며
희망찬 미래에로 닿았고

휴양생들이 방안에서
주괘 장기놀이만 하지 말고
청신한 산바람을 마시며

휴양의 이 등산길은
жат을세라 멋을세라
심장의 피를 뚫어 주고
생의 박동을 더 세차게 높뛰게 하며
머리 희여 저도 저물지 않을
영원한 삶의 세월속으로 뻗어 있어라

예로부터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헤프게 막 쓰는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헤프게 막 써도 아깝지 않은것이 물이란 말인가.

나는 얼마전에 어느 한 과학잡지에서 흥미 있는 글을 읽은적이 있다.

...인구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21세기에 들어 와서 세계의 약 절반이상 나라들에서 물수요가 배로 늘어 날것이다. 때문에 물사정이 긴장해 지는 것과 관련하여 물을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 공업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단긴순환체계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오수정화방법을 개발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막고 그것을 적극 리용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구상에 물이 생긴지 수십억년이 되었고 첫 인간이 출현하여 수백만년의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그저 끝없이 흘러 가버리는것이 물이라고, 어딜 가나 흔한것이 물이라고 하여 왔지만 현 시기에 와서는 결코 물을 아끼지 않고 막 써서는 안된다는것이 명백해 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물이 많다 하지만 실지 사람이 쓸수 있는 물은 전체 지구물량의 0.08%밖에 안된다고 한다. 더우기 지구생태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 지고 있다. 그것이 때로는 나라들사이의 심각한 정치적문제까지 번져 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디를 가나 맑은 물이 차넘치고 우리 인민들은 깨끗한 물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이것은 결코 그 어떤 자연의 혜택이 아니다.

그것은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로고의 결과이다.

나는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여주신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수원지를 찾은적이 있었다.

내가 수원지를 찾아 간것은 여름날의 상쾌한 아침이었다. 밤새 내린 비로 하여 대기는 더없이 청신하고 상쾌한데 맑게 개인 푸른 하늘에서는 황금빛해살이 쏟아져 내리고 푸른 잎새 우거진 나무 저 나무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며 우짖고 있었다.

나를 반갑게 맞아 준 수원지의 일군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새 세기를 앞두고 현대적으로 건설된 우리 수원지는 늘어 나는 수도시민들의 물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생전에 아버지수령님의 간곡한 교시가 계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대국상이 있었고 편이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게 되면서 말뚝만을 박은 채 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무리 나라사정이 어렵다 해도 인민들을 위해 하신 수령님의 유훈을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대한 수원지공사를 빨리 끝낼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였습니다.》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온갖 애로를 이겨 내며 간고한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수원지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수원지가 완공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곳에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취수뿔프장과 려파지, 침전지들을 돌아 보시고 설계도 잘하고 건설의 질도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시면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만년대계의 창조물이 또 하나 일떠선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나는 일군의 해설을 들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을 따라 수원지를 돌아 보았다.

대형양수기들이 주련이 늘어 서 기세찬 동음을 울리는 취수뿔프장,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려파지와 침전지... 취수뿔프장에서 시퍼런 물기둥이 꿈틀거리며 솟구쳐 올라 오는 광경은 정말 굉장하였다.

매 공정을 돌아 본 나는 수원지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멈추어 섰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여기서 수원지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물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순간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존수단인것만큼 깊은 관심을 돌려 수도시민들에게 질 좋은 물을 풍족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어려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되새기느라니 문득 언젠가 현실체험을 위해 갔던 오수덕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해방전 오수덕사람들은 질 나쁜 물을 먹는데로부터 여러가지 질병에 걸려 신음하다 대부분이 제명을 다 못 살고 세상을 떠나곤 하였다. 이곳은 지대가 높아서 아무리 깊이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고장이였다.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내려 고인 물을 먹었고 겨울에는 눈을 녹여 먹지 않으면 안되였다. 가을때는 그나마도 말라 버려 물지계를 지고 10리나 되는 덕아래 골짜기에 내

려 가 물을 길어 오곤 하였다. 하기에 오수덕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물을 그리워 했고 맑은 물을 먹으며 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던 주체53(1964)년 9월 이곳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좋은 세상에서 나쁜 물을 그대로 먹고 있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수백미터가 넘는 높은 덕으로 맑은 물이 치달아 오르게 해주셨다.

그때 오수덕사람들은 모두가 떨쳐 나와 하늘도 줄수 없었던 맑은 물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수령님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고 한다.

어찌 오수덕뿐이라.

이런 천지개벽은 지나가는 길손에게 밥 한그릇은 주어도 물 한그릇은 못 준다던 긴등벌에서도 농사 지을 물과 먹는 물이 걸려 농장까지 해산한다고 하였던 신계땅에서도 일어 났다.

이렇듯 나라 없던 그 세월 이 땅에 흐르던 피눈물나는 물의 력사는 로동당시대에 와서 생명수 넘쳐 나는 력사로 전변되었거니.

그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결과였다.

오늘은 우리 인민들에게 맑은 물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고 계신다.

지금 이 시각도 수십만㎥의 물이 취수뿔프장으로부터 올라 와 최신려과공정을 거쳐 수도의 살림집들마다에 공급되고 있거늘.

사람들이여, 자기 집 수도에서 쏟아 지는 그 물을 결코 무심히 대하지 마시라.

그 물은 단순한 물이기전에 인민을 위해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어린 생명수임을 잊지 마시라.

따사로운 해빛아래 푸르른 록음속에 흰 건물들이 들어 앉은 수원지는 마치도 한폭의 그림처럼 정겹게 안겨 왔다.

《참 좋구나!》

나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다. 우리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흐뭇한 생각에 가슴이 저절로 벅차올랐던것이다.

하늘을 올려다 보니 푸르른 하늘을 배경으로 비둘기들이 나래를 치며 날아 간다.

찬란한 태양의 빛발이 온 대지를 따사로이 비치고 있었다.

만경대의 갈림길 외 1편

심재훈

길-

만경대의 갈림길

우리 수령님

고향집 먼저 강선으로 가신 길

해방된 이 땅에 주인을 찾아 가신 길

주인과 새 조국건설을 의논하러 가신 길

고향이라는 《정류소》를 지나

인민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간

이 땅에 뻗은 인민행렬차의 궤도를

세월을 넘어 전해 주는 만경대의 갈림길이어

12월의 눈

1만t의 강재를 의논하러 오셨던

못 잊을 시련의 그해

수령님 어깨우에 내려 쌓이던 흰 눈

우리의 가슴속에 쌓이던 흰 눈

조국과 강철

오늘도 그 뜻을 속삭이는 눈

강편이 산악을 이룬다 해도

그우에 1만t을 더 얹어 놓아야 가벼운 마음

그 마음속에 12월의 눈은 녹지 않아라

증산의 나래 펼쳐 주는 눈이어

전기로의 열풍이 뜨겁다 해도

12월의 눈은 결코 녹지 않아라

수령님 오셨던 12월을 안고 사는

용해공의 이 마음속에

회초리

안흥윤

1

(허, 이것 봐라. 치마 두른 아낙네들이 내 뒤통수 한단 말이지. 허허, 그것 참!)

동진군인민위원회 위원장 박정산은 이른 아침부터 기분이 잡쳐 졌다.

그가 집을 나섰을 때는 날이 채 밝지 않은데다 안개까지 자욱했다. 어두운 읍거리를 부지런히 걸던 그는 무춤 걸음발을 늦추었다. 저앞의 네거리 어방에서 너인들이 주고 받는 말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하아, 또 저 모양이군!)

네거리 왼쪽모퉁이의 양복점앞마당에서는 온천물이 솟아 난다. 물온도가 100℃를 넘어서 갖가지 음식감들을 데치고, 삶고, 익힐수가 있다. 너인들은 지금 그 온천물로 음식감들을 손질하고 있을것이다.

거리가 줄어 들자 너인들의 말소리들이 푹푹히 들려 온다.

《우리 인민반장이 이젠 여기에 나오는걸 좀 삼가하라는군요. 군인민위원회 위원장동지가 책망하셨대요.》

박정산은 걸음을 멈추었다. 어둡숙이여서 그렇지 너인들과의 거리는 불과 여라문메터 안팎이었다.

《모를 소리,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라 설마 위원장동지가 우리 사정을 모르실라구.》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어쩔수가 없었다.

여기는 읍거리의 중심부로서 동서남북으로 대통로가 뻗어 나간 네거리에 살림집들과 여기저기서 솟아 나는 온천수를 리용하여 러관, 상점, 식당, 양복점, 목욕탕 등 편의봉사시설들까지 들어앉아 여기 읍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었다.

한데 얼마전부터 너인들은 저 온천물로 음식을 가공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것도 처음에는 날 밝기전이나 날 저문 뒤에 나오던것이 이제는 해 뜰무렵까지도 끊치지 않는다. 자연히 주위가 어지러워 지고 더 딱한것은 읍거리의 미관상 문제였다.

박정산은 우에서 내려 온 손님들과 거리를 돌아 보다가 몇번이나 민망한 처지를 당했었다. 그는 생각끝에 도시경영과장을 불렀다.

《설복을 하든 통제를 하든 해결책을 찾소.》

했더니 과장은 너인들을 직접 대상하기가 야박했던지 인민반장들에게 적당히 일러 둔 모양이었다.

《하긴 이게 무슨 꼴이예요. 네거리북판에서...》

《웁아요.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요. 하면서도

떨감이 바르다 보니... 다시는 안 나오겠어요.》

모두 맞장구들을 치는가 싶더니 화제는 돌변하였다.

《한데 난 어쩐지 군인민위원회 위원장동지가 하는 일은 잘 믿어 지질 않아요. 참엔 큰 일을 칠것 같다가도 나중엔 흐지부지... 안 그래요?》

《아닌게 아니라 나도 이젠 위원장동지의 말은 대포소리같이 들리더군요.》

그러자 저마다 자기식으로 맞장구들을 친다.

(그런즉 내가 《대포위원장》이 됐는가?...)

박정산은 담배를 붙여 물었다. 이제는 나이도 적지 않아 신일곱이요,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된지도 여러해 된다. 그간 옷사람들로부터 추궁도 받았고 회의들에서 비판도 받았다. 사업상 실책도 없지 않아서 귀 먹은 비난이 있을줄도 안다. 하지만 이처럼 아낙네들의 말밥에까지 오를줄이야!...

불현듯 자신이 서글퍼 졌다. 군의 살림살이를 두고 근심걱정속에 발 편 잠을 자본 날이 별로 없는 이 박정산이었다.

요즘만 해도 조수력발전소건설때문에 눈코 뜰 사이가 없다. 이 조수력발전소로 말하면 군안의 중대사인것은 물론이고 도와 중앙에서까지 관심하는 문제이다. 나라의 조수력개발에서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때문이다. 하여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조수력을 가진 시, 군들을 위한 방식상학까지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처럼 식전부터 그 설비제작전투장에 나가보러 가는것이다.

어둡숙에서 한사람이 불쑥 나타났다. 군당책임비서 윤준모였다.

《위원장동무가 아니시우? 한데 예서 뭘 하시우?》

윤준모는 박정산과 동년배다. 너부족한 얼굴에 등실등실한 몸매처럼 부쩍이 좋고 소탈해서 공식석상이 아니면 무람이 없는 그들사이였다.

했으나 박정산은 왜선지 거북했다. 마치 땃땃치 못한것을 하다가 들킨듯 한 기분이였다.

《뭘 좀 생각되는게 있어서 여기를 좀 돌아 보던중입니다.》

《그래요? 나도 그래서 나오던 길인데, 혹시 저가정부인들때문이 아니시우?》

《예, 여기가 좀 복잡해 봐서...》

《하, 신통히 내 생각과 같구만, 그것참!》

박정산의 애매한 대답을 제 나름으로 해석한 윤준모는 너인들쪽을 가리켰다.

《그럼 우리 당사자들부터 만나볼가요?》

박정산은 난처했다. 하지만 물러 설수도 없었다.

윤준모가 먼저 녀인들에게로 다가갔다.

《수고들 합니다.》

온천박우물두리에 빙 둘러 앉았던 일여덟명의 녀인들이 당황하여 일어 섰다. 했으나 인차 반색하며 군당책임비서에게 인사들을 하였다.

뒤이어 박정산이 다가갔다.

《나두 좀 구경을 할가요?》

녀인들은 굳어 졌다. 자기들이 방금 뒤소리를 한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나타난것이다. 녀인들은 다시 급급히 위원장에게 인사를 했다. 눈에 알릴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인사였다.

한 녀인이 자기의 그릇을 집어 들더니 자리를 떴다. 그러지 한사람, 두사람 그릇을 집어 들었다.

《아니, 왜들 이럽니까? 위원장동무가 우정 아주머니들을 찾아 왔는데, 하아, 이런...》

황황히 흩어 지던 녀인들이 주춤하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되돌아 왔다.

먼저 자리를 뜬 녀자는 박정산이 꽃밭이나마 안다. 조수력발전소건설돌격대 용접공의 안해다. 언제 보나 덜렁덜렁하고 세찬 녀자였다.

박정산은 후회막심했다. 자기는 오지 말았어야만 했다. 한편 섭섭하고 노여웠다. 군을 위해서, 바로 저들을 위해서 머리가 희여 가는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인데 반겨 맞지는 못할망정 피하다니!

(내가 이젠 《범》이 됐는가?)

《그래, 오늘아침엔 뭘 해자십니까?》

윤준모가 옆의 젊은 녀인에게 물었다.

녀인은 부끄러운듯 옆에 끼였던 늙소랭이를 앞으로 내보였다. 거기에는 아직 익히지 않은 국수가 담겨 있었다. 방금 나온 모양이었다.

《거기에 저 물만 부으면 국수가 익겠습니까?》

《네.》

《어디 내가 좀 해봅시다.》

윤준모는 제집담 소랭이를 받아 들고 앉았다.

화강석판돌로 돌레를 세우고 바닥에는 하얀 조약돌들을 간 정갈한 박우물에서는 보기에 도 뜨거운 온천물이 설설 끓어 오르고 있었다. 물온도도 높지만 물량도 많아서 밤알만한 조약돌들이 들썩들썩 뛰놀았다. 물실물실 피여 오르는 후더운 김에서는 온천특유의 끈 닭알냄새가 짙게 풍기었다.

책임비서는 손잡이가 긴 파란 수지바가지로 뜨거운 온천물을 듬뿍 떠서 국수소랭이에 부었다. 뻗뻗하던 국수오리들이 대번에 차분히 내려 앉았다. 소랭이가 가득 차도록 물을 더 부었다. 그리고는 제법 녀인들처럼 바가지로 휘휘 국수를 휘저었다. 그 서슬에 물이 출렁 넘치면서 소랭이의 가늉을 잡고 있던 윤준모의 한손을 적시었다.

《엇, 뜨겁다!》

책임비서가 기겁하여 손을 화닥닥 터는 바람에 녀인들은 물론 박정산이까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마침내 윤준모는 바가지로 국수를 건져 보았다. 노랑고 뻗뻗하던 국수오리들이 좀 흰색을 띠면서 찰찰 늘어 진것이 보기에 도 먹음직했다.

윤준모는 서너오리의 국수를 입안에 넣고 우물 우물 씹기 시작했다. 이어 그것을 꿀꺽 넘긴 그는 희한한듯 박정산을 올려다 보았다.

《위원장동무두 맛을 보시우. 기가 막힙니다.》

《허허, 국수맛을 몰라서 먹어 보겠소.》

《그래서가 아니라 이 물에 삶으니 국수가 더 쫄깃쫄깃해 저서 그렇니다.》

그러자 녀인들이 이 물에 삶으면 국수가 오래 있어도 잘 풀어 지지도 않으며 감자는 더 포실포실해 지고 강냉이는 더 구수해 진다고 한마디씩 보태었다.

윤준모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내 그런 말이 들리길래 이 물을 좀 분석해 보라구 했지요. 했더니 이 물에는 약간의 광물질과 또 무슨 성분이 있다던지? ... 하여간 그래서 이 물로 가공하면 음식맛도 좋고 소화도 잘된다는 겁니다. 약수란게 별다른거겠소. 이게 약수지.》

윤준모는 바가지를 놓고 일어 섰다.

《그럼 아주머니네는 뭘 해자십니까?》

책임비서의 물음에 나이가 지숙한 그 녀인은 왕창 같은 대답을 하였다.

《책임비서동지, 정말 안됐습니다.》

《아니, 왜 그렇니까?》

《글쎄 네거리복판에서 이게 무슨 꼴이겠습니까. 땀감을 아낄 생각만 하다 보니 이렇게...》

《원, 별말을 다합니다. 땀감을 아낄수만 있으면 아껴야지요. 식량도 바르는데 땀감까지 바르니 곤란들이 이만저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박정산은 주위를 돌아 보는척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책임비서에게 하는 말이라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하는 말이어서 듣기가 거북했던것이다.

잠시후 책임비서가 돌아 왔다.

《위원장동무, 녀성들을 위해 뭘 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에?》

《이 지구 녀성들이 다 와서 가정식료품을 가공하도록 저기에 집을 지어 주잔 말입니다. 그러면 가공하기도 편리하고 눈비도 맞지 않겠으니 얼마나 좋아 하겠소. 그저 100㎡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럴듯 한 착상이다. 그러면 우선 거리풍경이 손상되지 않을것이다. 100㎡정도라면 고작 농촌 살림집규모에 물팡크 몇개면 될것이다.

《책임비서동무, 내 한फल 먹었수다. 이거야 내가 먼저 생각했어야지 않겠소. 참!》

책임비서와 헤어진 박정산은 다시 기분이 잡혀졌다. 자기를 피하던 녀인들이 생각났것이다.

그중에서도 그 용접공의 안해가 더 패씼했다. 남편은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인데 방대한 특수용접을 단신으로 해제끼 혁신자이다.

(부부오누이라는데 이젠 남편에 비하면 영 개차반이군. 무슨 너자가 그런지 원…)

그건 그렇다치고 언제나 이 위원장에게는 서리를 풍기는것이 행동하다. 무엇때문인가?

(아하, 그 일때문인가?…)

지난해 봄이었다. 용접공은 발전소건설장에서 왼손을 크게 상했다. 우격다짐으로 군병원에 보냈으나 그는 끝내 도중에서 돌아 오고 말았다.

그것을 몰랐던 박정산은 그날 저녁에 그의 집을 찾아 갔다. 상처가 더 심하지 않나 해서였다.

용접공은 물론 안주인도 없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던 오누이가 어리둥절하여 손님을 맞았다. 처녀애는 인민학교 3학년, 사내애는 유치원 높은반이란다.

어머니는 아침에 식량을 얻으러 나갔단다. 군에서는 그달에도 보름분의 식량밖에 공급하지 못했었다.

《그래, 너희들 오늘아침에 밥을 먹었느냐?》

처녀애가 고개를 까딱까딱하였다. 그러자 사내애가 불이 부어서 누나에게 눈을 흘겼다.

《그게 밥이나, 강냉이 삶은거지.》

처녀애가 팔꿈치로 동생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음, 그럼 점심은 먹었느냐?》

처녀애가 또 고개를 까딱까딱, 먼저보다 고개방아가 약하다. 사내애는 아예 고개를 돌려 버렸다.

알만하다. 부엌으로 나갔다. 솔뚜껑은 파스했다.

처녀애가 제법 어머니를 도와 주는 모양이다.

솔뚜껑을 쳐들던 박정산은 흠칫 굳어 졌다. 술안에는 보기에다 씹쓸한 쑈나물이 들어 있는데 그속에는 린색한 주부의 양념인양 노란 강냉이알들이 드문드문 박히었다. 잘 우리지도 못한듯 씹쓸한 쑈냄새가 식어 가는 김에 실려 물씬물씬 올라온다.

두애가 발벌발벌 따라 나왔다.

《이 쑈나물은 네가 해왔구나. 어머니는 아직도 오지 않은게고. 그렇지?》

처녀애는 엷은 미소로 수궁했다.

《그럼 이 강냉이알들은 어디서 난거냐? 너희들은 점심도 못 먹었는데.》

처녀애는 대답대신 발끝으로 바닥에 금을 그었다. 그러자 사내애가 팔소매로 눈물을 북 씻더니 울먹울먹, 떠뜸떠뜸 설음을 쏟아 놓았다.

《그건 엄마가 우리 보구… 점심때 먹으라구 한

건데… 누나가 엄만 아침에두 나물만 먹었다면 서… 저녁에 엄마랑 같이 먹자면서… 우린 아까부터 기다리는데… 엄만 왜 아직두 안…》

아이보다도 박정산이 먼저 목이 꺾 메이었다. 그는 힘들게 솔뚜껑을 놓았다.

《애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내 인차 다시 올게.》

《할아버지, 왜 그러시나요?》

《글쎄 울지 말구 기다려라. 알았지?》

두애가 똑같이 고개방아를 힘 있게 찔었다.

애들에게 무엇이든 먹여야 했다. 길에 나선 박정산은 자기를 찾아 헤매던 조수력발전소건설돌격대 대장과 마주쳤다. 비상사고가 터진것이다.

《뭘-요? 빨리 나가가요.》

허겁지겁 차에 올라 발전소로 나갔다. 사태를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 왔을 때는 밤 11시였다.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에 몰리어 스르르 잠겨 지던 그의 두눈이 번쩍 떠졌다.

(아뿔싸, 애들과 한 약속을 잊었구나!)

그 어떤 큰 기대속에 이제나저제나 《할아버지》를 안타까이 기다렸을 애들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아마 자그마한 간들이 다 말랐을게다.

(이제라도 가본다?…)

허나 이미 따뜻한 잠자리에 안온하게 노그라진 몸은 방도를 달리 찾도록 권고했다. 이제는 그 애들의 어머니가 왔을것이고 또 이제 가나 후에 가나 늦기는 매일반이었다.

(후에 한번 찾아 가봐야지.)

했으나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그냥 지나치는 사이에 그 일은 점차 삭막해 지고 말았다…

그날저녁 아이들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난 어머니는 분개했을것이다. 어떤 실 없는 사람이 우리 애들을 조롱했다…

애들의 《초상묘사》를 통해 그 《실 없는 사람》을 군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일치시켰을것이다. 그래서 이 위원장을 보기만 하면 그렇게 고개가 외로 비틀어 질것이다. 틀림이 없다.

(역시 너자란 별수가 없군. 그만한 일에 해를 넘기면서 서리를 풍기다니, 참!)

2

동진군의 한끝에는 피이한 《호수》가 있다. 동서로 가없이 펼쳐 진 거대한 《호수》인데 변화무쌍하기가 이룰데 없다. 금시 파도가 철썹, 처절썹 기습을 치는가 하면 수면이 슬금슬금 낮아 지다가 나중에는 랑가녁으로 바닥까지 드러난다. 이것은 룽지로 깊이 뚫고 들어 온 바다이다.

아직은 태고의 정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단조로운 파도소리만이 교요속을 누비던 이 기습이 돌연 법썹 들끓기 시작하였다. 조수력발전소가 여기에 건설되는것이였다. 무용수의 허리마냥 잘룩한 《호수》의 중간에는 제방이 건너 가고 그끝에는 세개의 경간으로 된 수문이 세워 졌으며 그

우로는 넓다란 콩크리트다리가 놓였다.

물살은 세고 사방이 물으로 둘러 막혔으니 큰 파도가 없다. 게다가 수십까지 앞맞춤해서 조수력발전소의 위치로는 가히 명당이라 할만 하였다.

자리는 명당이건만 전기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화창한 봄날에 첫 시운전의 막을 올린 때로부터 어느덧 석달, 그간 여기서는 3차례의 시운전과 역시 3차례의 실패를 기록했다.

오늘은 네번째 시운전날이다. 이번에는 성공이 확실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군내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의 일꾼들은 물론 멀리 읍지구의 너멍원들까지 《축하단》을 무어 찾아 왔다.

이곳에 처음 온 사람들은 지금 돌격대원들이 다리우에서 최종점검중인 웅장한 강철구조물, 5개의 프로펠라식타빈들이 조립된 발전기본체들을 보면서 감탄을 연발했다.

《히-야! 조수력, 조수력하더니 요란하구만!》

《말할게 있나. 1계단만두 2천 Kw 라는데.》

박정산은 윤준모책임비서와 함께 다리우의 돌격대원들속에 있었다. 그로 말하면 기대도 크지만 불안도 없지 않은 이번의 시운전이였다. 이미 진행한 3차례의 시운전결과와는 그로 하여금 앞으로 어느 구름에서 비가 떨어 질지 모른다는 위구를 크게 해주었다.

무릇 모든 발전소들이 다 그렇지만 별로 까다로운것이 조수력발전소이다. 락차가 그제 없고 밀썰물의 관계로 조수의 흐름방향이 하루에도 네번씩이나 반대로 달라 지며 조금과 사리에 따라 매일 물살의 세기가 변한다. 게다가 타빈들에 걸릴기게 달라 붙는 동식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등 그 난점들은 다 헤아릴수가 없다.

하나 조수력발전소는 그런 결점들을 가리우고도 남을만한 매력이 있다. 우선 번덕쟁이 강하천 발전소처럼 갈수기를 모르며, 대식가인 화력발전소처럼 막대한 원유나 석탄을 모른다. 거기에도 매우 문화적인 에네르기이며 지구가 존재하는 한 조금도 고갈을 모르는 영원한 동력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자랑도 첩부해야 한다.

바로 동진군이 지금 자기의 키에 비해서는 어별이 크게 조수력을 휘여 잡으려고 겁어 든것이다. 이 시운전이 성공하고 2, 3계단건설계획까지 실현되면 군은 전기를 뒤집어 쓰기도 남아서 바란다면 《아이들의 주머니에까지 넣어 줄수》 있다. 한편 이 시운전이 성공하면 곧 방식상학이 진행될것이다. 말하자면 이 발전소는 나라의 조수력개발에서 하나의 돌파구로 되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박정산의 사업실적들중에서 가장 빛나는것이 아니겠는가!...

50대의 건장한 사나이가 박정산에게 다가왔다. 도시경영사업소 지배인이였다.

《위원장동지, 이젠 식료가공집이 기본적으로 완공됐습니다.》

《그렇소? 수고했소!》

박정산은 이 지배인에게 가정부인들을 위한 식료가공집건설과업을 주면서 그저 힘자라는것 하라고 했었다. 보장사업을 원만히 해줄수가 없었던것이다. 또 발전소건설에 하도 신경을 쓰다보니 그 건설장에는 몇번 나가보지도 못했었다.

《그런데 한가지만은 위원장동지가 좀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요?》

《빨래칸의 빨래돌이 걸렸습니다. 그게 화강석판돌이 돼와서 자체로는...》

《음, 그렇단 말이지.》

원래 식료가공집의 발단은 많은 녀성들이 가정 식료품을 편리하게 가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책임비서가 이왕이면 녀인들이 더운 물로 빨래까지 하도록 해주자고 하여 한쪽에는 식료가공칸을, 한쪽에는 빨래칸을 꾸리게 되었다. 그 빨래칸에는 긴 물탱크를 가운데 놓고 열명의 녀인들이 동시에 빨래를 하도록 콩크리트바닥에 빨래돌을 경사지게 붙여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규모 있고 잘 연마한 화강석판돌로 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박정산은 생각에 잠기였다. 너비 두뿔, 길이가 세뿔정도에 불과한 화강석판돌 10개가 큰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에는 화강석가공설비는 고사하고 화강석자체가 없다. 그것을 풀자면 도에까지 가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들을 찾아 다니며 구구히 토론하고, 주문하고, 수송기재를 띄우고, ...

《지배인동무, 그 빨래돌이란게 꼭 화강석판돌이라야만 되겠소?》

《...》 지배인은 난처한듯 이마에 주름을 지었다.

《콩크리트판이던가, 정 돌판이 좋다면 넘적돌을 주여다 박아 줄수도 있잖소.》

《그렇긴 한데 설계가 그렇게 돼와서...》

《여보, 그게 무슨 국가적건축물이라구 엄격히 설계대로 하겠소. 쟁대신 닭도 쓰는게지. 사람이 좀 융통성도 있어야지 이건...》

《허어, 지배인동무 왜 우거지상이 됐소?》

윤준모가 웃으면서 그들에게 다가왔다. 사유를 알고 난 그는 크게 웃었다.

《허허허, 지배인동무 괜히 진땀을 빼누만. 그 설계는 내가 의견을 주었던건데... 지배인동무, 그 문제는 시운전이 끝난후에 결론을 받소.》

지배인은 물러 갔다.

《위원장동무, 이왕 해주는김에 잘해주지 않겠소? 정 힘든것도 아닌데.》

박정산이 난처해서 속으로 대답을 굴리는데 돌격대장이 시운전준비를 끝냈다고 보고하였다. 박정산은 숨 돌릴 기회를 얻었다.

《좌우간 그건 시운전이나 하구 봅시다.》

군중들의 떠들썩한 소음을 누르면서 긴 호각소리가 울리었다. 돌격대장이 저쪽의 기중기차를 부르는 소리였다. 드디어 시운전의 서막은 올랐다.

날씨도 좋고 물때도 좋다. 밀물이 한창 세어진 시간이라 만조에 가까운 《호수》 기슭의 수면에는 들쭉날쭉한 런봉들이 그림처럼 비끼고 복판에는 형형색색의 섬들로 다문다문 수를 놓아서 사뭇 절경을 이루었다. 선들바람에 밀려 오는 물이랑들은 어리광 부리듯 제방으로 기여 오르고 한무리의 갈매기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날아예면서 제간놈들이 무엇을 안다는 수작인지 《아오, 아오...》 하고 고아 댄다.

육중한 기중기차가 뚱적적거리며 굴러 오더니 다리우에 올라 섰다. 다리우에 마주 선 두 거물, 발전기본체들과 기중기차는 도전경기의 링그안에 마주 선 프로권투선수들을 런상시키었다. 30여 m의 긴 팔밖에는 보잘것이 없는 기중기차에 비해 상대방은 집채 같은 체구에 중량은 20여 t이나 되는 《무차별급경기》였다. 발전소건설자들과 지원자들, 군내 각지에서 달려 온 참관자들로 발전소앞마당과 제방에까지 하얗게 뒤덮인 군중들의 호기심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드디어 《도전자》가 공격을 개시하였다. 기중기차는 웅글은 소리와 함께 몸체를 들썩거리며 용을 켜다. 그 세찬 요동에 다리가 떨고 경간기둥들까지 떨어져 무수한 파문들이 바다에까지 번져 나갔다.

승부는 싱겁게 결정되고 말았다.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른 거대한 강철구조물은 허공에서 반원을 그린후 다리아래의 자기 위치, 첫번째 경간으로 고분고분 내려 가면서 거의 다 물속에 잠겨 버리고 1m 정도의 옷부분만이 물밖에 남았다. 곧 그우에 5대의 발전기들이 조립되었다.

드디어 시운전의 마지막공정인 수문이 올라 가면서 세찬 조수가 열려 진 경간으로 돌진하듯 달려 들었다. 그러자 마술사의 조화런듯 경간앞의 바다물은 움푹 꺼져 내리고 그앞에는 해일의 파도와도 같은 물마루가 우뚝 일어 서면서 폭포수가 내려 쏘힐 때의 물보라가 훑날렸다. 물속의 타빈들이 것처럼 큰 조화를 부린것이었다.

모두 그 장쾌한 광경에 넋을 잃었다.

《발전기들이 돌아 간다!》

《와!-》 환성이 터졌다. 혼잡이 일어 났다. 사람들은 저마다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썼다.

...어디 보자, 어디! 우리 발전기들이 돌아 가는 걸 어디 보자!...

사람들은 그냥 들끓었다.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성급한 축들은 《만세》까지 불렀다. 온 기슭은 환희의 파도로 뒤설레었다...

박정산은 책임비서와 다리입구에 서 있었다. 발전기들의 동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도 가슴

벽찬 환희에 휩싸였다. 허나 그의 환희는 군중들과는 류다른, 희망과 긴장이 뒤섞인것이였다. 그는 경험으로 발전기들이 돌아 간다고 그것이 결코 성공을 의미하는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던것이였다.

윤준모가 그의 팔을 건드렸다.

《위원장동무, 배전실로 가볼가요?》

박정산은 초조했다. 성공여부는 배전실에서 결정되는것이다.

배전실에서 운전조작을 해보고 있던 군배전소 소장이 두 책임일군을 묵묵히 맞이하였다. 그의 낯빛은 컴컴하였다. 그의 침울한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박정산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여러 시간의 신고끝에 실패원인이 밝혀 졌다. 먼저보다 타빈들의 효율은 훨씬 높아 졌지만 아직 발전기들의 기준주파수를 보장할만한 회전속도에 이르지 못한것이였다. 그래도 다섯기중에서 자기 주파수가 나오는 발전기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가운데 발전기였다. 한경간을 통과하는 물살의 세기도 량가녁과 복판이 달라서 물물이장치가 없는 지금의 개방식경우 같은 타빈들도 위치에 따라 회전속도가 다른것이였다.

그래도 행여나 하여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던 실무일군들도 그만 한숨을 토하면서 물러 났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오후 3시, 밀물과 교대한 썰물도 거의 끝나갈무렵이였다.

환희의 열기로 화끈 달아 올랐던 기슭은 줄지에 찬비를 맞은 모닥불마냥 식어 버렸다. 마치도 밀물이 한껏 부풀어 올리었던 못사람들의 환희를 썰물이 말끔히 걷어 싣고 먼 바다에 날라다 팽개쳐 버린듯 싶었다. 것처럼 아름답던 《호수》의 절경마저 사라졌다. 량가녁으로 드러난 바닥에 험상스런 바위들이 널려 앓고 잡게들이 오구 구 기여 다니는 개펄은 황량하기 그지 없었다.

발전기들이 해체되고 물러 갔던 기중기차가 다시 다리우에 올라 섰다. 실패한 설비는 물속에서 꺼내놓아야 했던것이다.

권양이 시작되었다. 수백명의 침통한 눈길속에 웅장한 발전기본체들이 물속에서 서서히 솟아 나왔다. 두 경간기둥의 안내함을 무난히 벗어 났다. 지지점이 없어 진 그놈은 빙그르 돌면서 한쪽 끄트머리를 다리밑으로 슬쩍 들이 밀었다. 하지만 번번한 다리밑이라 미끄러져 나오지 못할 리유란 없었다. 권양은 계속되고 그놈은 버티었다. 기중기팔은 휘여 들고 차의 앞머리는 위태롭게 쳐들렸다. 비로소 무리함을 느낀 운전수는 권양을 멈추려고 하였다. 허나 때는 늦었다. 발전기본체들은 튕겨 나듯 다리에서 떨어 졌다. 순간 휘였던 기중기팔은 거대한 강철회초리마냥 무서운 탄성으로 그 어마어마한 강철구조물을 뿌려 던지였다. 발전기본체들은 20여 m나 날아 가서 바다물에 떨어 졌다. 팡!-무시무시한 굉음과 함

게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해일과도 같은 원형의 파도가 사방으로 달려 나갔다.

기중기차의 처지 역시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발전기본체들이 날아 가는 순간 앞머리를 허공 쳐들었던 기중기차는 궁둥이로 바닥을 짚으면서 벌떡 일어 선 것이었다. 그 비대한 몸뚱이에 비하면 몸시도 여윈 좁은 궁둥이로 난딱 곧추 일어나서는 광경은 그야말로 희귀한 《교예》였다. 허나 그것은 위험천만한 《교예》였다. 좁은 궁둥이로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선 그 비둔한 몸뚱이는 한쪽에 짚오래기만 더 걸쳐 놓아도 당장 그쪽으로 기울어 질것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경악의 한순간이 지나갔다. 모두 간담이 서늘해져서 발전기본체들이 떨어 진 자리에서 일어 번지는 파문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아연해 졌다. 비록 실패의 쓴맛을 안겨 주긴 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귀중한 창조물이었다. 그것은 3년여에 걸친 일꾼들의 고심참담한 노력과 건설자들이 벌린 수많은 결사전들과 군대 인민들의 성원과 기대가 응축된 것으로서 이 발전소의 상징이라고도 할만한 것이었다. 것처럼 크고 귀중한 것이 흔적조차 없어 진 것이었다. 시운전의 실패우에 또다시 가해 진 엄청난 사고의 충격과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불러 일으켰다.

누군가 울음에 젖은 탄식을 내뿜었다.

《야, 그나저나 이젠 다... 다 망했구나!》

그 비통한 부르짖음은 그렇지 않아도 한껏 저상되고 경악하고 아연해 지고 압담해 지고 막막해 저서 터질듯 쓰라리던 여러 가슴들을 팡 울려놓았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털썩털썩 주저앉았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흐느낌소리들이 새어나왔다. 건설자들도 울고 참관자들도 눈물을 지었다.

박정산은 망연히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두눈이 쓰러 났다.

(모든것이 과연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

그에게 누군가 조용히 귀뜸하였다.

《위원장동무,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박정산은 비로소 자기도 울고 있음을 알았다. 눈물을 씻고 그 목소리의 임자를 돌아 보았다.

윤준모는 강잉히 웃고 있었다. 허나 그의 두눈 귀에도 눈물이 번쩍이고 있었다. 군당책임비서 역시 인간이었던 것이다.

3

한여름의 긴긴 해도 어느덧 저물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정적인양 기슭은 조용하였다.

다만 다리우의 기중기차만이 사방으로 벌이줄에 매인채 장한듯 《곧추서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박정산은 윤준모책임비서와 함께 어스름에 잠

긴 제방우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방금전까지 이 자리에서는 관제부분일꾼들의 비상협의회가 있었다. 협의회는 장시간의 갑론을박끝에 지금의 개방식을 흡출관식으로 전환하는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즉 경간안에 물물이장치인 다섯개의 흡출관구조물을 만들고 그속에 타빈들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물살의 압력도 훨씬 높아 질뿐만아니라 타빈들의 회전수도 균일해 지는 것이다.

그러자면 경간안에 물물이장치인 흡출관구조물 공사도 문제거니와 경간들앞에 가물막이를 하는 것도 난사였다. 수심이 10m 도 넘는 바다에 막대한 토량을 쳐넣어서 수십메터의 가물막이제방을 쌓는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적어도 또 한해동안은 간고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나마 틀림이 없이 승산을 보겠는지?...정말 갈수록 심산이요 범의 꼬리를 잡은 격이다.

사람이 궁지에 빠지면 때로 《묘안》도 생기는 법이다. 박정산은 출로를 찾았다.

《책임비서동무, 이거 정말 구차하기는 한데, 어떻게 하는것이 어떻겠소?...》

오늘의 시운전을 굳이 실패로만 규정할 필요는 없다. 다섯기의 발전기중에서 다행히 하나는 제구실을 하기때문이다. 이것만 돌려도 4백 Kw 는 된다. 이것이면 읍지구의 조명은 물론 짜고 들면 지방산업공업공장들의 교차생산도 할수 있다. 지금의 환경에서는 이것도 대단하지 않은가.

《물론 이걸 임시방편이고 차차 완성해야지요.》

박정산은 스스로도 자기 말에 확신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끼었다.

윤준모는 박정산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했으나 인차 대답이 없었다. 아마 뜻밖이니 섣뜻 납득이 안될것이다. 하지만 곰곰히 따져 보면 공감할것이다. 그라고 뽀족한 수가 있겠는가.

마침내 윤준모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니까 것처럼 요란하게 벌려 왔다가 고작 읍지구밖에 그 덕을 못 본다는거지요?》

《그러니 어찌겠소. 당장 양어장건설을 벌려야겠는데 조수력하고만 씨름할수야 없지 않소.》

《양어장이라고요? 아니 지금의 우리 관점으론 양어장을 건설한대두 또 그러루한 실적이 하나 더 생길뿐이지요.》

윤준모의 말에는 예리한데가 있었다.

박정산은 오산하였다. 자기의 성격이 기름에 불이라면 윤준모는 뜯쇠라고 할수 있다. 그는 자기의 제안에 대한 윤준모의 완만한 반응을 그의 천성적인 신중성으로만 리해했었다. 했는데 《뜯쇠》는 왜서인지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지난 기간 <만세>를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런데 인민들이 그 덕을 본게 얼마나 있습니까? 전기문제만 해도 그렇지요. 지난 시기

에 건설한 우리 군의 소형발전소들중에서 제대로 돌아 가는건 겨우 절반이라고 합니다.》

박정산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허나 힘들게 찾은 출로를 포기하기에는 사정이 너무도 절박하였다. 그는 마지막주폐장을 내들었다. 그것은 《묘안》을 산생시킨 중핵적요인이었다.

《그러니 참 야단이 아니요. 래일에 물려 있는 방식상학은 어찌겠소. 그거야 보장해야지 않겠소?》

《방식상학이라?...》 윤준모는 걸음을 떼며 반문했다. 《우리 군 인민들이 그걸 좋아 할가요?》

《...》

《자랑이나 하자고 발전소를 건설한거야 아니잖습니까. 그나마 팔삭동이발전소를 말입니다.》

《책임비서동무, 내 오죽하면 그런 궁한 생각을 다 했겠소? 난 책임비서동무가 내 심정을 리해 할줄 알았소. 그런데 그렇게까지...》

《위원장동무, 설사 내가 리해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민들이 싫다면 그만이지요.》

힘들게 찾은 출로는 막혀 버렸다. 드디어 《기름》에 불이 달리었다.

《책임비서동무, 물론 우리는 자기 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지요. 그렇다구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만 봐야겠습니까? <고난의 행군>속에서 일을 하자니 더러 빈 구멍도 생길수 있는거지요.》

《<고난의 행군>시기니 더 실속이 있어야지요.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벌리자면 짱그리 털어 내야 합니다. 인민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힘들게 일판을 벌렸으면 그만큼 덕을 봐야겠는데 흔히 면무식이나 하구 어떤건 손해까지 봅니다. 이래서야 인민생활은 어떻게 펴이구 나라는 또 어떻게 허리를 펴겠습니까. 그런 실적은 차라리 없는게 낫습니다. 아니, 최악이지요!》

박정산은 가슴이 섬찝하였다. 그렇다고 수궁할수도 없었고 부정할수도 없었다.

윤준모는 걸음을 멈추었다.

《위원장동무, 오해하지 마시우. 난 사실 자기 불만때문에 좀 흥분했습니다. 위원장동무가 한 일이자 내가 한 일인데 내 누굴 탓하겠소. 제물에 공연히 위원장동무한테 투정을 한셈이 됐구려.》

그의 말에는 진정이 느껴 졌다. 허나 박정산은 조금도 위안을 찾을수 없었다.

그들은 다시 걸음을 떼었다. 침묵이 흘렀다.

윤준모가 침묵을 깨뜨렸다.

《위원장동무는 이번에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무식했지요.》

처음 이 발전소건설을 놓고 실무일군들간에는 론쟁이 격렬했다. 개방식으로 하느냐, 흡출관식으로 하느냐 하는것이 쟁점이었다. 두 주장간에는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책임일군이 어느측에 지지

표를 놓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될수밖에 없었다.

박정산은 개방식에 지지표를 주었다. 그쪽이 빠른 길이었던것이다. 한편 군의 한 바다가에서 시험단계의 개방식소형조수력발전소가 채릉스레 돌아 간다는것이 신심을 주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타빈에 하나의 발전기를 설치한것으로서 이 발전소를 담보하기엔 키가 작았던것이다.

《말하자면 조금성이 일을 쳤지요. 그저 하루빨리 전기문제를 풀자고 덤비다 보니...》

그는 말끝을 얼버무렸다. 좀 뻘뻘치 못한것이 있었으니 그 조금성의 밀바탕에는 남보다 먼저 장훈을 부르고 싶은 욕망도 없지 않았던것이다.

《그렇게만 보아야 할가요?》

윤준모는 분명 이의가 있는 모양이었다.

침묵이 흐른 뒤 윤준모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하기 힘든 말을 좀 할가요?》

《허허, 새삼스레 그런 말까지 왜 하시우?》

박정산은 혼연히 대꾸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으기 긴장해 졌다.

《물론 이번 실패에는 우리의 실력이 낮은데도 원인이 있지요. 하지만 내 생각엔 기본원인이... 가만. 동무는 누굽니까?》

저쪽 어둠속에서 서성거리던 사람이 주저주저 다가왔다. 도시경영사업소 지배인이었다.

박정산이 이상하여 물었다.

《아니, 동무는 왜 아직 안 돌아 갔소?》

《저, 결론을 받아야...》

《결론이라니?》

《빨래돌 말입니다. 그 화강석관돌을 어떻게...》

《여보, 동무가 과연 지배인이 옳긴 옳소?》

박정산은 그만 자제력을 잃었다.

윤준모는 주위를 거닐기 시작하였다. 박정산의 기본상태를 고려하여 대화에 끼여 들기를 삼가하는것인지도 모른다.

《좀 생각해 보우. 지금 어디 그따위 빨래돌이니, 화강석이니 할 경황이 있소?》

《그래서 저도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의대로 처리할수도 없구 해서...》

《아니, 그 빨래돌이란게 무슨 큰게라구 자의대로 못한단말이요? 넘적들이던지 하다 못해 판자라도 박아 주면 되는거지. 참 답답하오!》

《...》 지배인은 딱한듯 긴 한숨을 내불었다.

박정산은 그의 처지가 십분 리해되었다. 설제 도 설계지만 그 화강석관돌은 책임비서의 의향인 것만큼 자의대로 간단히 처리할수도 없을것이였다.

박정산은 애써 부드럽게 어조를 바꾸었다.

《난들 왜 다 잘해 주고 싶지 않겠소. 하지만 이불깃을 보고 발을 펴야지 않겠소. 지금 급한게 한두가지요? 막 숨이 가쁘단 말이요!》

그는 누그러 졌던 감정이 다시 격해 졌다.

《형편은 이렇소. 그런데 그 빨래돌따위를 꼭 화강석으로 해줘야만 하겠소?》

《...》

《특 털어 놓구 말하지요. 지금 같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고작 집에서 뒤시중이나 하는 아낙네들에게 그만한 집을 지어 준것만두 과분하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화강석까지...》

박정산은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숨이 찼던 것이다. 그가 주머니에서 담배팩을 꺼내들 때였다. 언제 다가왔는지 윤준모가 손을 내밀었다.

《나도 좀 한대 주시우.》

《예?... 아니, 책임비서동무야...》

윤준모는 담배를 입에 대본적이 없는 사람이다.

박정산은 비로소 자기가 흥분한김에 책임비서의 존재를 깜빡 잊었음을 깨달았다. 결국 지배인에게 터뜨린 격정이자 책임비서에게 터친 격정이 되고 만것이었다.

윤준모는 박정산이 얼며름해 있는 사이에 그의 손에서 담배갑을 옮겨 갔다.

박정산은 하는수없이 라이타를 켜주었다.

윤준모는 성급히 한모금 들이켰다. 갑자기 기침이 터졌다. 피울줄도 모르면서 급히 들이킨 연기가 곱게 밖으로 돌아 나올리 만무했던것이다.

기침은 인차 멎지 않았다. 윤준모는 기침을 깃느라고 굵혔던 허리를 폈다가는 다시 숨차게 쿨럭쿨럭하면서 허리를 굽히곤 하였다.

《책임비서동무, 왜 이러시우? 내 좀 지나쳤기로서니 그렇게까지...》

윤준모는 아니라는 뜻으로 손을 내저었다. 기침때문에 대답을 할수가 없었던것이다.

박정산은 아연해 졌다. 지금까지 자기들사이에 이런 불협화음은 없었다. 한데 그 쪼꼬만 식료가공집이란것이 이 어마어마한 발전소에 지꽃게 꺼묻어 돌아 가더니 나중에는 빨래돌이란것까지 튀어 나와서 이런 화단을 빙어 낸것이다. 망할놈의 돌맹이 같으니!...

급하기는 도시경영사업소 지배인이 더한것 같았다. 이 모든것이 자기때문이라고 여겨 진 모양으로 그는 어름어름 물러 가려고 하였다.

윤준모는 기침을 하면서도 일변 손짓으로 지배인을 멈춰 세웠다. 마침내 그는 진정을 했다.

《지배인동무, 그러니까 식료가공칸만은 완공이 됐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동무, 그럼 식료가공칸은 문을 열어서 당장 래일아침부터 리용하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한끼가 새로운데 왜 시간을 끌겠습니까?》

《그야 그렇지요. 지배인동무, 이제 가서 인민반장들에게 포치하시오. 래일아침부터 가정부인들이 식료가공집을 리용하도록 말이요.》

결국 두번째로 상정되었던 빨래돌문제는 이번

에도 결속을 보지 못한채 류산되고 말았다.

4

두사람은 서로 량해를 구하였다. 오늘은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자극을 삼가하기로 무언의 약속이 이루어 졌다.

《위원장동무, 돌격대원들이 저녁이나 제대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웬걸 먹었겠소. 오늘 타격이 너무 커와서...》

돌격대합숙은 바다기슭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서 발전소건설부대의 핵심인 돌격대, 20여명의 고급기능공들이 3년째나 일해 오고 있다. 투지도 좋았고 기세 또한 충천했었다. 했던 그들이 오늘 치명적타격을 받고 서리 맞은 호박잎처럼 후줄근해 진것이다.

두사람은 합숙마당에 이르렀다.

활짝 열려 진 합숙의 창문으로는 바람벽에 걸린 간데라의 환한 불빛과 함께 웬 녀인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이 밤에 무슨 녀인이 왔는가?

두사람은 창가로 다가갔다.

넓다란 방안에는 네개의 큼직한 두리반상이 사각으로 놓여 있고 돌격대원들은 바람벽을 빙 돌아가며 비스듬히 기대여 앉았는데 30대의 녀인이 국수그릇들을 상위에 차려 놓고 있었다.

박정산은 두눈을 크게 떴다. 그 녀인인즉 서로 쓴의 보듯 하는 용접공의 안해였던것이다.

《글쎄 난 오늘 여기서 그렇게 큰 일이 있는것두 모르구 <산구경>을 갔었지요 뭐. 돌격대원의 녀편네라는게 참 알량두 하지요?》

그런즉 뭇나무를 하려 산에 갔던 모양이다.

녀인은 국수그릇들을 차려 놓다 말고 남편에게 맥주병을 내밀며 통을 주었다.

《아니 당신은 뭘해요? 주인이 명칭해서!》

안해한테 통을 맞은 남편은 쨍쨍 매면서 잔들에 맥주를 부으며 돌아 갔다. 용접불씨들에 구멍난 작업복대신 산뜻한 흰 샤쓰에 칼날바지를 입고 면도까지 깨끗이 한 그는 새파란 총각처럼 말쑥하였다. 안해가 나오자마자 당장 남편의 《령감》때를 벗긴것이 분명하였다.

마침내 녀인은 국수그릇들을 상위에 다 차려 놓고 나서 어서들 상앞으로 나갔으라고 하였다.

한사람 두사람 마치 못해 상앞으로 우물우물 나앉았다. 성의가 하도 고마우니 먹어 줘야지 어찌겠나 하는 기색이었다.

《아유, 지지리들두 못났네요! 아니 사내대장부들이 그만한 일에 뭘 그다지 풀들이 죽었어요? 꼭 손자 죽은 늙은이들처럼!》

몇사람이 허허 웃었다.

《그럴라문 우리하구 치마를 바꿔 입자요. 우리 대신 밥두 하구 아이두 낳구 다 하랴요. 그저 삼태자들만 낳지 못해 보랴요!》

폭소가 터졌다. 한 청년은 방금 국수를 입에 물었는데 폭소가 터지는 바람에 소리내어 웃을수

도 없고 고개를 쳐들수도 없어서 늘어 진 국수발로 사발에 대고 연신 절구질을 했다. 그 모양이 또한 볼만하여 웃음소리는 더 높아 졌다.

《너무 상심들을 마세요. 아무려면 이런 큰 일이 어떻게 땅 짚구 해염치기 같겠나요. 우리야 뭘 알겠어요. 다들 어린할줄은 알면서두 강가에 아이를 내보낸 것처럼 남정들을 걱정하는게 우리 아낙네들인걸요!》

한껏 부드러워 진 너인의 어조에는 후덥고도 절절한것이 있었다. 방안은 조용해 졌다.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말이 없었다. 마침내 천천히 손들을 뻗쳐서 맥주잔들을 무겁게 쳐들었다.

두사람은 조용히 창가에서 물러 났다. 다시 바다가로 나갔다. 윤준모가 감탄했다.

《저 너자가 군당책임비서보다 낫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저렇게 간단히 주물러 놓을수 있겠소?》

박정산은 대꾸할 겨를이 없었다. 지난해에 저 너자네 아이들과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죄의식이 갈마들었던것이다. 그날 자기는 한읍안에 살면서도 따뜻한 잠자리를 일기 싫어서 뒤늦게나마 지켜야 했을 철부지들과의 약속을 어기었었다. 그런데 저 너자는 30리 밤길을 온것이다. 약속한것도 시킨것도 아니었다. 그는 또한 쭈나물속에 드문드문 박혀있던 강냉이알들을 회상했다. 그런 집 쌀독에서 저 많은 국수가 나온것이다!...

(내가 저 너자를 잘못 보았단 말이지.)

윤준모가 생각 깊은 어조로 말했다.

《저 아주머니를 보느라니 왜서인지 어릴적생각이 자꾸만 나는군요. 우리 어머니도 저 너인처럼 드세차고 시원시원했지요.》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았다. 앞에서는 물고기들이 쪼뽕쪼뽕 뛰어 오르고 랑영의 풀숲에서는 풀벌레들이 요란스레 울었다.

《아무튼 자식들한테 무서웠수다. 어쨌든 한번 성이 나면 용서가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인정이 있고 뜨거웠지요.》

윤준모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어두운 바다에 대고 힘껏 던지었다. 쪼뽕 소리와 함께 수중폭포마냥 파아란 린팡이 확 일어 났다.

《위원장동무도 회초리맛을 좀 보셨소?》

《허허, 우리 나이치구 회초리를 안 맞아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맞아두 되게 맞았지요.》

윤준모의 자못 감회 깊은 추억은 박정산으로 하여금 수십년 세월의 이끼에 묻히였던 하나의 추억을 생생히 되살려 냈다.

《정전 이듬해 초여름인데 난 사흘이나 학교를 꾸꾸먹은적이 있었지요...》

...아직은 밀보리가 익기 전인 보리고개였다.

정산이는 학교에 가는척 하고는 산에 가서 삭정이나무를 해다가 장마당에 팔았다. 10살짜리의 까치둥지만한 나무단이라 사흘만에야 겨우 두되의 좁쌀자루를 손에 질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전선에서 전사하고 연약한 어머니 혼자서 이제 한창 먹을 나이인 세 아들을 힘들게 키워 가는 정산이네였다.

요즘 어머니는 끼니때마다 아들들에게 밥상을 차려 주고는 자기는 부엌에서 먹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산이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를 한끼라도 배 부르게 해주고 싶었다. 한편 좀 엉뚱한 일을 해서 어머니의 칭찬을 받고 싶기도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 모르게 나무를 해지고 장마당에 다녔던것이다.

좁쌀자루를 받아 들고 대견해 할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그려 졌다.

날듯이 집으로 돌아 온 정산이는 토방앞에서 흠칫 굳어 졌다. 방안에서 어머니와 담임선생님의 말소리가 두런두런 울려 나왔던것이다. 정산이가 사흘이나 결석을 했으니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온 모양이었다.

케가 글렀다. 슬금슬금 굴뚝모퉁이에 숨었다.

한참후야 선생님과 어머니가 나왔다. 어머니는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거듭거듭 절을 하면서 선생님을 멀리까지 바래주었다.

다시 돌아 온 어머니는 그제야 정산이를 보았다. 좁쌀자루도 알아 보았다. 잠시 서늘한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말없이 집뒤로 갔다.

다시 나타난 어머니의 손에는 회초리가 들려 있었다. 녹신틈해서 때리면 착착 들어 붙는 닥나무회초리였다.

《너 언제부터 거짓말하는 법을 배웠니?》

《...》

《바지를 걷어라. 어서!》

바지는 걷어 볼것도 없었다. 가랭이가 무릎을 조금 내려 덮은 무명잠뱅이였던것이다.

정산이는 벌써부터 등골로 식은땀이 흘렀다. 조용하면서도 이악하고 뻘뻘 어머니였던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바지가랭이를 한겹 접어 올리였다.

짜! 하는 소리와 함께 정산이는 일결에 한발울 쳐들었다. 따끔하달지, 화끈하달지 형용하기 힘든 아픔이 장딴지로부터 온몸으로 퍼져 갔다.

《똑바로 서지 못하겠니?》

정산이는 서려웠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건만 칭찬은커녕 매를 든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어머니를 나무랄것이다. 아니, 회초리를 빼앗을것이다.

한대, 두대... 회초리는 점점 더 매워 났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키던 정산이는 그만 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어머니는 회초리를 멈추었다. 했으나 그것으로 끝난것은 아니었다.

《뭐,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때리시는거다!》

또다시 짹 소리와 함께 어머니는 회초리를 내

던지였다.

그날 밤 정산이는 엷딘채로 잠이 들었다. 바로 누우면 회초리에 맞은 장판지가 거치른 갈노전 바닥에 쓸리어서 더 아팠기때문이었다.

…정산이는 억울하게 종아리를 맞은것이 서러워서 울며 서 있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났는지 아버지가 허겁지겁 달려 왔다.

《정산아, 너 좋아릴 맞았는지? 어디 좀 보자. 원, 이런…》

아버지는 피가 진 아들의 장판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자 정산이는 쓰라리던 종아리가 대번에 시원해 지는것이였다....

정산이는 잠결에 화끈하던 종아리가 정말로 시원해 지는것을 느끼었다. 한편 무슨 흐느낌소리 같은것을 들은것 같기도 했다. 잠이 달아 났다. 눈을 떴다. 아닌밤중에 방등불이 환했다.

어머니가 아래입술을 감쳐 물고 가만가만 흐느껴울면서 두손바닥으로 조뱅이풀을 비벼서는 자기의 장판지에 붙여 주고 있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어머니의 두눈은 빨갛게 짓물려 있었고 턱밑에는 두볼을 타고 흘러 내린 두개의 눈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정산이는 자기대로 울음이 왈각 북받쳤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정산아, 너 깨났니?》

《...》

《지금두 몹시 아프냐? ... 응?》

정산이는 더 참지 못하고 발버둥을 쳤다.

《싫어, 싫어! 그따위 싫어!... 난 엄마를 생각해서 그랬는데 엄만 그것두 모르구... 싫어, 싫어, 싫어!》

어머니가 애 써 아들의 종아리에 붙여 놓았던 조뱅이잎들이 사방으로 휘뿌려 졌다.

어머니는 두손으로 아들을 안아 일으켰다.

《정산아, 나두 네 맘을 안다. 그래서 때렸다.》

《?...》

《난 네가 그런 식으루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준대두 반갑지 않다. 사람이란 한번 거짓말을 하면 두번, 세번 하게 되구 그러느라면 점점 흑심이 생겨서 나중엔 역적까지 될수 있단다.》

《!...》 정산이는 가슴이 서늘해 졌다.

《난 네가 정직하게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면 먹지 않아두 배가 부르구 힘이 난다. 알았냐?》

《응!》 정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음이 쑥 들어 갔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자, 그럼 조뱅이 다시 붙이자.》

아들의 장판지를 당겨 놓고 자기가 때린 회초리자욱들을 새삼스레 들여다 보던 어머니의 두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칭칭 피어 올랐다.

《네가... 너무두 모진... 에미를 만났구나!》

정산이는 저도 모르게 와락 어머니를 얼싸안았다.

《엄마!... 난 엄마가 좋아!》...

박정산은 담배를 붙여 물었다. 가슴이 얼얼했다.

윤준모가 깊은 생각에 잠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놀랍거든요. 그때의 우리 어머니들로 말하면 별로 본것두 배운것두 없는데 생각들은 그렇게 응심 깊었던 말이지요!》

박정산은 공감하며 한마디 보태었다.

《그때 누구누구 해야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고생이 많았지요!》

《지금도 그렇지요. 난 지금의 우리 녀성들을 볼 때마다...》

윤준모는 말을 하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 섰다. 도시경영사업소 지배인을 싣고 읍에 들어 갔던 책임비서의 승용차가 돌아 온것이였다.

《그럼 난 좀 볼 일이 있어서... 위원장동문 돌격대원들과 예서 하루밤 꼭 쉬시우.》

책임비서는 용접공의 안해까지 불러서 차에 태우고 떠나갔다. 밤 10시였다.

5

박정산은 뒤집을 지고 다리우를 거닐었다. 수문을 닫지 않아서 열려 진 경간으로는 사리매의 세찬 조수가 격랑마냥 사품치며 흘러 들고 있었다.

박정산은 온밤 머리속이 뒤숭숭하여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한 자기모순때문이었다. 하면서도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수가 없었다. 짧은 여름밤이라 어느덧 동녘하늘이 희붉해 지기 시작하였다.

문득 두줄기의 전조등불빛이 저쪽 해안선도로의 굽이를 돌아 나왔다. 이어 승용차 한대가 달려 와서 멎더니 책임비서가 내렸다.

《위원장동무, 우리 잠깐 기분전환을 합시다.》

《기분전환을 하다니요?》

《읍에 가면 압니다. 자, 어서.》

두사람을 태운 승용차는 다시 돌아 섰다.

차가 떠나자 윤준모는 피곤한듯 좌석등받이에 무겁게 몸을 기대었다. 그러더니 얼마 못 가서 두눈은 감겨 지고 머리는 등받이에 기대어 진채 맥없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책임비서동진 어제밤 꼬박 밝혔습니다.》

윤전수가 조용조용 사유를 설명하였다.

알고 보니 어제밤 발전소를 떠난 윤준모는 공장 식료가공집으로 갔었다. 지배인의 말만 들은 래일아침부터 가정부인들이 식료가공집을 제대로 리용하겠는지 안심치 않았던것이다. 아닐세라 완공했다고는 하지만 불비한 개소들이 적지 않았다.

도시경영사업소 지배인이 불리워 나왔다. 사재를 알아 차린 그는 우물우물 변명하였다.

《좀 불편은 하겠지만 그런대로 리용은 할수 있

습니다. 리용하면서 한쪽으로 차차…》

《그게 무슨 소리요? 가정부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자고 이 집을 지은게 아니겠소?》

《…》

《지배인동무도 빈농의 아들인데 어떻게 인민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이처럼 가식적일수 있소?》

급해 난 지배인은 용단을 내렸다.

《제가 이제 다시 포치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이요?》

《가정부인들에게 래일 하루 더 연기…》

책임비서의 서늘해 진 눈길과 마주친 그는 인차 자기의 말을 수정하였다.

《아침 한끼만 참으라고 하겠습니까. 오전중으로…》

《지배인동무.》 책임비서의 엄해 진 음성이 지배인의 말끝을 잘라 버렸다. 《우리 당정책이나 우리 사회의 모든 시책들은 다 우리 일군들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소. 때문에 일군들이 인민들과 빈 소리를 하면 우리 당이, 우리 사회가 빈 소리를 하는것으로 되는거요. 어떻게 인민들과 약속했다가 것처럼 가볍게 췌버릴수가 있소?》

《책임비서동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단 가정부인들과 약속한 이상 한끼도 어길수 없소. 늦어도 새벽 4시까지지는 완전무결하게 해야겠소.》

윤준모는 시계를 보고 나서 옷동을 벗었다.

《자, 이제부터 5시간밖에 시간이 없소.》

어떻게 알았는지 노동자들이 달려 나왔다.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 넘치는 후더운 식료가공칸안에서는 사람들이 땀을 철철 흘리며 돌아 갔다.

《가정 부인들이 무던히는 좋아들 합니다. 책임비서동진 한참이나 멀리서 지켜 보다가 위원장동지에게 빨리 보여 드려야겠다고, 혼자 보긴 아깝다면서요.》

윤준모는 군잠에 들었다. 만시름을 놓은것처럼 코까지 골면서 잔다.

차는 읍거리에 들어 섰다. 날은 환해 졌다.

승용차는 네거리의 식료가공집을 저만치 앞에 두고 멎어 섰다.

높지도 크지도 않은 반원형의 아담한 식료가공집, 지붕의 환기창으로는 뽕오얀 증기가 몽실몽실 피어 오르고 멎을 낸 둥근 창문들로는 밝은 웃음소리들이 흘러 나온다. 지금 그 집으로 연방 녀인들이 모여 들고 또 줄 지어 나온다. 차열을 지나치는 녀인들이 주고받는 말들도 들린다.

《철이 엄마, 이제 <산구경>도 다 했군요.》

《글쎄 말야. 섭섭해서 어쩔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 주민세대들에 대한 연료공급이 어려워 졌다. 식량난에 빨갑단, 그밖의 갖가지 어려움속에서 매일 한가정의 세 끼때식을 보장해야 하고 하많은 시중을 들어서 남편과 아이들을 자기 초소에 내세워야 하는 저

녀인들이었다. 그 고충과 수고를 과연 누가 대신 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보면 제일 《고난의 행군》을 하는 사람들은 녀인들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한 저네들에게 저 작은 집 하나만 지어 주어도 저렇게 좋아 하는것을, 벌써 오래전에 지어 주었어야 할 집은 젓혀 놓고 내 무엇이 그리도 분주하여 뛰어 다녔던가. 실속은 크게 없고 형식만 요란한 일에는 천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저처럼 실리가 있는 일에는 푼전과 오금을 아낀 자기였다. 하여 화강석판돌 몇개를 놓고도 것처럼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던가!

(나야말로 일군이 아니었구나!…)

자기가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였다. 어머니는 기쁨보다 근심을 앞세웠었다.

《넌 어릴적부터 좀 내세우면 우쭐하는 버릇이 있는데 또 그 버릇이 살아 날가봐 걱정된다.》

지금 어머니가 계신다면 당장 회초리를 들것이다. 허나 알고 보면 지금도 《회초리》는 여전히 있다. 그것은 군중의 의견, 인민의 목소리이다.

석달전, 바로 저 자리에서 녀인들은 자기에게 《대포위원장》이라는 평가를 내렸었다. 그때 자기는 《종아리》가 뜨끔해야 했었다. 했더라면 조수력발전소건설이 뜻대로 안된다고 그런 오그랑수로 껌데기만 요란한 《실적》을 내려고 안했을것이었다.

실적은 곧 실리를 전제로 하는것이며 그 실리는 명실공히 나라와 인민에게 있어야 한다.

허나 자기는 은연중 그 실리속에 사심을 섞어 넣었다. 이 박정산이 《일을 제끼는 일군》이라는 평가를 받을만 한 《빛이 나는 실적》에 은근히 신경을 쓴것이다. 하여 때로는 대포로 참새를 잡고서도 《만세》를 불렀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식료가공집은 여전히 흥성거린다. 그런데 왜서인지 식료가공집의 절반은 조용하였다. 빨래돌이 걸려서 완공되지 못한 빨래칸이었다.

쫓기듯 거기에서 눈길을 돌리던 박정산은 저도 모르게 차문을 벌컥 열었다.

6

박정산은 방금 차열을 지나쳐서 식료가공집의 문앞에 다가간 녀인을 따라 잡았다. 늙소랭이를 옆에 낀 녀인이었다.

《저, 용접공동무의 아주머니가 아니요?》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알아 본 그는 전에없이 반색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부른 영문을 몰라 저으기 의아한 기색이었다.

《참 미안하게 했소. 그동안 많이 노여웠을거요. 아이들은 더 말할것두 없구.》

그러자 녀인의 커다란 두눈이 더욱 둥그래졌다.

《저, 무슨 말씀이신지?…》

짐짓 모르쇠를 하는가? 아니다. 이 여자성격에 그런 외교는 맞지 않는다. 뜻밖이니 그럴 수밖에. 《지난해에 내가 그 집 애들과 실 없는 약속을 한 것이 있잖았소. 그때 사실은...》

그는 경위를 설명하고 나서 덧붙였다.

《내 뭘 변명하겠소. 위원장을 잘못 만나서 어른들은 그만두고라도 철부지들까지 마음의 상처를 입었구만. 정말 면목이 없소!》

《어마나. 그럼 그때 우리 집에 오셨던 분이 위원장동지이십니까?》

《아니 그럼 몰랐소?》

《이걸 어찌나! 그런걸 전 도에 계시는 먼 친척 분이 군에 오셨다가 잠깐 들려 가신줄만 알고서... 호호호!》

녀인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한참이나 웃었다. 마침내 그는 웃어른앞에서의 실례를 깨달은 듯 박정산에게 허리를 숙였다.

《위원장동지, 정말 미안합니다. 모처럼 오셨던 걸 몰라서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응?... 아니, 그럼...》

《위원장동지, <고난의 행군>기간에 우리가 무슨 일인들 안 겪었습니까. 우리 애들이 배를 좀 굶는게 무슨 큰 일이겠나요. 그걸 보시구 위원장동지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신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면 됐지 이 어려운 때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녀인은 다시금 허리를 숙이였다.

《!...》 박정산은 불시에 눈앞이 몽롱해 졌다.

결코 감동때문만이 아니였다. 또한 이런 녀인, 이런 군중, 이런 인민들의 숭고한 정신과 성실한 땀을 밑거름으로 자기의 서훈짜리 영상을 둔구려 했던 죄의식때문만도 아니였다.

무릇 사람들은 오늘의 처지가 불행하면 행복했던 과거를 자주 돌이켜 본다. 하지만 오늘의 처지가 행복하면 고난했거나, 피로웠거나, 불행했던 옛 처지를 잊기가 쉽다. 자기가 바로 그랬다.

자기로 말하면 《촌아낙네》의 회초리를 맞으며 자란 《잠방이》였다. 그런데 당에서 키워 일군으로 내세워 주니 이젠 《어른》 흉내를 낸다. 겉음새부터 점잖게, 같은 말도 호령조로 위엄 있게!...

자기 자신이 수수한 아낙네의 아들이면서도 지금의 수수한 녀성들쯤은 《치마 두른 아낙네》들로 여겼으니 이야말로 자기를 키워 주고 받들어 준 당과 인민앞에 얼마나 큰 배은망덕인가.

자기의 근본을 명심하라. 제 근본을 망각하면 허파에 바람이 들고 변질되어 나중에는 배은망덕의 길로 떨어 진다!...

이 명백한 리치를 아지는 이름조차 모르는 이 평범한 녀인이 일깨워 준 것이였다.

미인은 아니다. 허나 억실억실한 두눈과 둥그스름한 얼굴과 풍만한 몸에서는 그 어디에서라없

이 고난의 세파를 역세게 헤쳐 오는 과정에 단련되고 세련된 원숙함과 강의하고 응심 깊은 인간미가 풍기고 있었다.

《위원장동지? 그동안 절 많이 욕하셨지요?》

《욕을 하다니?》

《전 아이적부터 팔랭이가 돼서 어머니한테 늘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좋은건 좋고, 싫은건 싫은걸 어찌겠나요. 전 어쩐지 위원장동지가...》

《말만 번지르르한 <대포쟁이>더라 말이지?》

《용서하십시오. 제가 버릇없이...》

《아니, 그래야 하오.》

진실한 사람일수록 사랑과 증오, 존경과 경멸의 대조가 뚜렷한 법이다. 자기가 이 훌륭한 녀인을 《개차반》으로 여기였듯이 생활에서는 간혹 진실한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허나 그런 《손해》에 개의치 않는 것이 진실한 사람들의 기질인 것이다.

《전 군당책임비서동지의 말씀을 듣고서야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 식료가공집만 해도 위원장동지가 얼마나 마음을 쓰셨습니까! 그런걸 전...》

(그건 무슨 소리인가? 아, 어제밤 책임비서가 발전소에서 이 녀자와 같이 들어 왔었지.)

《위원장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은 다른 녀자의 목소리였다.

박정산은 그제야 여러명의 녀인들이 둘러 섰음을 알아 보았다. 녀인들마다 고맙다고, 연방 고맙다고 치사들을 했다. 한 녀인이 안에 대고 소리쳤다.

《군인민위원회 위원장동지가 오셨어요.》

안에 있던 녀인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저만치 멀어 저 갔던 녀인들까지 되돌아 왔다. 석달전만 해도 이 위원장을 피하여 자리를 뜨던 녀인들이였다. 그들이 지금은 자기를 향하여 달려 오는 것이다!

박정산은 삽시에 녀인들의 울타리속에 들었다. 그는 급해 났다. 이야말로 비는 하늘이 내려 주었는데 절은 부처가 받는 격이였다.

그는 책임비서를 찾으려고 하였다. 했으나 그 사이 윤준모는 잠에서 깨어 났는지 머리를 돌린 승용차는 발전소쪽으로 달려 가고 있었다.

한 녀인이 그를 곤경에서 구원해 주었다.

《위원장동지,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는지요?》

화제는 돌변하면서 녀인들속으로 옮겨 갔다.

《얼마나 억이 막혔으면 남정들이 울었겠어요.》

《나두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일손두 안 잡히더군요.》

《그러니 책임일군들의 가슴이야 오죽하겠어요.》

한 녀자가 다시 화제의 초점을 돌려 놓았다.

《위원장동지, 그럼 발전소는 영영 일어 서지 못합니까?》

불시에 조용해 졌다. 선뜻 대답할수가 없었다.
그는 발전소쪽의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과연 그 발전소건설을 계속 내밀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고?...)

침묵속에 식료가공간의 물탱크들에서 온천물이
넘쳐 흘러 떨어 지는 소리만이 높아 졌다. 혹시
넘쳐 난 물이 어느 누구의 식료품그릇으로 떨어
지는지 어이 알랴. 하건만 너인들은 이 위원장의
대답만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자기 가정의
폐식보다도 군안의 중대사, 발전소의 운명여부가
더 중요한것이다.

박정산은 확신을 얻었다. 불과 수십명의 너인
들이 모인 이 자리가 수백명 군중이 운집한 집회
장처럼 느껴 졌다.

《여러분, 조수력발전소건설은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이였고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것입
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것을 해낼만 한 힘이 있
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우선 여러분들을 믿습니

다 》

너인들은 흠뻑하였다. 자기가 잘못 들었나 하
여 서로 마주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정산은 어조에 더욱 걱정을 담았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처럼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억세게 헤쳐 올수 있었
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일변 웃으며 일변 눈물을 머금
고 박수를 치는 너인들의 얼굴마다에는 감동만이
아닌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신뢰감도 어
려 있었다.

칠순의 할머니 한분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위원장어른, 그렇게 큰 일만 돌보재두 얼마나
바쁘네까. 한데 이렇게 아낙네들의 뒤바라지까
지 해주니 위원장어른이 오죽이나...》

박정산은 급히 할머니에게 허리를 숙이였다.

《어머니, 말씀을 낮춰 주십시오. 제가 무슨 어
른이겠습니까.》

땅을 들어 올렸다

최광조

땅이여 새땅이여

내가 왔다

흐린 광포물에

갈게잡이 매생이를 띄우던 내가

오늘은 파란 트랙트 타고

알찬 이삭을 거두러 왔다

바라보는 마음도 흐뭇하구나

벌써 쌀밥내 콩장내 물썬물썬 풍기는구나

얼음감탕속에서

강냉이를 알로 세여 먹으며

물과 싸우던 때를 이젠 옛말하게 되었구나

제방따라 배 부른 콩깍지들이

벼이삭을 끌어 안은 저기 저바루였지

마대로 소랭이로 쌓아 올린 제방뚝이

수렁속에 형체없이 주저앉았을 때도

의지의 뚝만은 더 굳게 쌓아 올렸지

낡은 신발에 불을 달아

뛰는 심장에 불을 달아

또다시 밤을 패며 결사전을 벌린곳이

무지개빛수건들이 함박웃음 터치며

벼단을 묶어 가는 저기 저바루에선

폐목을 밀던 동지를 잃고서도

잃을수 없는것이 래일이어서

신념의 가슴들이 물갈기를 헤치며

시련의 파도를 한치한치 밀어 나갔지

아, 제 하나의 오늘을 위해서라면

백번도 더 맥을 놓고

천번도 더 주저앉았으련만

우리 장군님 안겨 주신 배짱에

신심은 더 굳게 불 타지 않았던가

부르튼 손바닥에 딱총을 놓으면서

수천수만개의 갈뿌리를 뽑을때

동요의 잡초뿌리까지 말끔히 뽑지 않았던가

술잔으로 우물푸기라는 잡소리를 차던지며

일심의 용드레를 굳게 쥐고

그 넓은 물바다를 다 퍼내지 않았던가

아, 내 오늘

함흥 100리벌에 이어

벼물결 일렁거리는

눈뿌리 아득한 광포대지우에서

온 세상에 소리쳐 말하고 싶구나

지난 날 흐릿한 광포호수에서

갈게나 건지던 내가 비로

장군님의 배심과 담력으로

이 땅을 들어 올린 사나이라고

고난의 그 감탕속에서

행복의 알찬 열매를 영글린 사나이라고

풀판의 새 노래

량덕모

방목공의 기쁨

산마루에 두둥실 해 솟는다
쾌청한 이 하루를 약속하는
머리위의 하늘은 얼마나 푸르른가
그보다 더 푸르른 풀판으로
어서 떠나자 귀여운 염소들아

큰골로 가도 좋고 작은 골로 가도 좋다
골마다 씨 뿌린 토끼풀 길짚구...
이 여름 비를 맞아 먹음직스레 자랐다
등성이마다 보라빛 싸리꽃 피어
부르는듯 손을 짓는다

풀밭이 모자라 걱정이던 일
옛말 같다
힘은 겨웠어도
돌박산에도 땀을 부어
착실히 가꾸어 온 풀판

어디 가나 만문한 풀잎들
이슬을 굴리며 반겨 준다고
까불대지 말어라 염소들아
그저 좋아 뜯어 먹는 그 풀잎 하나하나에
어떤 햇빛이 스며 드는지
너희들이야 어이 알랴

어이 알랴 산도 많고 골도 많은 내 나라
버리는 땅 한치없이
인민의 기쁨 자라오르게 하신 장군님

우리 목장 드넓은 새 방목지를 돌아 보시며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장쾌하다고
햇빛 같은 미소로 축복해 주신 그 뜻을

한량 없는 그 사랑이 어려
골개골개 무성한 풀들이다
봉이봉이 우거진 풀잎들이다
래일의 희망처럼
이 강산에 푸르른 풀판이다

가도가도 끝 없는 그 풀판으로
사랑하는 염소들아
부흥하는 새 생활의 바다
행복의 돛처럼
행복의 돛처럼 어서 흘러 가자

어서 흘러 흘러 하얗게 덮어 보자
그러면 나날이 풍성해 질 우리네 살림
나날이 후해 질 우리네 인심...
생각만 해도 바람 안은 풀판처럼
이 마음 설렌다

아, 흐뭇한 웃음 핀 얼굴들이
물결치듯 안겨 오는 저기
아름다운 래일의 기슭에 이어 진 풀판으로
장군님 다녀 가신 방목길 따라
나는 어깨우에 춤을 싣고 간다!
가슴 부풀도록 노래를 안고서 간다!

심산속의 새 풍경

청신한 골바람이 이슬을 떨구는
구불구불 오솔길로 염소떼를 몰며
저편 산기슭
또 한무리를 향해
듬직한 사나이 절절하게 소리친다
《밤새 안녕한가? 함흥농장 친구-》

《기계공장 동갑이-
어제 밤에 쌍둥이를 받았네》

그러자 순산을 축하하듯
마주 화답하는 염소들의 울음소리

저 산너머 그 너머에도
종이공장 식료공장 친구들...
공장은 달라도
이웃해 살림 편 방목공들
서로 서로 이어 진 풀판처럼

불 같은 마음의 어깨를 겨룬 벗이라네
한생을 같이 할 방목의 길동무라네

×

자글자글 끓는 정오의 햇빛속에
파란 풀판을 향해 키를 솟군
아담한 새 살림집
부엌문을 나서는 젊은 너인

꿀짜기가 짜지듯 풀벌레소리만 들려도
나들이 가듯
가벼운 화장에 산뜻한 옷차림
꽃보자기에 삼단밥통을 싸들고
바삐 재우치는 종종걸음

한시도 염소들과 떨어 지지 않는
남편의 그 성미에 마음 끌리며
날이 덥다고 찬밥을 대접할가
이깁장작으로 맛스레 지은 점심
식기전에 들게 하려 풀판으로 간다오

풀판처럼 사랑이 푸르려 가는
넌 만나려 간다오 간다오...

×

서컨 하늘에 타는
노을빛으로 물든 염소우리
울밖엔 배불뚝이 젖통을 싣고
아까부터 벗어 있는 소형운반차

쭉-쭉- 소낙비처럼
이쪽저쪽에서 젖을 짜대니
순식간에 흰 젖이 출렁이는 바깥쪽들
거퍼 운반차로 넘어 간다

넘어 갈수록 성수나계
젖을 짜는 소리
정을 쏟고 땀을 고인
방목공들의 자랑이 흘러 내리는 소리
아, 고요한 저녁 산밭을 흔들며
커가는 인민의 기쁨의 메아리
행복의 메아리어!

징검돌이 늘어 난다

물에 들어 서기를
영 질색하는 깜찍한것들
재롱스레 쿵쿵 딛고 건너 가라고
풀판으로 오가는 개울물에
척척 주어다 놓은 징검돌

이 봄에 곱으로 불어 난 염소무리
외줄로야 언제 건너랴
두줄 석줄...
그래도 모자라 또 늘구는 마음
무거운 돌을 안고 찬물에 들어 서도
날듯이 가벼워 가벼워

이대로 뚱뚱 날아 가

기대에 찬 눈길로
나를 방목지로 내려워 주던
못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구나
자랑하고 싶구나
식탁에 둘러 앉아 젖을 마시는
량볼 붉은 유치원꼬마들에게도

그렇거니
방목지를 지나치는 길손들아
산개울에 자꾸 늘어 나는 징검돌을
무심히 보지 말라
그 징검돌우에 비껴 있다오
풀판의 새 기쁨
우리의 풍요해 지는 새 생활이

풀판이여 푸르러라

푸른 빛
푸른 빛이
새날의 햇빛에 싸여
내 청춘의 삶처럼 질어 오르고
석양의 노을에 젖어
내 심장의 열기처럼 불 타오르는 풀판이여!

언제 봐도 너는
나의 기쁨
나의 긍지
방목의 길에서 흘러 보내는 내 청춘시절

너의 푸르름으로 물들고
내 한생 가야 할 길이
너의 푸르름속에 창창 열려 있다

말 없는 너와 속삭이며
풀판이여! 내 마음의 키가 자랐다
잃어 진 염소를 찾아
봉우리도 몇개 꿀짜기도 몇개
눈이 아프게 뒤흔으며...
련사흘 내린 비에
배 곯은 염소들의 풀 베려

퍼붓는 비속으로 낮 들고 나서며

그리고 떨어 질수 없이 정 들었다
아침에 저녁에 날마다 다시 밝아
돌부리마저 눈에 삼삼한 오솔길이며
슛스러이 향기 풍기며 다가서는
이름 모를 가지가지 들꽃들과...

아,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도
풀판이여! 너는 내 머리속에 푸르르며
못 잊을 걱정이 솟구치게 하는
행복한 추억의 샘

험한 고개 넘어 또 넘어
천리 먼 방목지에 찾아 오신 장군님
구름인양 염소무리 흐르는 등판을
만족스레 부감하시며
테사로운 풀잎 하나도
진귀한 보물처럼 끌어 주시며...

휘우듬한 언덕길을 에돌아
방목공 내 집에도 들리실줄이야
세간난 아들집처럼 보살피시며
산중에서 수고한다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 주실 때

꿈만 같아도 꿈이 아닌 그날의 사연
그것으로 하여
이 심산속에서 나는 외로움을 모른다
위훈 많은 청춘들과 다름 없는
생활의 환희를 안고 산다

오, 나의 사랑
풀판이여! 푸르러라
너의 그 푸르름은
강성대국으로 일떠서는
내 조국의 밝은 빛
눈 부신 래일을 안아 올리는
이 땅의 무궁한 힘

내 청춘의 푸른 기운 다하여
너를 기쁨지우려니
차거운 눈비바람도 이겨 내며
한껏 푸를대로 푸르려라!
너의 그 푸르름으로 하여
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엔
하얗 행복의 해빛이 쏟아 저 내리리!
-함흥시 청년염소목장에서-

이 가슴에 젖어 드는 물노래는

최정용

물이 나를 따라 서느냐
내가 물을 따라 가느냐
흘러흘러 끝 없는 흐름에
마음을 싣고
하얗 기쁨에 떠 나는 걷는다

예가 정녕
수수천년 덧없이 흐르던
성천강, 그 흐름이란 말인가
발가숭이 어린 시절
물장구치며 하루해 지우던
교향의 강, 그 강이란 말인가

양어장을 돌아 서면 마주서는 발전소
발전소를 지나면 다가서는 양어장
서산에 저녁해 걸렸는데
유원지의 물놀이장에선
아직도 터져 오르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변하였구나
물라보게도 변하였구나
잊지 못할 나날들에 우리 장군님
우리에게 그려 주신 그 밝은 미래가

오늘은 한복의 그림처럼 굽이굽이에 펼쳐 졌거니

오늘의 이 전변을 마련하시려
안개 덮인 이른 새벽에
땀별 쏟아 지는 무더운 한낮에
아버이장군님 찾아 오신 그 사연
못 잊어 오늘도 전하는 물노래 물노래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아직은 크게 알려 지지 않던 이 강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강이 되었구나
그저 소박하고 평범하던 사람들
세상이 다 아는 영웅들로 되었구나

고난을 딛고 승리자로 일떠선
우리 기쁨 떠실은 물노래 물노래는
장군님 다시 모실 그날 그리며
울려 끝 없는 흙모의 노래, 사랑의 노래
장군님 모시여 더 밝은 앞날 안고 사는
감사의 노래 기쁨 넘친 인민의 노래

아, 나를 따라 서며 물이 노래하네
물을 따라 가며 나는 노래에 젖네

오늘도 들려 오는 한나의 메아리

-장편소설 《한나의 메아리》(제1부)를 두고-

리용일

조국통일열망이 더 세차게 더 뜨겁게 끓어 넘치는 분계연선도시에 사는 나의 가슴에 장편소설 《한나의 메아리》(제1부, 양의선)는 류달리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지금도 나의 귀전에는 주인공들인 강규찬, 고진히부부의 목소리가 쟁쟁히 들려 오는듯 싶다.

분열된 이 땅에 메아리치는 그들이 남긴 령혼의 웨침에 귀 기울이면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과 깊은 의미가 담겨 저 있는가.

나의 귀가에 들려 오는것은 주인공부부의 목소리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잊을수 없는 주체89(2000)년 9월 2일 판문점하늘가에 울려 퍼지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의 목소리도 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기는 첫 순간에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만세를 웨치던 그 목소리를 어찌 잊을수 있으랴.

그것은 63명가운데 주인공들과 함께 싸운 전우들이 있을수 있기때문만이 아니다.

강규찬, 고진히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광장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불 같은 지향을 안고 변함없이 싸워 온 신념과 의지의 화신들이거니 소설은 마치도 판문점을 넘어선 부부통일애국투사들을 열싸안은것과 같은 감동과 흥분을 안겨 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화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중요한 주제적과제로 내세워야 한다. ... 작가들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뼘 단단히 하여야 한다.》

소설이 주는 감동을 두고 우리는 수십년동안 남녘의 산야에 묻혀 사라져 가던 통일애국투사들의 심장의 웨침을 생생하게 살려 낸 작가의 진지한 탐구정신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장편소설로는 첫 작품이지만 만만치 않은 실력으로 자기 얼굴을 뚜렷이 보여 준 작가의 창작경험은 60여명이 넘는 비전향장기수 통일애국투사들의 모습을 형상하기 위하여 붓을 달리는 우리 소설가들에게 새로운 자신심과 의욕을 안겨 준다.

×

어떻게 되어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오늘날 독자들의 가슴속에 여운을 남기게 되였는가?

그들의 웨침에는 과연 어떤 강렬한 주장과 열

렬한 호소가 비끼여 있는것인가?

물음을 안고 우리는 소설의 갈피갈피를 뒤져 본다.

해방은 되었어도 조국의 절반땅에 드리운 검은 구름, 분렬의 위기와 식민지영구화의 위협을 가시고저 고향인 제주땅에서 4.3인민봉기의 불길을 지펴 올리고 괴뢰들의 《5. 10단선》 음모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강규찬, 고진히부부를 비롯한 애국적인민들,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신 민주주의적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해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그들의 삶은 얼마나 값 있고 아름다운것인가. 그 삶과 투쟁이 것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것은 주인공들이 조국통일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조국애, 위대한 인간애의 승리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진리로 인식한데 있다. 또한 그들이 인간애로 불 타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바쳐 진 삶이 가장 보람차고 긍지로운것이라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한데 있다.

주인공의 심장의 웨침에서 울려 나오는 조국통일에 대한 관점과 견해문제, 통일위업의 길에 바친 참된 삶에 관한 문제에 작품이 제기한 사상주제적과제의 철학적깊이와 혁신적의의가 있으며 작가의 발견이 있다.

민족최대의 념원인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하나로 합심하고 대단결할 때 실현될수 있다.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밝혀 주는 민족대단결로선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의 빛나는 구현이다.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민족대단결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오시였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거족적운동으로 벌여 지고 있는 조국통일투쟁의 기치로 나뉘는 조국통일3대헌장의 밑바탕에도 수령님의 조국애, 민족애가 맥맥히 굽이치고 있다.

소설에서는 수령님의 인간애로 불 타는 조국통일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 정당성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강규찬, 고진히부부의 구체적인 생활체험과 운명을 통하여 밝히고 있으며 통일애국투사들의 참다운 삶에 관한 사상도 밝히고 있다. 여기에 소설이 제기한 사상주제적과제의 인간학적깊이가 있다.

솔직히 말하여 지난 기간 통일영웅들을 주인공

으로 한 장중편소설들이 적었다. 또 이렇다 하고 이야기할만한 소설들이 거의나 없었다.

지난 시기 소설들에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어버이수령님의 인간애의 철학, 민족대단결의 통일철학의 견지에서 대담하고 발견이 있게 제기하지 못하였다. 분열된 민족의 설움과 고통을 통하여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강조하는데서 그쳤거나 남녘인민들의 투쟁을 체험하는 경우에 공화국복반부를 찬양하고 동경하는 일반적지향을 그리는데 그쳤다. 그러나 장편소설 《한나의 메아리》를 보면서 그 사상주제를 두고 나는 조국통일에 이바지되는 문제를 소설에 의의 있게 내세우기 위하여 사색하고 또 사색하는 작가의 땀 흐르는 얼굴을 본다. 조국통일주제작품창작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정면에서 파고 드는 대담하고 진지한 탐구정신은 소설가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주인공의 목소리에 스며들어 있는 의의 있는 사상주제는 성격에 대한 형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문제성의 탐구, 그것은 곧 인물성격에 대한 탐구이다. 성격형상을 통해서만 문제성이 제기되고 해명된다.

성격형상이 아니라 대화나 심리묘사와 같은 한두대목에서 작가의 의도를 직선적으로 로출시켜서는 문제를 옳게 해명할 수 없다.

장편소설 《한나의 메아리》의 무게 있는 사상주제적파제를 두고 우리는 성격탐구에 바쳐진 작가의 노력을 상상해 보게 된다.

주인공부부의 해방전후의 생활과 가지가지 투쟁자료들, 그 생활소재에서 주인공의 성격적핵, 주도적인 사상정신적지향을 어떻게 잡아 찢었는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그려야 문제해명에 효과적이겠는가?...

이 물음에 대한 작가의 고심어린 대답을 우리는 소설에 형상된 주인공의 모습에서 찾아 보게 된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강규찬을 어버이수령님을 받드는 자기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진심으로 받드는 혁명적량심을 지닌 인간으로 형상하였다.

소설에 취급된 주되는 사건은 해방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제주도인민들의 4.3인민봉기이다.

처음에 이 투쟁의 조직자의 한사람인 강규찬을 무장봉기에로 강력히 추동한것은 자기들이 범한 지난 날의 《파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자각이었고 책임감이었으며 결심이었다.

작가는 그 《파오》에서 강규찬의 참된 량심으로 빛나는 사상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의 주요특질로 형상하였다.

그가 자기들의 《파오》라고 생각하는것은 어떤

것인가?

소설에서 강규찬은 무장투쟁을 준비하면서 적들속에 침투한 리승진에게 조성된 정세를 알려주면서 이런 말을 한다.

《우린 왜 장군님께서 총공격명령을 내리셨을 때 무장항쟁으로 호응해 나서지 못했단가! 우리들이 제 구실을 똑바로 못했소.》

백두산이 해방성전의 전민항쟁을 호소했을 때 한나산이 화답하여 메아리치지 못한것을 자기들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강규찬이었다.

그 사실이 늘 강규찬의 가슴속에 《파오》로 맺혀있는 괴로움이었으며 고충이기도 하였다.

사실 강규찬은 해방전에 왜놈경찰을 다섯이나 까둑히고 일본땅에 건너 가서 방직회사로동자들의 파업을 주도하였으며 여러번 감옥신세를 졌으나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그후에도 여러해동안 고향땅에 조직을 꾸리고 투쟁해 왔지만 자기가 벌려온 투쟁의 제한성을 찾아 보며 보다 높은 투쟁으로 더욱 분발하는 강규찬의 자기에 대한 요구성은 얼마나 높은것인가.

그 요구성은 혁명적량심에서 흘러 나오는것이 다.

누구도 그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못을 따지지 않았건만 스스로 자책하는 그를 두고 우리는 혁명전사의 티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혁명적량심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그가 지닌 혁명적량심에 대하여 보다 인상 깊게 느낄수 있는것은 도당집행위원회에서 취하는 강규찬의 립장이다.

회의에서 강규찬은 무장항쟁보다 정치투쟁을 주장하는 오대건위원장과의 론쟁을 아귀 짓지 못한데 대하여 안타까와 하면서 자기들의 파오때문에 오늘의 엄혹한 현실이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잘못은 그 어떤 조건과 구실로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두번다시 파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하는 강규찬이다. 그는 론쟁만 하는것도 사업상 파오를 벗어 난 반역의 죄악과 같은것이라고 하면서 오대건과 단호히 결별한다.

엄혹한 현실도 저들의 잘못에서 찾아 보는 그의 날카로운 분석, 저지른 잘못에 대한 무자비하고 신랄한 자기비판,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를 사소한 동요나 양보, 조건타발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려는 결단성 있는 행동, 이는 어버이수령님을 받들어 가는 혁명전사의 무한히 성실하고 깨끗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변심 없는 량심의 진가와 그것이 낳은 확고하고 견결한 투쟁각오와 의지의 세계를 느끼게 한다.

그처럼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는 스스로 사선을 헤치고 인구 몇이 안되는 마라도에까지 건너 가서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선거표를 받아오기 위해 노력하는것이며 위험이 닥쳐왔을 때에도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변함없이 지켜내는것이 아닌가.

소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의 높은 뜻을 받들어 싸워 가는 강규찬의 생활과 투쟁의 밑바닥에는 혁명적량심으로 불 타는 충성심이 굽이치고 있다.

때문에 4. 3인민봉기의 총소리는 독자들로 하여금 백두의 웨침에 화답하는 하나의 메아리로 의미심장하게 새겨 보게 한다.

독자들의 눈앞에 주인공 강규찬은 바다보다 넓고 깊은 어버이수령님의 민족애, 인간애의 위대한 사상을 생활의 진리로 신념으로 받들어 가는 통일애국투사의 모습으로 떠오른다.

주인공의 이 성격적특징을 옹계 형상할수 있는 것은 그의 남다른 체험세계를 진실하게 그렸기때문이다.

소설에서는 인간적측면에서 나타난 편협하고 일면적이고 무뚝뚝한 그의 성격적약점도 감추지 않았다. 약점은 단순히 강직하고 날카로우며 결단성있는 기질에서 생겨 난것이 아니었다.

자기 안해의 남편에 대한 사랑, 어린 지식에 대한 모성애를 모두 가정의 울타리에 가두어 두려는 신념밖의 나약한 감정으로 생각하는것은 원쑤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할 처지로부터만 생겨 난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보다는 증오, 이해와 너그러움보다는 복수의 감정과 투쟁신념을 버리는것이 혁명가의 참된 인생관이라는 그릇된 관점에서 생겨 난것이다.

강규찬은 죽은 안해를 못 잊어 하며 무덤가에 생전에 그가 좋아 하던 빨간 동백꽃송이를 가져다 놓는가 하면 옷가지 하나를 두고도 어린 자식들을 생각한다.

사랑하면서도 멀리 하려 애 쓰고 송고한 그 감정을 속된것으로 여기려 하면서도 거기에 빠져 들어 가는 강규찬.

확실히 그의 사랑관, 인생관은 모순적인것이였다. 모순속에서 방황하는것으로 하여 그가 생활에서 겪는 고통과 피로움은 그만큼 크고 심각한 것이였다.

강규찬은 4. 3인민봉기의 불길을 지펴 올리기 위해 얼마나 값 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었던가.

그러나 놈들은 《5. 10단선》을 강행하여 괴뢰정부를 세웠으며 《국회》를 열어 《국군》창립을 기념한다고 떠드는것이다. 이 현실을 두고 의기소침한 대원들을 대할 때 강규찬이 고통과 피로움에 잠긴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어떤 지엽적인 문제나 전술실무적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강규찬이 죽음을 각오한 희생성의 웨침만으로는 사람들을 끌고 갈수 없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다.

파연 사람들을 이끌어 갈 지향과 원리적인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물음을 두고 사랑을 애 써 묻어 두고 평생 원쑤에 대한 증오심에 기초하여 굳힌 자기의 희

생성과 투지를 두고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감정에 잠기는 그였다. 좀해서 제한일에 후회를 하지 않고 옳다고 결심한 일이면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강직한 강규찬의 자기 인생관, 투쟁관에 대한 중요였기에 고충은 자못 심각한것이였다.

심각한 고민과 모대김이 있었던 그였기에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고 조국애, 민족애, 인간존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야 한다는 위대한 사상을 받아 안았을 때 그의 충격과 감동은 그토록 열렬하고 폭 넓고 깊이 있는것으로 될수 있었다.

만일 그의 심리적고충을 지금처럼 깊이 있게 파고 들지 못했더라면 그의 인생관의 전환적계기를 감동적으로 그려 낼수 없었을것이다.

이상과 같이 소설에서는 주인공 강규찬을 인간 사랑, 인간존엄에 기초한 조국통일사상을 삶과 투쟁의 진리로 받들어 가는 인물로 형상하였다.

주인공의 형상은 소설의 주제해명에 힘있게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문단에 새롭게 피여 난 인간의 전형으로 된다.

작가는 강규찬의 안해 고진희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성격도 새롭게 탐구하여 작품의 사상주제를 깊이 해명하였다.

고진희는 무쇠 같은 심장을 안고 있는 남편과 달리 뜨거운 사랑을 안고 있다. 사랑과 인정을 떠나서는 그 어떤 성스러운 사업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그의 드립 없는 립장이였다.

그가 사람을 물어 두고 증오만을 키워 가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랑에 불 타는 고진희의 심장은 어떻게 고통치는가?

《국방경비대》련대장 김의렬의 본색을 옹계 보지 못하고 그에게 무기가 보관된곳을 가리켜 주는가 하면 마을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부선회네 집대문에 붙은 반미배라를 제손으로 떼내어 적들의 선전에 리용되기도 하는 고진희였다.

이는 계급적각성이 없이 인정을 베풀 때 돌이킬수없이 엄중한 후과를 빚어 낼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이던 그의 심장은 동생의 무참한 죽음을 가져 온 엄혹한 현실에서 찾은 투쟁의 길에서 새롭게 고통치기 시작하였다.

그는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의 성원이 되여 **《5. 10단선》** 반대투쟁과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한 길에서 한몸 바쳐 싸운다.

사형장에 나선 남편의 모습을 눈앞에 두고도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 서서 투쟁의 길을 떠나며 마라도까지 건너 가 남편이 못한 일을 이악하게 해내는 고진희, 선거함을 안고 초인간적힘으로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넘어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기는 그는 결코 어제날의 고진희가 아니었다.

그의 성격은 인간이 참된 사랑을 지닐 때 상상할수없이 큰 일을 해낼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꼭질 많은 생활의 길을 통하여 삶을 빚내어 주는 값 높은 인정과 사랑은 어버이수령님의 인간애로 불 타는 조국통일사상을 받들어 가는 길에서만 찾을수 있다는것을 깨닫는 고진히.

인상 깊은 그의 성격은 강규찬의 성격장성과정을 뚜렷이 특징 지어 주면서도 남편의 성격을 깊이 있고 풍부하게 보여 주는데 복종되었다.

사랑으로 불 타는 심장으로 자주적인 삶의 길을 열어 가는 그의 성격은 증오로 다져 진 심장으로 새삶의 길을 찾는 강규찬이와 대조되는 성격으로써 두 인물의 성격적특징이 두드러지게 하였다.

고진히는 조국통일주제의 우리 소설문단에서 새롭게 보게 되는 이채로운 형상이다.

그외에도 작품에서는 젊은 투사들인 인민유격대장 리승진, 고충호들의 성격적개성도 주인공의 성격형상에 효과적으로 복종되게 하였다.

강규찬의 무장봉기로선을 지지하면서도 봉기로 하여 치르게 될 피의 대가를 두고 우려하는가 하면 안해를 멀리 하는 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리념적으로는 옳지만 인간성이 부족한 그의 모순적인 생각을 통일시킬 방도를 두고 고민하는 리승진, 민감하고 진취적이며 명석한 판단력을 가진 그의 형상은 강규찬의 인생관의 부족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보여 주면서 진정한 삶과 투쟁의 길을 모색하는 그들의 준비정도를 진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인민유격대 신문발행자로 맹활약을 하는 고진히의 동생 고충호의 형상은 증오로 굳힌 투쟁인념을 간직해 가는 강규찬의 사상적립장에 객관적 타당성을 줌으로써 성격형상에 진실감을 주는데 이바지되었다.

작가는 부정인물성격도 작품의 사상주제해명에 효과적으로 이바지될수 있도록 형상하였다.

제주도의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야만적만행을 일삼는 미경찰교문 캣트릿치나 그 앞잡이들의 형상은 우리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의 화근, 민족분열의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대답을 주고 있다.

감찰과장 리명철이 강규찬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리용하여 그를 체포하려 한다. 부선화의 사랑을 룡락하려는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한 그 성격은 강규찬이들이 지닌 인간애, 조국애의 감정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인가를 반증해 주고 있다.

부정인물형상에서 강조하게 되는것은 《국방경비대》련대장인 김의렬의 성격이다. 제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리념을 지니고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미국놈들의 강요로 고향사람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는 그의 성격은 숭미사대주의에 물젖으면 참다운 조국애, 민족애를 지닐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는 조국통일주제의 소설문학에서 현실적의의

가 있는 새롭게 발견된 성격이다.

김의렬의 형상은 강규찬이 지닌 조국애야말로 민족자주정신이 넘치는 진정한 조국애, 민족애라는 사상을 뚜렷이 반증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소설에서는 새로운 인물성격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사상주제적과제를 의의 있게 해명함으로써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였다.

이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작가가 높은 사상미학적안목을 가지고 주인공을 비롯한 각이한 작중인물들의 성격을 폭 넓고 깊이있게 파고 들 때에만 가능한것이다.

주인공의 웨침에서 뜨거운 열기와 생신한 호흡이 안겨 오는것은 무게 있게 사상주제적과제를 해명할수 있도록 형상수단들을 새롭게 활용한데 그 요인의 하나가 있다.

이 소설에서는 인간관계를 특색 있게 형상하였다. 흔히 착취사회에서 투쟁하는 주인공들을 형상한 작품들에서는 공부정인물사이의 갈등관계를 기본인물관계로 하면서 긍정인물사이의 비적대적갈등관계를 그리지 않거나 그리는 경우에도 미미하게 취급하는것이 보통이었다.

이 작품에서는 공부정인물사이의 적대적관계를 그리면서도 긍정인물사이에 준비정도의 차이에서 생기는 의견상이와 충돌을 감추지 않고 진지하게 그려 내었다.

증오와 투쟁의 신념만을 간직해 가는 강규찬이와 그를 리해 못하는 안해와의 관계도 오해하고 불신하며 충돌하는것으로 형상하였다.

강규찬과 리승진이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의견상이도 그렇지만 오대건과의 관계도 의견이 대립되고 일시적이거나 서로 배척하고 결렬되는것으로 형상하였다.

고진히오누이의 관계에서도 강규찬을 서로 다르게 리해하는것으로 하여 생기는 의견상이를 그렸다.

혈육들사이, 동지들관계에 생기는 오해와 불신, 배척과 결렬, 이것은 외세에 의한 분렬로부터 생겨 나기 시작한 민족의 불행과 고통의 축소판이기도 한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탐구하여 생활의 진실을 보장하였으며 복잡한 인간관계가 어버이수령님의 인간사랑의 리념밑에 조국통일을 위해 싸워 나가는 길에서 비로소 해결되는것으로 형상함으로써 그것이 위대한 조국통일사상의 진리성, 정당성을 보여 주는데 이바지되게 하였다.

특색 있는 형상수단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작가가 각별히 관심을 돌렸다고 생각되는 사건줄거리조직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수 없다.

세월이 수십년 흘러 간데다 민족분렬로 인해 체험자들이 거의 없거나 그들을 만나볼수 없는 사정으로 하여 대부분 력사기록이나 단편적인 생활자료로만 전해 지는 통일애국렬사들의 모습을 새 세대들의 눈길과 눈길, 심장의 박동과 숨결로

이어 주기 위하여서는 어느 장편소설들에서 흔히 하는대로 사건을 조직할수 없었다.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형식을 찾기 위한 탐구가 있어야 하였다.

이 소설에는 크게 두개의 사건선이 뻗어 나갔다.

첫번째는 남조선출신의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인 최준오가 4.3인민봉기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애인을 찾는 현재 생활이 펼쳐 지는 사건선이다.

두번째는 강규찬부부의 성장과정을 기본으로 한 제주도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사실이 펼쳐 지는 사건선이다.

시간상으로나 내용에서 서로 다른 두 사건선은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뻗어 가고 발전하고 교차되면서 통일애국투사들의 모습을 감동 깊게 형상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작품의 사상주제를 깊이 있게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조직으로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이 가지는 역사적의의와 교훈을 오늘의 각도에서 밝혀낼수 있었다.

생략과 비약, 함축을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생활을 립체적으로 형상하면서도 사건진전의 속도감을 보장하여 형상에서 현대감을 낼수 있었다.

제주도를 밟아 보지 못했지만 구수한 향토적정서가 안겨 오게 한 자연과 생활세대적인 묘사들은 작가의 묘사정신이 얼마나 높은가를 말해 주고 있다.

주인공 강규찬이 고진히와의 결혼 첫날밤, 한나산기슭을 오르며 지난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새롭게 투쟁각오를 가다듬는 내면세계를 보여 주는 대목, 투쟁의 한길에서 만난 안해와 함께 통일된 제주도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앞날을 이야기하며 행복에 잠겨 있는 장면을 비롯하여 소설의 적지 않은 생활사실들이 시적환상과 랑만으로 충만된 묘사로 하여 마치도 소설이 아니라 시를 읽는듯한 감을 주기도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장편소설 《한나의 메아리》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성격들을 새롭게 탐구하고 형상수단들을 특색 있게 활용하여 사상주

제를 깊이 있게 해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웨침, 한나의 메아리를 오늘도 여운을 남기는 메아리로 가슴 뜨겁게 안아 보게 한다.

그 웨침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싸워 나갈 불 타는 결의를 가다듬게 한다.

사상예술적성공과로 하여 장편소설은 조국통일주체의 성과작으로 우리 문단에서 웅당한 자리를 차지한다.

작가의 창작경험은 오늘 비전향장기수 통일영웅들의 형상을 위한 작가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소설의 긍정적성공과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형상의 진실성보장에서 욕심을 보태지 않을수 없다.

다리병신으로 짝다리를 한 강규찬의 아들이 혼자서 무기를 가진 반동놈들을 때려 눕히는 장면, 아들이 사형장에서 아버지인 강규찬을 몸으로 막아 구원하는 사실, 제주도해녀인 서홍란이 팻트릿치놈을 어두운 밤중에 바다로 유인하여 수장시키는 사실들이 독자들에게 믿음이 가게 형상되지 못하였다.

비진실하게 형상된 탐정소설 같은 감을 주는 사건들, 랑만주의소설의 한대목을 련상케 하는 장면들은 작가가 작품의 흥미를 보장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생활의 진실을 떠난데서 나타난 부족점이라고 생각된다.

소설에서 결함은 극히 부분적이며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소설의 성과를 두고 독자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앞으로 나올 작품의 2부에 대한 우리의 기대림과 확신과 기대는 각별한것이다.

한나산기슭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질 주인공부부의 웨침은 보다 절절하고 생생하게 울려 나올것이다! 그 웨침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성큼 큰 걸음을 내딛게 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

가사

양어공처녀

김봉문

산골짜 작은 마을 양어공처녀
가슴속에 노래를 안고 산다네
이른 아침 물 갈 때도 랄랄라라라
먹이를 주면서도 랄랄라라라

식술 많은 어머니 그 마음처럼
물고기를 돌보는 기특한 처녀

사랑도 여기 두고 랄랄라라라
포부도 여기 두고 랄랄라라라

장군님 오실 날만 손 꼽아 보며
일숨쉴 알뜰살뜰 소문난 처녀
래일을 그려 보며 랄랄라라라
그날을 앞당기며 랄랄라라라

영원히 설레여라 비슬나무여

-평천혁명사적지에는 비슬나무가 서 있다-

김순화

8월의 땀별에 잎새를 흔들며
유정히 설레이는 비슬나무여
이 땅을 불 태우던 포화도
몰아 치던 눈바람도
자랑 높은 너의 기상 꺾지를 못했어라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안고 오신
행복의 요람 지켜 주시려
첫 기관단총 사격터에서
해방된 조국의 하늘가에
수령님 올리신 그날의 총성
너의 풍만한 가지와 잎새에 품어 안고
오늘도 내 귀가에 울려 주고 있구나

너는 보았으리 비슬나무여
한자루의 총을 위해
두만강물결에 피를 뿌리며
-동지들 이 총을 받아 주
총을 위해 목숨 바친 투사의 피 라는 그 웨침
다시금 마음속에 들으시며
눈시울 적시시던
수령님의 숭고하신 그 모습

그날에 올리신 수령님의 그 총성은

승리의 메아리로 이 땅에 울려 갔어라
전승의 환희로운 축포소리
정다웁던 배움의 종소리
자동화의 기계소리 천리마의 발굽소리를 다 안고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음을 선포한
명중탄의 퇴성이 터져 오를 때
천만 잎새 흔들며
감격에 설레이던 비슬나무여

너는 가지마다 싱싱히 오른 봄물처럼
오늘도 이 가슴에 력력히 새겨 주누나
내 조국의 총대의 력사는
수령님 인민 위해 바치신 한생
그 력사우에 행복이 꽃 피고
부강조국의 반석 같은 터전이 다져 졌음을

오, 위대한 력사의 증견자
사적지의 비슬나무여
새 세기의 하늘가에
그날의 총성 길이 전하며
천만년 푸르려 설레여라
영원한 태양이 빛나는 이 땅에

동해기슭에 소금꽃 피오

서진병

꽃이 피오
소금꽃 피오
물안개 피여 나는 염판마다
동해물이 흘러 들어
꽃으로 피오

바람이 피웠겠소
땀별이 피웠겠소
산너머 들 지나
서해물에서만 피우던 꽃
동해물도 꽃이 피는
새 기쁨 안고 웃소

한번 해볼만한 일이라고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떠밀어 주신 그 믿음이
피운 꽃이래오
이끌어 주신 그 사랑에
활짝 웃는 꽃이래오

소금꽃 향기 없다 말하지 마오
통강냉이 씹으면서도
장군님 가리키신 래일을 그려
고난을 웃으며 헤쳐 온 우리 마음
향기로 넘친 꽃이래오

눈처럼 희다고만 말하지 마오
 시련이 겹쳐 들수록
 고난의 천리를 행복의 만리로 이어
 더 높이 추켜 들었던 붉은기
 그 붉은 빛이
 이 꽃에 어려 있소

바다를 막고
 갈뿌리 들어 내던
 우리의 땀처럼 짜고
 무거운 감탕짐에 어깨가 피멍저도

머리 높이 들고 눈앞에 그려 보던
 우리의 미래처럼 달디 단 이 소금꽃

꽃이 피오
 우리 장군님 앞서 걸으신
 《고난의 행군》 길에 승리로 피여 난
 동해의 소금꽃이
 여기 광명성제염소에
 피어서 천년미래와 마주 웃소
 피어서 우리의 행복으로 반짝이오

자료

세기의 교차점에 다시금 나타난 《빠벨 꼬르차긴》

중국공산당 심전시당위원회 선전부의 제기로 중국에서 20부작 텔레비존런속극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가 제작방영되었다.

이 텔레비존런속극에 대한 촬영의견이 제기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세기가 교차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가 무슨 의의를 가지는가?》, 《오늘의 관중이 빠벨에게 다시금 흥미를 가지겠는가?》고 하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국중앙텔레비존과 중국국제텔레비존 총공사, 심전시당 선전부는 다음과 같은 공동의 견해를 가지고 제작을 추진시켰다.

《소설의 생명력은 언어의 아름다움과 구성의 기교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진실을 기록해야만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있고 정신적량식으로 될수 있다. 이 소설에 포괄되어 있는 혁명적리상주의, 영웅주의, 애국주의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을것이며 사회주의인정미와 인도주의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계속 감흥을 줄것이다.》

제작단은 빠벨의 이야기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시대에 사는 독자들에게 펼쳐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작을 개작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그들은 중국의 이름 있는 작가들을 초청하여 텔레비존문학을 새로 개작하였다.

작가들은 《폭풍우의 아들딸》, 《오스트롭스끼 시선집》, 오스트롭스끼부인의 회상록 등을 참고로 하여 8개월만에 초고를 끝냈다.

그리고 주인공으로 출현하게 될 우크라이나배우의 의견도 적극 받아 들인 다음 로씨야의 저명

한 작가인 알레크와 우크라이나국가텔레비존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재차 가공윤색하였다.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새 시대의 정신이 충분히 반영된 개작본을 준비한후 제작단은 국가의 지지와 투자밑에 텔레비존극을 완성하였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는 중앙텔레비존 통로로 시청률이 제일 높은 저녁시간에 방영되었으며 그후 심전텔레비존통로로 하루에 2부씩 방영되었다.

방영후 굉장한 반향이 일어 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빠벨》이 올랐으며 인생관과 가치관에 대한 론쟁이 가는 곳마다에서 벌어 졌다.

또한 이 텔레비존극은 전국이래 시청률이 제일 높은 6대 텔레비존극의 하나로 되었다.

특히 개혁개방의 일선지역이고 시장경제가 발전한 심전특구에서의 반향은 더욱 컸다.

다른 나라와 홍콩, 대만의 문화적영향을 많이 받는 이곳의 청소년들에게 이 텔레비존극은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주인공 빠벨역을 한 우크라이나배우가 심전을 방문하였을 때 심전의 청소년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빠벨》과 기념촬영을 하고 그에게서 《빠벨》의 기념수표를 받았다.

교원들도 학생들에게 빠벨을 숭배하여야 한다고 교양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심전시당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리소감은 빠벨이 지니고 있는 건인불발의 정신과 돌격정신을 심전이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끌려 드는 맛과 소설의 여운

리영순

끌려 드는 맛이 있는 작품은 메아리도 큰 법이다.

단편소설들인 《한 분조장의 수기》(변창률, 《조선문학》, 주체90년 1호)와 《버드나무》(리영환, 《조선문학》, 주체90년 2호)를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끌려 드는 맛이란 소설이 독자들을 끌어 당기는 매력이고 메아리란 소설이 독자들에게 주는 사상정서적 충격과 여운일 것이다.

《한 분조장의 수기》와 《버드나무》는 확실히 독자들을 끌어 당기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의 이야기는 재미가 있어야 하고 끌려 들어 가는 맛이 있어야 한다.》

소설은 이야기문학이므로 재미가 있어야 하며 끌려 들어 가는 맛이 있어야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이 소설들이 독자들을 끌어 당기는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그 어떤 과장이나 외곡도 없이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작품은 다같이 오늘의 우리 농촌생활을 그리고 있다.

작품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생활형편과 그들의 정신세계, 지향, 심리가 매우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되고 있다.

단편소설 《한 분조장의 수기》에서는 새로 분조장으로 선거된(20명 찬성, 5명 반대로) 창훈이가 자기가 분조장으로 선거되는 것을 반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5명(채흥기-별명 《드덜기》, 김숙희-별명 《자투리》, 주봉실-별명 《조절위원회》, 김송이-진출자치녀, 차영세-전분조장)이 자기를 분조장으로 선거하는데 쌍수를 들어 찬성한 인물들이며 진실하고 참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가 반대파로 지목하고 있던 인물들은 모두 지난 시기(분조장으로 선거되기 전) 창훈이와 이러한 관계로 《어서》 있던 사람들이었다.

특히 채흥기 아버지는 오래전에 분조장을 하던 리정직(창훈의 아버지)의 아들답지 못하다고 항상 《트집》을 걸어 자기의 결함만 들추려 한 사람이라고 창훈은 생각하였었다. 또한 창훈은 김숙희 아주머니는 물관리를 책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물관리공을 스스로 맡아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으로 하여, 주봉실은 예상수확고판정성원들과 《사업》하여 예산수확고를 낮추 잡아 놓았으므로 원칙적인 말을 한 것 때문에 어성버성한 관계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송이는 진거름을 도시에서 날라 오는 것이 창피하여 삼촌에게 부탁하여 비료 5t을 비법적으로 《사업》해 온 것을 두고 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로서의 권한으로 비판을 준 것으로 하여 창훈이와 《좋지 못한》 관계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창훈은 바로 그들이 자기를 반대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었다. 그러나 실지 그를 지지하지 않은 것은 어딘가 대가 있고 원칙이 있어 보이는 창훈이가 분조장이 되면 《인정》 많은 지금의 분조장보다 불리해 질 것으로 타산한, 《5개월 유급로력》으로 되어 있는 약삭바른 산전산후휴가대상의 젊은 아낙네들이었다.

이 소설에서 보게 되는 이러한 개성적인 인물들은 우리 나라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이며 우리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짐작되고 주목되는 인물들이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속에 함께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인물들을 설정하고 그들의 심리를 그린 것으로 하여 소설은 폐지를 먼저 갈수록 흥미가 느껴지고 작품의 세계에 끌려 들게 된다.

단편소설 《버드나무》는 같은 농촌생활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있다.

평양에서 나서 자라나 언젠가는 꼭 작곡가로 되려는 꿈을 안고 건설사업소에 진출한 일홍이, 그런 그는 제대되어 자진하여 고향농촌으로 내려가는 아버지를 따라 또다시 농촌에 내려와 농장원이 된다. 그의 마음속 번뇌가 일어 난다. 예술은 《수도예술》로만 생각해 온 일홍의 마음은 언제나 평양과 예술무대에만 가 있다.

리당비서 진득현이 일홍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를 이끌어 준다. 손퐁금재주가 알려 저 일홍의 인기는 올라 가며 리당비서의 딸 상금이와도 가까이 지내면서 농촌생활에 취미를 붙인다. 그러나 작곡가가 되기 위해 대학으로 가려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던 그는 리당비서가 나이가 많아 양어장에 옮겨 앉게 되자 자기의 대학추천이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군문화회관으로 갈 것을 결심한다.

그러나 진득현이 그 길을 막아 나선다. 또 그가 애 써 창작한 노래 《양어장의 달밤》도 불합격된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앞길을 막아 나선 진득현에 대하여 오해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위해 집에서 키운 돼지를 팔아 손퐁금을 마련해 준 리당비서의 진정에 대해,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발버연구에 한생을 바치는 유명학연구사의 딸, 엄마 잃은 상금이를 자기의 친딸처럼 키워 준 진득현의 인간됨에 대해 알게 된다. 그때야 그는 비로소 지각이 든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진득현리당비서, 상금의 아버지 유명학, 상금이... 그리고 진창에 빠진 달구지를 꺼내주고 이름도 알리지 않고 웃으며 가버린 두 군인동무,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도 곳곳이 양어장을 파고 풀판을 늘여 나가는 농민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속에서 살고 있는것인가. 일홍이는 인간과 시대를 알게 된다. 그것을 곡상으로 무르익혀 《양어장의 달밤》을 완성한다. 그것이 문제작으로 평가되어 그는 도음악가동맹에 소환된다.

새 생활은 더욱 아름답게 펼쳐 진다. 새 노래는 끊임없이 탄생한다. 양어장의 버드나무는 자기를 키워 준 어머니대지에 큰 절을 드리려는듯 더 깊숙이 머리를 숙인다.

소설에 등장하는 일홍이 아버지나 리당비서, 유명학연구사는 결코 리상화되어 있지는 않다. 일홍이와 상금이는 대조되는 인물이지만 우리 새 세대 청년들속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이다.

일홍이의 달구지를 건져 주고 흙 묻은 군복처럼 그대로 싱긋이 웃고 사라지는 군인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낯 설지 않다.

소설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 인민들이 겪었던 식량난, 전기사정도 그대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도 그대로 형상하였다.

두 작품은 이처럼 오늘의 우리의 생활, 우리 주변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정신세계와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펼쳐면서 본질적인 생활을 주리며 형상해 낸것으로 하여 작품의 세계에 끌려 들게 하였다.

독자들을 끌어 당기는 이 작품들의 매력은 그려진 생활이 우리 생활과 같을뿐아니라 뒤생활을 예측할수 없게 이야기를 잘 꾸며 나간데 있다.

《한 분조장의 수기》를 읽어 내려 가느라만 자기를 분조장으로 선거하는데 반대한 5명을 교양하는 이야기로 전개될것 같으나 작가는 독자들의 예상을 뒤집어서 주인공이 자기의 《반대파》로 생각하였던 인물들에게서 자책을 받는 이야기로 끌고 나갔다. 이것은 독자들의 흥미를 끌지 않을수 없었다.

《버드나무》에서도 독자들은 상금이가 리당비서 딸의 티를 조금도 내지 않으므로 대학을 추천받고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촌을 지키자고(흔히

쓰는 방법대로) 남았으며 일홍이를 돌려 세우는 데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되리라고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종래의 도식화된 형상의 틀을 깨고 상금이는 아버지(리당비서)의 병때문에 대학에 가는것을 단념한, 부모에 대한 정성이 지극한 처녀로, 일홍이를 뿌리 내리게 하는데는 방계적인 인물로 형상하였으며 특히는 리당비서의 친딸이 아닌 인물로 형상하였다. 즉 상금이는 진득현의 성격을 부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인물로 형상하였다. 그리고 일홍이도 종전 소설에서처럼 형상한다면 농촌에 영원히 뿌리 내려 상금이와 가정을 이루는 인물로 될것 같지만 리당비서에 의하여 참된 인간으로 키워 저 희망하던 작곡가로 되어 자기의 념원이 이루어 지는것으로 형상하였다.

이처럼 독자들의 예상을 뒤집어 놓은것으로 하여 극성은 강해 졌으며 그러한 극성이 독자들을 끌어 당기었던것이다.

이 소설들이 독자들을 끌어 당긴 매력은 생활세부의 탐구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단편소설 《버드나무》보다 《한 분조장의 수기》에 생활세부가 더 많이 설정되고 있다.

《닭은 고개》 전설에 깃든 이야기, 《드덜기》, 《자투리》, 《조절위원회》, 《주길손필지》 등 농장원들의 별명, 지명의 유래와 관련된 세부들은 농촌생활을 매우 재미 있게 감수할수 있게 하고 있다. 《버드나무》에는 시대를 비껴 담은 세부가 들어 있다.

일홍이가 어수선한 마음을 안고 물고기먹이가 공에 필요한 닭똥을 달구지에 싣고 오다가 진창에 빠져 애를 먹을 때 두 군인동무가 그것을 건져 주고 말없이 돌아 가는 세부이다. 이 세부는 우리 사회에 꽃 피는 군민관계를 잘 그려 낸 한쪽의 그림처럼 현실을 생동하게 감수하도록 하여 준다.

《버드나무》에는 이밖에도 심리와 성격을 보여 주는데 이바지하는 기름진 세부들이 여러군데 삽입되었다. 이러한 세부들은 독자들이 세부에 담긴 의미를 새겨 보면서 작품의 세계에 심취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 분조장의 수기》와 《버드나무》는 수기체와 일기체 형식의 탐구, 단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소재물들을 달고 주인공의 성격해명으로 이야기를 몰아 간 (《한 분조장의 수기》) 구성의 묘리, 시종일관 감정조직으로 주인공의 심리정서적변화를 잘 보여준 (《버드나무》) 치밀한 감정조직, 간명하면서도 생동한 심리묘사, 농촌생활에 어울리는 언어구사로 하여 독자들을 작품의 세계에 끌어 당기게 하였다.

통털어 이 작품들은 전형창조의 수법에서나 구성형식, 소설형식의 리용에서도 종래의 도식적인 틀을 깨버림으로써 참신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독자들을 매혹시켰던것이다.

끌려 드는 맛이 있는 소설은 그만큼 메아리도 큰 법이다. 작품의 세계에 침취되면 사상정서적 감흥도 커지기마련이다.

그러면 이 작품들이 주는 사상정서적충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가 얼마나 비상이 높아지고 아름다와 졌는가 하는것이다.

《한 분조장의 수기》에서 우리는 나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꼭 같은 창훈이, 채흥기, 김숙희, 주봉실, 김송이를 통하여 자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 쓰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무성한 사회주의의 푸른 숲을 더 푸르게 할수 있는 참된 인간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에서 울려 나오는 메아린것이다.

《버드나무》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난의 행군》시기 눈에 잘 띄이지는 않았으나 이 땅을 기쁨지게 한 참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일흥이와 나는 무엇이 같았고 무엇이 다른가. 《드덜기》와 《자투리》, 주봉실아주머니와 김송이, 차영세와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는가. 진득현, 유명학연구사와는...

소설들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질문이 메아리로 독자들의 가슴에 광광 울려 온다.

이 소설들에서 울리는 메아리는 그뿐이 아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어떤 정신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라. 그래야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실현할수 있고 강성대국에서 살수 있다. 이런 메아리로 울려 온다.

물론 두 작품에는 군대생활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또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아 나가자는 요구도 작품들에서 직접 제기되지 않았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아 나가야 한다는 충격은 일흥이가 체험한 인민군군인들의 고상한 모습(《버드나무》), 물길공사를 해체끼던 군인들의 모습과 자기들의 일본새를 비추어 보는 창훈이의 심리(《한 분조장의 수기》)의 굴절을 통하여 안겨 온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이 작품들은 선군혁명의 시대적요구를 우리의 소설문학에 어떻게 구현할것인가를 시사해 주는것으로 된다.

소설에 끌려 드는 맛과 메아리, 이것은 결국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철학성에 관한 문제이다.

문학작품의 철학성은 철학적인 내용을 취급하였다고 생겨 나는것도 아니며 철학적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여 보장되는것도 아니다.

문학작품의 철학성이 생활을 얼마나 진실하게 반영하는가 하는데 따라 보장된다는것은 이미 오래전에 주체적문제론이 밝힌 창작원리이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자면 생활체험이 깊어야 한다.

이 작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작가들이 농촌생활을 매우 깊이 있게 체험하였으며 그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소설작품들에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서 흔히 보게 되는 인간들과 그 생활을 방불하게 그려낸데 있다.

작가들의 진지한 생활체험이 독자들을 작품의 세계에 끌어 당기게 하고 커다란 사상정서적충격을 안겨 줄수 있었다.

단편소설 《한 분조장의 수기》와 《버드나무》의 창작경험은 작가들이 생활체험을 깊이 있게 하고 개성적인 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늘 사고하며 대담하게 붓을 들면 평범한 생활속에서도 메아리가 큰 작품의 소재를 찾아 낼수 있으며 구태의연한 형상수법의 틀을 깨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생신한 작품을 창작해 낼수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명언해설

《형상의 뜻을 입지 못한 사상은 문학을 죽음으로 이끌 따름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에는 형상적 형식을 통하여 생동한 현실을 옹계 반영하고 심오한 사상을 뚜렷이 밝혀 내는것이 문학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형상을 떠난 문학이란 있을수 없다. 문학은 형상이 있음으로 하여 예술성을 가지며 사회적의식의 다른 형태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형상이 없는 문학은 문학이 아니다. 문학작품에서 아무리 의의 있는 사상을 밝히려고 하여도 그 사상이 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고 진실하게 표현되지

못하면 그러한 문학작품은 자기의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문학에 사상성만 있고 예술성이 없으면

그것은 벌거벗은 알몸종이와 같다. 이것은 곧 문학의 죽음을 의미한다. 의의 있는 사상에 예술적형상의 옷을 잘 입히는 바로 여기에 문학창작의 묘술이 있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 비결이 있다. 문학작품은 생동하고 진실한 형상속에 의의 있는 사상을 밝혀 내야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옹계 결합시킬수 있고 작품의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높일수 있다.

푸른 하늘

윤경수

1

일정대로 지하철도를 참관하고 호텔로 돌아 온 재미교포 오상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호실에서 혼자 록화기를 보면서 기다리겠다고 한 손자애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텅 빈 방안에는 무수한 점들이 란무하는 텔레비존의 가쁜 숨소리만이 췌췌 울리고 있었다.

오상주는 급히 신발장을 열어 보았다. 아이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얼핏 머리에 떠오른 것이 있어 러행용트렁크를 살펴 보았다. 자물쇠는 채운대로 있었으며 손을 댄 흔적도 없었다.

이 애가 어디로 갔을까?

오상주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우뚝 굳어졌다.

안내를 맡은 김영섭이 뒤따라 방에 들어 왔다.

그도 뜻밖의 사태앞에 눈이 커졌다.

《그것 참 이상하군요. 오선생, 뭔가 속에 짊어지는 일이 없습니까?》

오상주는 생각에 잠겼다.

생존경쟁속에서 한생을 보낸 그는 올해 74살이다. 성긴 머리는 백발에 가깝고 기름한 얼굴에는 검버섯이 돋았으며 몸은 강대처럼 가늘다. 평생에는 금테안경을 낀 그의 눈에 말년의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체념과 방심이 깃들어 있으나 지금은 당황한 빛이 어려 있었다.

오상주와 김영섭이 참관지로 떠난것은 2시간전이었다. 그때 오상주는 손자도 꼭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한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명동아, 어서 가자.》

《싫어. 안 갈테야.》

명동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배꼽줄이 끊어 진지 이제 겨우 아홉해밖에 안된 손자녀석의 매정한 거절에 오상주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었다. 어제까지 군말없이 줄줄 따라다니던 아이가 조국방문 마지막날을 하루 앞두고 왜 패왕스럽게 노는지 알수 없었다.

오상주는 아이가 줄곧 밖을 내다보고 있는것이 이상스러워 창가로 다가갔다.

바깥정경은 여느날과 조금도 다른것이 없었다.

강반에 솟아 있는 버드나무의 앙상한 가지들도 그 틈새로 내다보이는 군데군데 살얼음이 낀 대동강도 어제와 꼭 같았다. 여느해라면 대환을 앞둔 이맘때 대동강은 두텁게 얼어 붙는다고 했지만 이해는 아직도 강추위가 들이 닥치지 않아 설

핀 햇빛에 노을빛으로 번들거리는 얼음장들사이로 새파란 물이 꿈속에서처럼 고요히 굽니고 있다.

《명동아, 오늘이 마지막날이라는걸 너도 알지? 래일은 로스안젤스로 돌아 가야 한다. 그전에 볼건 다 봐야 해. 우리가 언제 또 여기로 오겠니.》

오상주의 짜증에도 명동은 끄떡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의 눈에 웃음이 비끼고 입귀가 귀밀까지 벌어 졌다.

오상주는 그것이 별스러워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반의 버들가지들이 가볍게 설레이기 시작하고 고요하던 대동강수면에 잔물결이 일었다. 얼음장우의 노을은 신기루인양 서물거리고 비취빛수면에서 노닐던 물오리들은 때를 만난듯 활기를 띠었다. 어떤 놈들은 승벽내기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뽀르르 내달리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서로 쪼고 까불며 깊숙이 자맥질해 들어 갔다가 생똥같은 곳에서 대가리를 불쑥불쑥 내밀기도 하였다.

《이 녀석, 뭐가 좋아서 웃는거냐. 어서 차비를 해라.》

《싫어 싫어. 난 안 갈래. 할아버지 혼자 갔다와.》

《그럼 넌 여기서 뭘 할테냐?》

명동은 창가에서 물러 나 할아버지를 뵈히 쳐다보더니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눈을 반짝 빛내이었다.

《<소년장수>를 볼래요.》

《록화기를? 그게 보고 싶어서 안 가겠다는거냐?》

명동은 고개를 까닥이었다.

오상주는 어이 없는 웃음을 웃고 그를 데려 가려던 생각을 단념하였다.

《좋다, 안 가겠으면 여기 있거라. 그러나 뺑이를 꺼낼 생각은 아예 말어라. 트렁크에 자물쇠를 채워 놓았다는걸 알지!》

이때 김영섭이 방에 들어 왔다. 그는 오상주가 혼자 참관지로 떠나고 명동은 그냥 방에 남아 록화기를 보기로 했다는것을 알자 뜻밖인듯 눈을 꿈뻑이다가 꼬마손님의 이마를 짚었다.

《어디 아픈데는 없느냐?》

《없어요.》

명동은 도리머리를 하고 해죽 웃었다. 두볼에 못된 장난을 하다가 들킨 아이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흥조가 피어났다. 영섭은 그것을 눈여겨보지 못했다. 열흘나마 함께 다녀 보니 엉뚱한 짓은 좀 하기는 해도 크게 사고날 일까지는 하지 않았으므로 뒤시간 혼자 남겨 두어도 무방하리라라는 생각이 앞섰다.

《그럼 우리가 돌아 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소년장수>를 보라.》

영섭은 록화기에 테프를 넣고 스위치를 눌렀다.

이렇게 되어 오상주는 혼자 김영섭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철도를 참관하러 떠났던 것이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이가 그림자도 남겨 놓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던 것이다.

오상주는 아무리 생각을 굴려 봐도 속에 짊어지는 것이 없었다.

오상주와 김영섭은 2층에 있는 휴게실과 오락실에도 가보고 아래층 홀도 찾아 보았으나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호텔에 없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김영섭은 호텔접수원을 급히 찾았다.

접수원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참관지로 떠나려고 밖에 나갔을 때 명동에도 인차 뒤따라 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애도 함께 차를 타고 떠난 줄 알았다는 것이었다.

영섭의 가슴속에도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소년장수》를 보겠다고 한 것은 제 볼장을 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 같았다. 그는 관리원들에게 주변을 찾아 봐달라고 부탁한 다음 안절부절 못하는 오상주를 의자에 앉혔다.

《오선생,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가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혹시...》

오상주는 혹시 애가 유괴당하지 않았을가 하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이 아이들을 유괴감금하고 부모들에게서 몸값을 받아 내는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나고 있지만 사회기풍이 건전한 북녘땅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며칠 안되는 조국방문기간에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견잡을 수 없는 손자녀석의 행실에 속이 상해 한숨을 내쉬었다.

불현듯 그의 눈앞에 명동의 앞마당은 모습과 잔물결 이는 대동강수면에서 승벽대기로 쪼고 까불던 물오리들이 서로 엇갈리며 떠올랐다. 살불이가 바른 집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손자라고 어자어자 키웠더니 뽕머리와 웅고집만 잔뜩 자라져 물오리들처럼 제멋대로 돌아 치기만 한다.

조국방문기간에 곧잘 애를 먹다가 이제는 종적까지 감추었으니 이런 녀석의 가슴에 어떻게 민족의 뉘이 싹 트겠는가.

하긴 그동안 오상주의 마음을 다소나마 기쁘게 한 일도 없지 않았지만...

오상주가 손자의 손목을 잡고 평양에 도착한 다음 무엇보다도 먼저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아이가 우리 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강한 의욕을 나타낸 것이었다. 조선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중심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케이지에서 나서 자란 명동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영어였다. 우리말이란 오상주가 평소에 하는 말뿐이고 그의 부모도 우리 말보다 먼저 영어가 입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명동은 우리 말을 알아 듣기만 하고 번질줄은 몰랐다. 그러던 애가 고국땅을 밟은지 며칠 안되는 사이에 우리 말로 회화를 해보려고 애 쓰기 시작했다.

오상주를 기쁘게 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명동이 《소년장수》를 보고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하던 때도 흐뭇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과장된 수법으로 그린 고구려소년의 무훈담은 《우주마왕》이나 《카우보이》 따위의 미국 청소년영화와는 그 내용의 건전성에서 비할바가 없다. 작품에 반영된 질은 민족적색채도 오상주의 마음에 흡선 들었다.

명동이 김영섭의 아들 종호와 사귄 것도 이번 조국방문과정에 얻은 큰 소득이다.

그애를 처음 만났 것은 명동이와 함께 대성산 기슭에 있는 광범사를 참관하고 돌아 오다가 **김일성**광장에 들렀을 때였다.

오상주는 주요국가행사가 벌어 질 때마다 수십만을 헤아리는 시민이 모인다는 광장을 그저 지나고 싶지 않아 차를 세웠다.

머칠전에 내린 눈이 다져 저 화강암을 깎아 바닥이 매끄러웠다. 순한 아이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뽕이치기도 하고 율떡우기도 하고 있었으며 비둘기들이 먹이를 쪼아 먹느라 분주히 기어 다니다가 활기찬 조무래기들의 발자국소리에 놀라 푸드득 날아 오르기도 하였다.

김영섭의 말을 들으며 걸음을 옮기고 있던 오상주는 문득 발길을 멈추었다. 그의 발치에 뽕이가 굴러 왔던 것이다. 뽕이는 붉은줄과 푸른줄을 두른 것이었는데 오상주의 구두에 딱 부딪친 다음에도 뽕글뽕글 돌아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뽕이채를 든 아이가 쉿 달려와 속력을 잃고 위태롭게 비틀거리는 뽕이를 후려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뽕이는 오상주의 두발사이에서 돌고 있었으므로 후려 칠 수 없었다. 뽕이는 마침내 힘이 진하여 오상주의 왼발둘레를 뽕그르르 돌다가 휘딱 나가 자빠졌다.

오상주는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한 것 같아 허리를 굽혀 뽕이를 집어 주려고 하였다. 이때 그의 뒤에서 따라 오던 명동이 어느새 먼저 뽕이를 집어 들었다. 그는 난생 처음 보는 뽕이가 신기한 듯 자기 손에 쥔 뽕이와 눈앞에 서 있는 뽕이채를 든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팽이채를 든 아이는 그제야 오상주와 명동이의 낯선 차림새에 주의가 미쳤다. 오상주는 목깃에 채빛 양털을 댄 짙은 밤색가족의투를 입고 있었고 명동은 두건이 달린 새빨간 솜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는 눈이 등실해서 그들을 마주 보다가 가까이 있는 영섭이를 알아 보자 얼굴에 대뜸 웃음꽃을 피웠다.

《아버지!》

뜻밖의 장소에서 아들을 본 영섭은 눈이 커졌다.

《종호나, 네가 어떻게?》

《학습반 애들과 놀러 나왔어요.》

《숙제는 다 했느냐?》

《아버진 그제 공부하라는 말밖에 몰라. 몸을 툭툭히 단련하자면 팽이치기도 해야지요.》

오돌차게 대답한 종호는 보조개가 움푹 패이게 웃고 나서 명동이쪽으로 돌아 섰다. 그는 차림새가 다름뿐 눈빛도 머리칼빛도 똑같이 까만 제포래아이인 명동을 정찬 눈매로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팽이 달라.》

그러자 명동은 손에 쥔 팽이를 내놓기가 아쉬운듯 그것을 열른 등뒤로 가져 갔다.

그바람에 오상주는 흠칫 놀랐다.

(애가!...)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명동은 종호의 정찬 눈매에 끌려 새뭇이 웃음을 띠우며 팽이를 넘겨 주었다.

오상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애가 자칫하면 미국에 있는 제 동무들과 놀던 식으로 평양아이를 대할번 하였다. 만약 그랬더라면 손자때문에 툭툭히 망실했을것이다.

《아버지, 난 갈래요.》

종호는 동무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 가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몸을 꺾 돌렸다. 그리고는 오상주에게 두어발자국 다가가 꾸벅 절을 하였다.

《할아버지, 안녕히 다녀 가세요.》

그 다음 명동에게 싱긋 웃어 보이고 조무래기들속으로 사라졌다.

《김선생 아드님이시군요.》

굳어 찼던 오상주의 입언저리에 미소가 떠올랐다. 듣기에 조국에 가면 친절히 맞아 주기는 하지만 안내원과 허물없이 사귀기는 힘들다고 했는데 뜻밖에도 피여 본 김영섭부자의 평범한 생활의 한토막은 오상주로 하여금 그러한 말이 근거 없는 뜬소리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잠시후 오상주와 김영섭은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명동은 팽이치기에 신바람난 아이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좀처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았다.

차가 떠나자 명동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 팽글팽글 돌아 가는게 뭐나?》

《팽이란다.》

《팽이? 할아버지도 굴러 봤나?》

《그래.》

《할아버지, 나도 팽이 굴러 볼래.》

《네가 팽이를? 이 녀석, 고국땅에 와서까지 장난질을 할 생각이냐?》

오상주의 입에서는 나무라는 소리부터 나왔다.

그러나 한창 자라는 아이가 그런 놀이에 흥미를 가지는것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로스안젤스에는 동포들이 많지만 조선아이들은 팽이치기와 같은 민속놀이를 모른다. 그들의 놀이란 전자유희기구를 다루거나 이웃들에서 사는 노랑머리, 흰머리, 불머리아이들과 어울려 인디안 놀이나 깽놀이를 하는것이 고작이다. 오상주는 고막을 날카롭게 자극하는 전자유희기구의 소음은 두말할것 없고 깽이나 인디안흥내를 내는 피이한 부르짖음소리와 총소리따위가 질색이었다.

그런것만큼 명동이가 팽이치기를 하겠다는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장난에 정신이 지내 팔리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팽이치기는 어디서 할것인가? 호텔앞 주차장에서? 대동강유보도에서? 팽이를 파는 상점은 어디에 있으며 언제 시간을 낼것인가?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 진다고 해도 애가 제대로 굴리거나 하겠는지? 자기가 곁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지만 자칫하면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될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은 손자의 손목을 잡고 거리구경을 하는 차림새가 류다른 늙은이에게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아서라, 늙으면 아이된다하더니 주책머리 없는 생각을 해도 분수가 있지... 로스안젤스로 돌아 간 다음 참나무토막을 얻어다가 깎아 주자. 그때까지 참으라고 하는수밖에 없다.

《할아버지, 나 팽이...》

명동이 차안에서 또 졸랐다.

《돌아 가서 만들어 주마.》

《싫어. 거기서는 잭크랑 로버트가 못 살게 굴어.》

하긴 명동의 말이 옳다. 왈패스러운 이웃아이들이 팽이를 보면 가만히 있을리 없다. 골목대장인 여드름쟁이 잭크는 《깽두목》노릇을 하는 아이이고 불머리에 사팔뜨기인 로버트는 《인디안추장》노릇을 도맡아 하는 아이이다. 그런 애들과 같이 놀아 온 명동이라도 왈패스러운데가 있어 좀전처럼 남의것을 제것이라고 우기려고도 하고 한대 얻어 맞으면 저도 한대 쥐여 박으려고 승벽을 부리기도 하지만 워낙 나이가 두세살 우인 그것들을 당할수 없다.

오상주는 손자에게 대답할 말이 막혀 입을 다물고 말았다.

2

앞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김영섭은 고개를 돌렸다.

《명동인 팽이치기에 부쩍 흥미가 동했구나.》

그 목소리에는 멀리 미국에서 온 교포자녀의 소원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어려 있었다.

《김선생, 좀 도와 주십시오.》

《어디 힘 써봅시다.》

이튿날 저녁 견학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오상주일행은 주차장에서 낮 익은 아이의 마중을 받았다. 옷을 때마다 두볼에 보조개가 패이는 그 아이의 손에는 팽이와 팽이채가 들려 있었다.

오상주는 뜻밖인듯 눈이 커졌다가 영문을 알아차리고는 환한 낯색으로 영섭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냈다.

어제저녁 집으로 돌아 간 영섭은 아들 종호에게 명동이와 함께 팽이치기를 해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종호는 눈이 둥그래지며 《아버지, 그 애가 팽이를요?》 하고 반문하였다. 그리고는 군말없이 자기의 잡동사니서랍에서 팽이를 하나 더 꺼내더니 먼지를 닦아 내고 색칠을 고쳐 하였다. 팽이채를 새로 하나 만드는것도 잊지 않았다.

영섭은 아들을 가까이 불러 오상주에게 인사를 시켰다.

《고맙다, 애야.》

오상주는 절을 받고 나서 흡족한 기색으로 종호를 바라보았다.

영섭은 종호와 명동을 마주 세웠다.

종호는 낮 선 고장에서 온 교포아이를 의젓한 자세로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상대방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기색은 물론 그와 반대로 주눅이 들어 당황해 하는 기색도 어리지 않았다. 도움을 바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 주는 신랄한 우월감의 표현인 살뜰한 호의가 명리한 두눈에 비껴 있었다. 남에게서 호의와 친절을 받아보는데 익숙되지 못한 명동은 한동안 어리둥절해 있다가 영문을 알아 차리지 낯색이 대뜸 환해졌다.

두 아이는 곧 얼음이 깔린 주차장가녁으로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오상주가 그들의 뒤를 따라 가려고 하자 영섭은 그를 불러 세웠다.

《오선생, 우리는 안에 들어 가서 휴식하는게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끼여 들면 아이들의 흥심을 깨뜨릴수 있었다.

차를 한잔씩 마신 다음 그동안이면 명동이 팽이치기에 꽤 익숙해 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영섭은

오상주와 함께 다시 밖으로 나가보았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종호가 지켜 보는 가운데 명동이 신바람나게 팽이를 굴리고 있었다.

알락달락한 참나무팽이는 채에 얻어 맞을 때마다 오뎅오뎅 뿔뿔이를 하며 팽글팽글 돌았다. 할아버지와 영섭이 다가오는줄도 모르고 팽이채를 후려 치는 명동의 두볼은 빨강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오상주는 금시 눈꼬리가 처지고 입이 벌어 졌다. 눈썰미가 좋은 손자가 사랑스러웠고 그의 소원을 풀어 준 종호와 김영섭이 고마왔다.

아무렴 놀음놀이를 해도 조선아이들이 즐겨 하는 놀이를 해야지. 이게 얼마나 즐거운 놀이인가. 미국아이들의 피이한 놀이에는 대비도 안되는 놀이가 아닌가!

그런데 오상주의 흐뭇한 심정은 이틀도 가지 못하고 깨지기 시작했다. 팽이치기를 배운 다음부터 명동은 참관지에 가셔도 구경할 생각을 하지 않고 종호가 가져다 준 팽이를 굴리는데만 열을 올린것이다.

묘향산의 보현사에 갔을 때는 안내원을 따라가는 할아버지에게서 슬그머니 뒤떨어 저 해탈문 밖에 있는 얼음판에서 팽이를 쳤는데 얼마후 오상주는 손자를 잃었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다. 그뿐아니라 향산려관으로 돌아 와서는 주차장근방에서 팽이를 굴리다가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에 하마트면 치울번 하여 오상주로 하여금 대경실색케 하였다.

《이 녀석, 놀음에 미쳐도 분수가 있지. 불상을 모신 법당앞에서 팽이를 쳐! 여기는 서산대사님이 계시던 곳이야. 임진년에 왜놈들을 물리치는 데서 큰 공을 세운 대사님에 대해 옛말을 해줬지.》

조상의 댁이 어린 이 땅에 와서도 장난질밖에 모르는 네가 조선사람의 종자가 웅건 웅으냐!》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명동은 할아버지가 잠들자 살그머니 호실에서 빠져 나와 용단이 깔려 있지 않은 복도에서 낮에 못다 굴린 팽이를 또 굴렸다. 바다밑처럼 고요한 야밤의 복도에 울린 팽이치는 소리는 잠나락에 잠겨 든 손님들을 놀래웠다. 여기저기서 문이 벌컥벌컥 열리고 관리원들이 달려 왔다.

오상주는 기가 막혔다. 가만 두었다가는 장차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수 없었다. 그리하여 강짜로 명동에게서 팽이를 빼앗아 트렁크에 집어 넣고 쇠를 잠그었다.

명동은 제 잘못을 모르지 않았으므로 앙탈을 부리지 않았으나 그다음부터는 노상 입에 밤알을 물고 다녔다.

오상주의 마음도 결코 편안치 않았다. 생각갈

아서는 실컷 놀아 보게 가만 놔두고 싶었지만 여기는 제 집이 아니라 불원만리 지구를 반바퀴 돌아 찾아 온 고국땅이다. 자칫하면 손자의 가슴에 고국의 정취와 민족의 넋을 심어 주려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크게 망신할수 있었다.

로스앤젤스를 떠나올 때 아들이 한 말도 생각났다.

《아버지, 조국이 그리우면 혼자 다녀오세요. 명동이야 여기서 살 애인데 조국구경이나 시켜서 뭘하겠어요?》

오상주의 대를 이어 거리에 식당을 차려 놓고 조선음식, 중국음식, 일본음식 등 동양음식을 전문으로 파는 아들이 못마땅해서 말하였다. 그는 세살적에 고국을 떠나왔으므로 고향 그리운줄을 모른다.

《아야, 네가 여기 사람이 다 되었는데 내 손자라도 조선사람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답답한듯 코웃음을 쳤다.

《괜한 생각 하지 말아요. 조선사람이면 어떻게 미국사람이면 어때요. 그저 돈을 많이 벌어 잘만 살면 돼요. 이제 두고 보세요. 명동이를 또 데려갔다가 전번처럼 창피를 당하지 않나.》

그는 오상주가 남조선 경상남도에서 있는 고향에 명동이와 함께 다녀 온 때의 일을 상기시켰다.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의 능금나무골... 그곳이 오상주의 고향이다.

이래전 여름, 그는 40여년만에 고향을 방문하였다. 부모의 산소도 찾아 보고 그해 일곱살난 명동에게 조상의 땅을 밟혀 볼겸 오씨가문의 종손이라고 하는 오규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오상주가 미국에서 자수성가하여 잘산다는 소문이 여러해전에 고향에까지 날아 갔는데 하루는 종손이라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다. 오씨가문의 뫼자리를 넓히기 위해 땅을 사겠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미타한 생각이 들었으나 두번 세번 편지가 날아 들고 바람결에 들려 오는 고향소식에도 규호라는 사람이 종손이 틀림 없다는것이 확인되어 오상주는 약차한 돈을 보내주었다. 그러자 규호에게서 곧 답장이 왔는데 거기에는 감사하다는것과 돈을 어디어디에 썼다는 내용이 써여 있었다. 그때로부터 해마다 한차례씩 제를 지낼 돈을 보내달라는 편지가 오고 오상주는 매번 그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

오상주는 고향땅에 들어 서자 상상했던바와는 너무도 판이한 현실에 부딪치였다. 그동안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마을의 면모가 일신되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농가들은 그전대로였다. 오씨가문사람들이 금의환향하는 자기를 반겨 맞아 주리라던 예상도 헛된 것이었다. 거의 반세기만에 고향을 찾았으니 가까운 일가친척이 있을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촌수가 받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집집을 돌아 다니며 문안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적의에 가까운 눈길로 쏘아 보는 것이었다.

오상주는 기분이 상했으나 조상의 산소를 넓히는데 기여한것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종손이라는 사람을 찾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놀랍게도 그는 마을을 떠난지 퍼그나 오래 되었다는 것이었다. 조소어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천하의 건달군이며 사기군이였다. 오상주가 보낸 돈은 고스란히 서울기생집출입에 탕진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뿐아니라 뫼자리가 있는 능금골에는 미군의 연유탱크가 짝 들어 차 있어 사람들은 근방에 얼씬도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상주는 조상의 무덤에 술 한잔 붓지 못했다.

기대와 믿음을 배반당한 오상주는 가슴이 아팠다. 사기군에게 잃은 돈보다도 오랜 세월 뫼리에 소중히 새겨 온 고향에 대한 영상이 흐리어 진 것이 분하였다.

그래도 귀향한 오상주의 가슴에 찢긴 감회를 불러 일으킨것은 동구밖의 박우물이였다. 왕가 물에도 마를줄 모르는 그 샘물에는 삼복더위에 풀단을 지고 와서 마른 목을 맛갈스레 추기군 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오상주는 물을 길는 아낙네들에게 귀떨어 진 바가지를 얻어 자신이 먼저 샘물을 떠마신 다음 손자에게 넘겨 주었다.

《명동아, 너도 마셔 보아라.》

할아버지의 손에 끌려 내내 말없이 따라 온 명동은 두손에 바가지를 받아 들자 신기한듯 이리저리 돌려 보았다.

《물을 푸는 그릇이란다.》

오상주가 설명했다.

명동은 그 말을 귀등으로 흘려 보내고 얼굴에 새망스러운 웃음을 띠웠다. 다음순간 그는 축축히 젖은 바가지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

《할아버지, 이것 봐. 철갑모야! 헤헤...》

명동은 땅땅 총 쏘는 시늉까지 하였다.

그 바람에 아낙네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유, 도련님은 장차 갱이 되시려네.》

오상주는 그만 오만상을 찌프렸다. 아무리 미국에서 나서 자란 아이라 해도 조상의 뼈가 묻혀 있는 고국에 와서까지 갱흥내를 내는데는 아연해 지지 않을수 없었다.

오상주는 그때 일이 돌이켜 지면 매번 속이 언짢아 진다.

이번 조국방문과정에서 아이가 그런 망신스러운 짓을 하지 않는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것은 아이가 그사이 철이 들었기때문이 아니라 북조선의 사회구조와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미국이

나 남조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때문일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수 없다. 아이가 조국방문 마지막날에 그 어떤 기상천외한 일을 저지를지 누가 알겠는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던 오상주는 만사가 귀찮고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손자녀석에게 고국의 정취, 민족의 넋을 안겨주려던 의도는 이룰수 없는 욕망에 지나지 않았는가? 이국에서 사는 타민족은 2세, 3세, 4세 이렇게 대가 바뀌면 자연히 그 나라 사람으로 동화되고 마는것일가? 혈통은 이어 진다고 하여도 조상의 넋을 이어 받지 못하면 그 민족의 한 성원이라고 말할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미국에는 아일랜드계, 체스꼬계, 폴스까계 등 민족의 혈통을 지켜 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좀 있기는 하나 그들조차도 하나같이 미국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그래도 민족의 넋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은 조선사람과 중국사람이다. 하지만 그들도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여러번 바뀌면 민족성이 사라지게 될것이다.

오상주는 자기가 쓴맛 단맛 다 보며 닦아 놓은 장사토대에 의거하여 아들, 손자들이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하여도 민족의 넋이 흐리어 지는것만은 참을수 없었다. 자칫하면 민족의 넋뿐 아니라 피줄도 혼탕이 될수 있다...

생각이 깊어 질수록 오상주의 가슴은 무거워지기만 하였다.

3

《오선생, 명동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이거 참 이상하군요.》

호텔관리원들과 함께 근방을 살살이 찾아 보온 김영섭의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어려 있었다.

호텔 맞은편의 대동강유보도, 대극장옆에 있는 아동공원, 《소년장수》록화테프를 구입한 대동강상점 등에 가보았으나 명동은 그림자도 없었다.

애가 혹시 광장에 가지 않았을가? 명동은 거기서 처음으로 팽이 치는것을 보았다. 할아버지의 트렁크에서 팽이를 꺼내지 못하니 구경이라도 하려고 마음 먹은게 아닐가?

그런데 늘 차를 타고 다닌 아이가 과연 걸어서 거기까지 갔겠는가? 멀지 않은 곳이기는 하나 평양지리를 꿰들지 못한 아이가 그런 용단을 내릴수 있겠는가.

김영섭의 추리는 갈팡질팡하였다.

이때 오상주가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떠나기전에 출창 바깥만 내다보더니...》

《바깥을요?》

김영섭은 놀라운듯 되물었다. 아침에 종호도

여느때없이 창밖을 내다보던 모습이 번개처럼 되살아 났다.

《오선생, 저와 함께 가봅시다.》

오상주는 어정쩡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 섰다. 영섭이는 말을 이었다.

《명동이 간 곳이 짐작됩니다.》

영섭은 오상주와 함께 차에 올라 타자 운전사에게 대동강변을 따라 옥류교쪽으로 달리게 하였다.

《김선생, 애가 어디로 갔다는겁니까?》

《우리 집의 종호가 명동이를 데려 내간것 같습니다.》

《김선생의 아드님이?...》

차가 미술박물관근방에 이르자 영섭은 차를 세우게 하고 오상주와 함께 유보도가 한눈에 굽어 보이는 층계우에 올라 섰다.

수십명을 헤아리는 아이들이 유보도에 길게 늘어 서서 대동강상공에 연을 띄우고 있었다. 모두가 인민학교 학생들인데 저마다 손에 열레를 쥐고 연을 더 높이 띄우려고 승벽을 부리고 있었다. 높은반 아이들은 네모연을 띄우고 낮은반 아이들은 꼬리를 길게 단 가오리연을 띄웠다. 흰색, 노란색, 파란색바탕에 그림을 그린것도 있고 글을 쓴것도 있는데 네모연들은 대체로 네귀에 《조국통일》이라는 글을 큼직하게 썼다. 가오리연들은 얼마 높이 뜨지 않았으나 대동강 한복판우에 까마득히 떴다.

오상주는 사뭇 영문을 몰라 하는 눈길로 푸른 하늘에 뜬 연들과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다. 유보도에는 사내아이들뿐아니라 처녀애들도 있는데 그들은 자기네 반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는듯 있었다.

《저기, 저기 보십시오, 오선생!》

김영섭이 란간을 두른 유보도 한끝을 가리켰다. 새빨간 솜옷을 입은 명동이 종호와 나란히 서서 연을 띄우고 있었다. 종호가 손세를 써가며 뭐라고 가르치면 명동은 연줄을 이리저리 채기도 하고 놓아 주기도 하는데 거리가 멀어 잘 분간할수 없으나 사과알처럼 붉게 상기된 명동의 동실한 얼굴에는 웃음이 함뱍 어려 있는듯 하였다.

오상주는 어처구니 없는듯 《너석이...》 하고 중얼거렸다. 그 어조에는 잃어 진 손자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뜻밖의 장소에서 희한한 광경을 목격한 놀라움이 비껴 있었다.

오상주는 명동에게로 다가가려고 급히 걸음을 땀다. 그러자 영섭이 그를 만류하였다.

《오선생, 이왕 이렇게 된바에야 애들이 좀 더 놀게 놓아 둥시다.》

그들은 천천히 유보도로 내려 가 처녀애들이 몰려 서 있는 가로등옆에 멈춰 서서 연띄우기에

열중하고 있는 두 아이를 지켜 보았다. 등뒤에 할아버지와 김영섭이 서 있는줄은 꿈에도 알지 못하는 명동이와 종호는 때마침 불어 오는 바람결에 자기네 네모연을 올려 태우느라고 한창 열레를 풀어주고 있었다. 그들이 주고 받는 말소리가 바람결에 들려 왔다.

《조금만 더 풀어라. 뻘어. 이제 살살 채봐. 그렁지, 좋아, 좋아. 우리 연이 제일 높이 떴어. 명동이 으뜸이야!》

때 아닌 겨울의 평화로운 대동강상공에 울긋불긋 꽃밭을 펼친 연들속에서 유독 명동의 네모연만이 쑥 빠져 나와 까마득히 솟구쳐 올랐다. 그 광경을 지켜 보던 처녀애들이 손뼉을 치며 환성을 터뜨렸다. 신바람이 난 명동은 숨웃두건을 활벗어 제끼고 앞자락까지 풀어 헤쳤다.

《명동아, 너 언제 돌아 가니?》

《래일 간다고 했어.》

《래일?》

《응...》

《섬섬하구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가고프지 않아.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가야지. 할아버지의 말씀 들어야 해. 참 네가 여기로 온줄 할아버지가 아시니?》

《...》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네가 구경을 간다고 했어. 그래서 난 네가 여기로 못 오는줄 알았지.》

《난 오늘날은 구경하러 가지 않기로 했어. 할아버지는 지하철도구경을 가자고 했지만 난 <소년장수>를 보겠다고 하구 따라 가지 않았어.》

《뭐? 그럼 난 할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구 여기로 왔다는거니?》

《응.》

명동은 태연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종호는 깜짝 놀랐다.

《이거 큰 일 났구나. 난 네가 할아버지의 승낙을 받고 온줄 알았뎌지. 할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니?》

《난 할아버지가 암만 지청구를 해도 꿈만 해. 이제부터 할아버지의 말을 안 들을테야. 할아버진 땡이치기도 못하게 했는걸 뭘.》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 안되지.》

종호가 타이르듯 말했다.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연을 띄우고 싶은걸 어쩌니. 할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하면 또 장난질을 한다고 보내주지 않아. 난 할아버지가 땡이를 트렁크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을 때 온밤 울었어. 할아버진 쿨쿨 잠만 자고...》

오상주는 몸을 흠칠 떨었다. 명동의 마지막말이 가슴에 파고 들었다.

그동안 그가 억울한 심정을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참아 온것은 종호와 오늘 이 자리에서 연 띄우기를 같이 하자고 모릅지기 약속해 놓았기때문 일것이다. 거기서 위안을 받고 애 써 태연한 기색을 지으며 이 할애비를 잠깐같이 속인게 분명하다. 참관을 떠나기전에 바깥을 내다보던 그 애의 입귀가 벌어진것은 자맥질하는 물오리를 보아서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 연을 띄울수 있게 되었기때문일것이다.

아이들의 말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할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조금만 더 놀다 가자. 할아버진 저녁에야 올게야. 그전에 돌아 가서 <소년장수>를 보는척 하면 알지 못해.》

《명동아, 그럼 못 써. 나랑 함께 가서 할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서 용서를 빌자.》

《응... 그런데 난 할아버지가 왜 구경하러 다니기를 좋아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데 그건 너희 할아버지가 네게 우리 나라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라더라. 그래야 우리 나라를 사랑하게 되거든. 너도 조선사람이니까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지.》

《난 자주 돌아 다니면서 구경하지 않구두 우리 나라가 좋다는걸 알아.》

《그럼 우리 노래를 또 한번 부르고 돌아 가기로 하자.》

종호가 선창을 떼자 명동이 따라 불렀다. 처녀애들도 은방울목소리로 합창해 나섰다.

연아 연아 올라라

술개같이 올라라

구름까지 올라라

하늘까지 올라라

영롱한 손자를 두고 착잡한 생각에 잠겨 있던 오상주의 가슴에 감동의 파문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는 경건한 심정에 잠겨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밝고 씩씩하면서도 어디라없이 감상적인 정서가 배어 있는 동요는 오상주의 상념을 아득히 흘러간 소년시절로 이끌어 갔다.

오상주자신도 때 묻은 바지저고리를 입고 벼가율이 끝난 논판에서 연을 띄우며 놀았었다. 그때의 연띄우기는 곧 연싸움을 의미했다. 저마다 풀먹인 연줄에 유리가루를 묻혀 공중에서 다른 아이들의 연줄을 끊으려고 줄들을 비벼 대군 했다.

오상주도 코흘리개시절에는 심술궂은 큰 애들에게 연줄을 끊기위 울며 집으로 돌아 가곤 했고 제가 자라서 형님별이 되자 개구리 올챙이적생각

을 못한다고 동생벌이 되는 아이들의 연줄을 매정스레 끊곤 하였다.

그 일은 60여년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속에 야릇한 향수가 스며 든다. 가을같이한 논벌의 씩씩무례한 향기, 군청색을 띤 하늘, 거기에 점점이 널린 하얀 연들, 귀방울을 얻구는 하늬바람...

오상주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혀 있던 그 시절의 정취가 문득 날카롭게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자 가슴 저미는 애절한 그리움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추억을 심어 준 향토에 대한 고마움이 용암처럼 뜨겁게 솟구쳐 올랐다.

조상의 백골이 묻혀 있는 땅을 그토록 잊지 못해 하는 까닭은 바로 그 정취가 가슴에 새겨 져 있기때문이라는 생각이 서서히 뇌리에 파고 들었다. 조선사람의 뉘, 민족정신이란 바로 그 정취를 뜻하는것이 아닐까?

명동이 지금 그 정취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것이 가슴에 새겨 질수록 그는 먼 후날에도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회상할것이며 조선민족의 후손이라는 자각을 간직할것이다.

오상주의 생각은 더욱 깊어 졌다. 오리 제 놀던 물을 찾아 간다고 하지만 그 물이 맑고 옛스러워야지 흐리거나 구린내가 나면 아무리 보금자리가 없는 오리라 해도 다시는 찾아 가지 않을것이다. 이태전 남쪽의 고향에 갔을 때 찾아 보지 못했던 그 맑고 옛스러운것이 여기 북조선에 있다.

쑥대도 삼밭에 나면 곧아 진다고 종호와 같은 평양아이들속에 끼우니 명동이라도 그 귀중한 정취를 가슴에 안은것이다.

세상만사가 귀찮아 졌던 졸전의 허무한 심정은 어느새 가서 졌다. 오상주는 이국의 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아들생각이 났다. 때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조국을 방문하게 해야 한다. 내외가

명동이를 앞세우고...

이튿날 오상주는 조국방문목적을 이룩한 만족감을 안고 귀로에 올랐다.

차가 호텔을 떠나려 할 때 종호네 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 왔다.

종호가 트렁크만 한 크기의 지함을 명동이에게 안겨 주었다.

《명동아, 이젠 네가 어제 연떡우기경기에서 1등한 상품이야. 함안에 연이 있어. 로스안젤스의 하늘에 높이 띄워 봐.》

명동은 곱게 포장한 연을 말없이 받아 들었다.

종호를 마주 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명동아, 이담에 또 와.》

《응...》

목이 메여 대답을 잊지 못하던 명동은 할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맑은 눈동자에 비껴가는 푸른 하늘을 여겨 보는 순간 오상주의 마음은 어린 마음처럼 깨끗이 정화된듯 살뜰한 정에 끌리었다.

《아무렴, 오고말고. 꼭 다시 온다.》

명동이의 마음만이 아닌 제 소원까지 합쳐 대답하는 오상주의 목소리도 퍼그나 젖어 들었다.

이윽고 그들을 태운 승용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동이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잘 가. 명동아, 다시 만나자!》

종호네반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따라 왔다.

차창밖으로 얼굴을 내민 명동은 흐르는 눈물은 아랑곳없이 동무들의 모습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흔들며 웨쳤다.

《잘 있어. 또 올게. 다시 만나...》

그의 다감한 목소리를 들은 오상주는 오랜 세월 가슴속에 웅어리었던 회오가 녹아 내리는듯 눈언저리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 올랐다.

가사

친한 동무들

리광숙

나에겐 다정한 벗들이 많은데
일터에서 정을 맺은 친한 동무들
서로 도와 하루일 넘쳐 해가는
혁신의 그 나날에 정들었나봐
아 나의 공장 친한 동무들

가슴속에 간직한 소중한 꿈이
그 누구나 아름다운 친한 동무들
조국 위해 바치는 크나큰 사랑

우리 함께 꽃 피우며 정들었나봐
아 나의 공장 친한 동무들

장군님 큰 집을 덜어 드리는
그 마음 하나 같아 친한 동무들
래일을 앞당기는 보람찬 길에
청춘시절 꽃 피우며 정들었나봐
아 나의 공장 친한 동무들

조국통일의 열원과 시인의 시정신

(한 시인의 통일주제시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최희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문예관은 창작을 단순한 직업으로가 아니라 혁명사업으로 보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열렬한 애국자만이 진실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다고 본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는 창작의 주인인 작가의 창작과 그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을 그들의 사상의식에서 찾고 있는 주체적관점과 립장이 밝혀져 있다.

문학예술작품은 작가의 사상의식의 반영이다. 조국통일주체의 시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와 그들의 시작품들을 두고 작가의 량심과 시인의 시정신문제를 론하게 되는것은 시인과 그의 시작품의 필연적관계, 시인의 사상의식의 반영형태로서의 시작품의 사상미학적특성을 리해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되기때문이다.

조국통일주체의 시작품들을 적지 않게 써온 시인들가운데 열혈의 젊은 시인 장혜명이 시인들과 독자들의 주목과 기대속에 있다는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원숙한 시인으로 자기를 완성하기에 애쓰는 그는 우리 시단에서 관록 있거나 그 어떤 요란한 시로써 독자들에게 알려진 시인도 아니다.

그는 조국과 겨레가 당하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두고 피멍이 지도록 가슴치며 쓴 시편들로 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부르며 항쟁의 피를 뿌리고 간 남녘의 청년렬사들의 넋을 불안고 눈물 젖은 추도의 시들을 수많은 읊은것으로 하여,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과 어깨 결고 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된 조국통일대행진대오에서 목이 쉬도록 통일노래를 부르고 통일시를 읊고 통일구호를 부르며 맺어진 그 우정과 사랑으로 하여 동포 청년학생들과 친숙해진 시인의 한사람이다.

주체78(1989)년 2월 16일 오전 부산대학교 정문에 그가 쓴 시가 나붙었다는 보도가 전해진바 있다.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2월 16일 오전 부산대학교 정문에 **김일성** 종합대학의 한 학생이 지은 시가 나붙어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남녘의 학우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된 시는 가로 5m, 세로 70cm 가량의 프랑카드에 써여져

있다 한다. 시는 북남대학생들이 서로 만나 조국통일을 앞당길데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림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해 나설데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다.

이 시는 한 재미교포잡지에 실린것인데 지난해부터 서울의 각 대학들에 대자보 등을 통해 이미 나붙은바 있으며 이번에 부산대학교에도 게시된것이라고 한다.》

그는 시인이기에 앞서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의 청년대학생이였으며 동포애, 민족애로 불타는 량심적인 공민이며 동지들에 대한 우정과 사랑으로 심장을 태운 북남, 해외 학우들의 진실한 벗으로 살고 있다.

이러한 정의감, 민족애, 량심, 주장과 사랑의 사상감정은 누구나 지닐수 있는것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쉽게 간직할수 있고 지킬수 있는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상과 뜻, 정과 열은 물론 교육을 통해서도 형성발현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사상과 뜻으로, 정과 열과 피로 완전히 체질화되고 숭고한 리념과 지조로 간직되자면 부단한 사상정신적수양과 수련을 필요로 하는것이다.

특히 시인이라는 높은 지성과 인격을 소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교육과 사회적교양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으로 자기를 완성시키기 위한 자체수양, 자체투쟁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누가 장혜명이라는 청년시절의 시인에게 통일주체의 시를 쓰라고 과제를 준 일도 없었으며 이 시인에게 통일주체작품으로 이름을 날려 보려는 그 어떤 《창작적야심이 있어 이 분야에 창작의 눈을 돌린것도 아니다.

그러면 시인의 통일의 열원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아는것은 이 시인의 통일주제시편들에 흠은 열과 피를 느끼고 그의 시정신을 리해하는데서 그 출발점으로 될것이다.

나는 우선 시인의 통일열원을 그의 열렬한 민족애로 보았는바 그것은 그의 혁명적량심에서부터 생겨난것이라고 믿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들의 량심이란 곧 조국에 대한 애국적량심, 로동계급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불요불굴의 투지, 두려움을 모르는 대담성과 강의성, 모든 곤난을 극복하는 인내성, 영웅성 등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되는데 바로 이것을 혁명적량심이라고 가르치시였

다.

이것이 민족애의 윤리적본질이며 혁명적인 윤리관이다.

이 짧은 시인의 조국통일의 열원과 그의 불 타는 시정신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량심이란 소여의 사회적집단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윤리도덕적의식이다.

시인의 혁명적량심, 이 윤리도덕적의식이 력사와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공민적, 시인적사명과 책임감을 자각하는 사상정신, 심리세계를 보여 주는 한편의 시초가 그에게 있었다.

그것이 그가 대학졸업시절에 쓴 시초 《대학이여! 축복을 받아 다오》이다.

시초에 들어 있는 시 《대학생이 사는 곳》에서 시인은 《...해빛 밝은 강의실에 앉아/가벼이/책장을 펼치는 나날에/조국과 시대앞에 지닌 사명감으로/어깨는 무거웁고 심장은》 높편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 《방학의 나날에》서 그는 들일에 탄 어머니의 자그마한 손길이 자기 손잔등의 피줄을 어루만지실 때 자기만이 혼자 즐거움을 누리다 온것만 같아 송구스러워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고, 《수도의 거리 대학의 창가에서/이 성실한 어버이세대들의 수고를/내 잠시라도 잊은적은 없었던가!》고 자문하는것이다.

하기에 그는 시 《대학이여, 너는 무엇을 주었는가》에서 이렇게 읊었다. 이 시에서 그는 《작은 지도에는 이름조차 못 올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 더 많은/ 산간마을 소년이었던 나에게》/ 대학은 《조국의 사랑을 가늠할줄 아는/ 성장의 나이를 주었다》고 노래하였다. 또한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하는 국어로/ 가슴속 소용돌이를/ 시줄에 담아》 읊던 교실에서 《한 없는 조국의 사랑에/ 백발토록/ 축복의 노래를 지어 보답하리라》고, 《이 땅에 제국주의가 있는 한/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슬 푸른 중오를 내뿜기 위해/ 심장이 있다는것을 깨우쳤》노라고 하였던것이다.

그러한 그였기에 그는 마지막시 《교문을 나서며》에서 《...그대가 키워 낸/ 수천만 아들중에서 / 그 몇번째일지 내 몰라도/ 그들모두처럼/ 너의 이름에 욕됨이 없을》것이라고 목숨 같은 맹세를 남기였다.

대학시절 그의 시초에서 본바와 같이 미래의 시인의 혁명적량심, 시인으로서의 그의 윤리도덕적의식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공민적, 시인적사명과 책임을 자각하는 속에서 형성되어 왔었다.

인간으로서의 그의 공민적사상감정이나 시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은 다같이 생활을 통해 체험한것이며 그것은 키워 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의리의 사상감정으로서 정을 못 잊고 의리를 못

저버리는 천품적인 정의심을 날게 하였다.

나는 시인의 혁명적량심, 숭고한 그 윤리도덕적의식의 형성을 이런 각도에서 고찰하였다.

대학시절부터 《정》과 《열》과 《의》로 순결한 량심을 간직하기에 애 쓰고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며 자기를 시인으로 완성시켜 가려는 수양과 수련과정을 그의 여러 시편들에서 엿볼수 있었다. 그의 첫 시초 하나만 실례 들어 본다.

땀 흘리며 바삐 달리는 조국의 숨결도 《아직은 수자로만 배우는》 시인은 결코 《창문 높은 강당에서/ 자연의 법칙만을》 론하지는 않았으며 《활자로 찍힌/ 생활의 리치만을》 받아 들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벌써 시인의 지향과 지성의 세계가 비껴 있다.

그러면 그가 론하고 익힌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책갈피마다에 레사롭게 썬여 있는 글줄, 《그 한줄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선/ 목숨도 내대야 함을/ 심장우에 철심으로 박아 세우고》, 《졸업증서에 오르는/ 때로 만족치 못한 성적을 두고는/ 조국에 바친/ 의리와 성실성의 점수로/ 량심에 매겨 보며/ 잠 못드는 밤도 우리에게 있노라》고 한 바로 그러한 혁명적량심이였다. 힘겨울 때도 있고 우리의 짧은 힘을 간절히 바란 때도 있었으려면 조국은 수년세월 고스란히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었으니 《펼치는 래일의 설계도를 향해/ 그대가 우리를 부를 때/ 몇몇이 바칠수 있는/ 힘과 지혜와 슬기를/ 오늘에 다 키우지 못한다면》 조국을 빛내야 할 자기네들의 이름, 자기네들의 청춘은 빛을 잃고 묻혀 버리고 말것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을 느끼는 시인의 절절하고 심각한 깨달음인것이다.

그래서 그는 종종 배움의 창가에 마주 앉아 가슴속에 내리는 희망의 별과 정답게 속삭이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명상에 잠겨/ 먼 앞날의 나의 모습 그려 보면/ 주름 덮인 얼굴이 마주 쳐다보아도/ 마음만은 오늘처럼 젊어》 있을것이라고, 래일에 자기는 《누구나 할수 없는 크나큰 일감을/ 선뜻 믿고 조국이 맡겨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리라》고 되뇌이며 잠 못드는 마음 누를 길 없어 하였다.

이것은 시인이 늘 자기의 시에서 썼듯이 조국의 사랑을 가늠할줄 알고 받아 안은 그 사랑과 은총에 보답의 눈물을 흘릴줄 아는 순결한 량심, 그에게 봄썩과도 같이 남모르게 고이 깃들여 가는 참스러운 윤리도덕적의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는것을 말해 준다.

그렇듯 시인의 심장에 교괘를 치던 그 마음이 바로 수령과 당, 조국과 인민에게 바치려는 충정으로 끓었다.

그 열혈을 안고 그러한 량심과 지성과 리념으

로 가슴 태우던 시절에 《정》과 《열》과 《의》로 살고져 정의에 사랑을 기울이고 불의에 도전하고 죽음에 항거하며 원쑤에 대한 불 타는 증오로 그는 그 대학시절에 첫 통일주체의 시 《남녘의 학우들에게》를 썼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시인이 어떤 연유로 하여 통일주체의 시를 쓰게 되었으며 그 동기와 계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구래여 묻지를 말자.

그는 저 남녘에 고향을 두지도 않았으며 서울과 광주, 부산... 그 어느 곳에도 한점 혈육이 없으며 그 어떤 연고가 있는 학우 하나 없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녘의 학우들의 수많은 이름이 오른 시편들이 많고 만났던 학우들을 다시 떠나보낼 때 눈물 흘리며 지은 시들도 많고 항쟁의 거리우에 더운 피를 뿌리다 숨진 청년렬사들의 희생앞에서 부른 노래도 많다.

그래도 독자들이 그런 시와 노래를 시인이 짓게 된 까닭과 동기를 기어코 알고 싶다면 시인을 대신해 대답을 줄수도 있다. 까닭이 있다면 그가 14살 되던 소년시절에 온 삼천리가 7.4북남공동성명을 받아 안고 환희에 넘쳐 잠 못들던 그날 고성기가 걸려 있던 고향마을 들메나무밑에서 방송원의 열 띤 목소리를 들으며 동네어른들처럼 흘러 내리는 눈물을 남 몰래 주먹으로 훔쳤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대학시절엔 북남해외청년학생들과 함께 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한 조국통일대행진에 참가했던 일과 《전대협》대표 립수경을 비롯한 남녘의 여러 통일의 사절들과 나눈 우정, 뒷불인다면 저 판문점에서 북남해외청년학생들의 눈물 젖은 마음을 담아 평양 신미리 애국렬사의 흠과 광주 망월동 려사묘소의 흠을 함께 뿌리며 합토비를 세운 그앞에서 추모시를 읊었던 사연... 이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이미 통일의 시들을 적지 않게 지어 부른 뒤에 있는 일들이었다. 그러니 그것은 까닭으로도 동기와 계기로도 되는것이 아니다.

시인이 어린 소년시절에 7.4북남공동성명을 뜨거운 충격속에 받아 안던 그 7월로부터 세월이 흘러 그 소년들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시인 자신도 이제 그 못 잊을 고향의 들메나무밑을 멀리 떠나 어느덧 마흔나이를 켜 넘겼어도 아직도 오지 못한 통일, 반통일세력들에 의해 이룩되지 못한 통일을 기어이 안아 오고져 통일열원의 붓을 으스러지게 틀어 권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나도 이 시인이 통일주체의 시를 쓰게 된 까닭을 물랐었다. 내가 그 까닭과 연유를 알게 된것은 시인의 시를 통하여 깨달은 때부터였다.

언젠가 시인이 쓴 시 《통일의 새 아침 안아오리》라는 시구절들이 떠오른다.

《앉아서 절로 오기만을 기다린 너였다면.../ 통

일아, 너를 불러 목메는 가슴/ 이처럼 찢기지는 않으리》, 《남들보다 피가 뜨겁지 못해/ 이날껏 갈라 저 사는것이라면/ 내 조국의 허리를 동강낸 분렬의 장벽아/ 우리 그것을 두고/ 이처럼 원통해하지도 않으리》 눈물이 고여 오르는 구절이다.

바로 시인은 온 삼천리가 분렬의 고통에 몸부림 치는 땅에서, 《갈라 진 땅에서 태어난 세대의 아들딸들이/ 통일의 감격이 아니라/ 짓밟히는 남녘의 소식에 눈물 짓고 있어》, 《통일을 불러 피가 타는 이 땅에/ 더는 분렬의 아픔 새길수 없어》 자기 한생의 사랑이고 소원인 통일을 위해, 분렬의 장벽을 쿵-쿵 들부서 허물어 뜨리고저 피끓고 치떨리는 증오를 안고 불 같은 통일열망의 붓을 하늘높이 쳐들고 통일시, 통일노래의 드높은 연단에 뛰쳐 오른것이다!

이것이 시인 장혜명이 통일의 시, 통일의 노래를 부른 까닭과 연유일것이다. 이 시인의 통일의 열원이며 그의 시정신일것이다.

진정 이 시인의 《정》과 《열》, 《피》와 《넋》이 애족, 애민, 애국의 사상감정으로 활활 타올라 시인의 통일의 열원으로 된것이며 이 불 타는 사랑의 사상감정을 안고 나래친것이 시인의 시정신이였다.

시인의 시정신이란 바로 시인의 《넋》과 《열》, 《피》와 《넋》을 원소로 하여 불 타는 신념과 주장의 나래이며 시대의 지향과 리상을 안고 나뭇기는 기발이다.

시인의 이러한 통일의 열원과 시정신은 피어린 헌신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서슴없이 나설수 있게 할 때만이 신념과 주장의 나래, 시대의 지향과 리상의 기발로 될수 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시인의 한편의 시가 여기에 있다. 남조선 한 대학생의 옥중수기로 된 시 《옥중수기》중 시 《감방에서》를 읊어 보자.

《여기엔 없다, 번거로운, 생활의 문이, 통일의 날에야, 활짝 열릴 문, 아직은 자물쇠에 걸리고, / 다만, 하늘과 땅과, 공기마저 옥몰어 찢은/ 마치, 승냥이 이발과도 같은, 창살 사러 문, 한조박 철창이 있을뿐/ 주야장장 악몽속에 시달리라고, 꿈에선들 죽어선들, 자유롭지 말라고, 백열의 불소나기, 쏟아 저 내리는, 아비규환의 지옥도, 전를 할 여기, / 새롭지 않다!, 그대로 감옥인, 이 땅임에야, 두렵지 않다!, 항쟁의 거리로 달려 나가던, 그날에 벌써, 죽음을 던고 선, 통일의 신념, 내 가슴속에 있거니.》

시의 전문이다. 본바와 같이 서정적주인공의 통일성전에 바치는 헌신과 희생정신이 얼마나 뜨겁게 흐르고 있는가, 그 부르짖음은 자주, 민주, 통일을 웨치다가 철사에 묶인 남조선 애국청년학생들의 결사의 신념과 불타는 항거정신으로서 그 사상감정은 이 시인의 이여의 모든 통일주체시

편들에 일관하게 곱이치는 시정신이다.

애국심 가득찬 가슴을 치뚫고 솟음치는 피의 절규에는 유린 당한 삶, 짓밟힌 자유를 불안고 통탄하며 그 삶과 자기를 찾고져 아까운 목숨 아끼지 않는 항쟁투사들의 애국열, 통일열을 이 시인은 무엇으로 보았던가?

시인은 그것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발현된 신념과 의지, 지향과 리상으로 보았다. **《주체문학론》**에 밝혀 진바와 같이 착취사회에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투쟁이다. 그 투쟁은 가슴 아픈 희생과 실패, 참을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다. 하지만 그 희생과 실패, 고통과 불행을 헛되고 비극적인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시인은 시 **《감방에서》**의 서정적주인공의 희생과 고통을 비극적인것으로, 헛되인 희생으로가 아니라 그 고통과 희생을 이겨 내고 민주가 있고 자주가 있는 통일조국을 위한 투쟁으로, 그 통일조국에서 기어이 살리라는 영생의 신념과 리상으로 보았다.

중세기의 시인 단테는 **《신곡》**에서 인간이 사회적 온갖 고통과 불행에서 구원되고 행복을 찾자면 리성으로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성하고 신앙에 충실하면 **《지옥》**에서 **《천당》**으로 간다고 하였다.

단테의 그리스도교정신의 **《산아》**인 **《지옥》**에서 **《천당》**에로의 **《승천》**은 인간의 리성의 힘, 도덕적완성으로 얻을수 있다는것이다.

단테의 그리스도교 리념대로 리성과 도덕적완성으로 인간생지옥인 남조선사회의 악정에서 벗어날수 있다면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 민주, 자주, 통일을 위한 항쟁에서 왜 피를 뿌릴것인가. **《<한국>의 오스벤징》**이라고 하는 청주보안감호소에 갇혔던 리인모를 비롯한 술한 비전향장기수들이나 **《죽어 상여로 나가는곳》**들인 남조선의 교도소와 감옥에 물힌 우리의 젊은 항쟁용사들이 리성이 없고 도덕적완성을 모른탓에 죽음으로써 깨끗이 살려고 했으며 투쟁으로 민주, 자주, 통일을 얻자고 하는것이라.

주체의 시정신은 리성의 힘도, 도덕적완성도 아니며 오직 두려움 모르는 헌신의 정신과 서슴을 모르는 희생정신을 요구한다. 자기 시의 주인공들을 견결한 신념과 리상의 체현자라고 본 시인은 **《옥중수기》**의 다음시 **《삶과 자유앞에》**에서 자유없는 삶의 고초가 천백번 죽음보다 더하리라고 생각하였기에 학원의 자유와 민주를 불러 항쟁용사들은 마주 오는 총칼을 향해 대오를 못하고 화염방사기에 맞아 재가 되고 무한궤도에 깔려 젊은 목숨들이 피를 뿌리며 쓰러져도 꿈에도 소원이고 죽어도 소원인 통일은 이 나라 겨레를 살리는 통일이라 웨쳤으며 그래서 통일을 일러 시인은 **《자유의 나래》**, **《민주의초석》**, **《이**

겨레의 숨줄》이라고 가슴 터치며 **《오! 삶과 자유, 그앞에 통일이며 네가 있도다》**라고 목놓아 웨쳤으니, 우리는 항쟁의 거리, 항쟁대오앞에서 통일을 부르며 달리는 투쟁의 가수, 대오의 기수 되어 나가는 시인의 모습을 눈앞에 보는듯 싶은 것이다.

진정 민족과 겨레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과 비극에 뼈 아파 하고 남녘학생들을 못 잊어 정에 끓고 열에 벽차고 피와 땀이 라는 그의 통일주체 시편들은 열렬한 사람만이 간직할수 있는 진실한 사상감정이며 시대의 지향과 숨결로 호흡하며 자기의 피를 방울방울 짜서 쓴 목숨 같은것이다.

시 **《남녘의 학우들에게》**, **《투쟁은 승리할 때까지》**, **《통일의 새 아침 안아 오리》**, **《투쟁의 도시 광주에》**, **《장벽은 무너져야 한다》** 등의 시편들에는 남녘청년학생들의 피의 절규, 노도치는 분노, 서슬 푸른 증오로 하여 그 사상감정은 곱이치는 대하의 격류 같고, 노호하는 우뢰와 번개 같고 버려진 창날파도 같이 느껴 지는것이다.

이로 하여 이 시인의 시정신을 불 타는 시의 나래, 나뭇기는 시의 기발이라 하는것이다. 이 시인의 통일주체시편들에서 느껴지는 절규, 분노, 증오와 같은 예리하고 격렬하고 팽철한 사상감정은 그대로 내 나라 땅을 동강낸 미제와 분별주의자들을 두고 느끼는 우리 민족과 겨레의 공통된 주도적사상감정이다.

볼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 밝혀 진바와 같이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은 시대의 기본흐름과 인민대중의 정서적지향을 반영한 감정이다. 나라의 자주성을 짓밟으려는 온갖 원썩들에 대한 증오심과 조국을 통일하려는 불 타는 열망을 비롯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발현된 전형적인 사상감정은 다 우리 시대의 주도적사상감정이다. 이 시인의 통일주체의 시편들에 일관하게 흐르고 있는 사랑과 증오의 사상감정은 인간과 생활에 대한 시인의 열렬한 사랑에 전적으로 바탕을 둔것이다. 사랑이 있고야 증오가 있다.

시인의 시에는 눈물겨운 인간사랑의 시, 애정을 담은 시편들이 적지 않다.

시 **《옥중수기》**중 시 **《어머니에게》**는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시의 매 시줄들은 시인의 뜨거운 사랑의 불에 타고 사랑의 눈물에 젖어 있다. 사랑의 불, 사랑의 눈물은 이 시인의 시들을 살리는 생명의 원소이다. 내 조용히 시인의 사랑의 불에 타보고 사랑의 눈물에 젖어 본다.

...별빛마저 서글픈 밤에 철창너머 멀리 캄캄한 허공에 엄준하고 잔약한 어머니의 그리운 얼굴이 사무치게 어려 온다. **《폭도》**의 어머니로 억울한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눈물조차 못 흘리고 솟으로 타서 재가 앓은 가슴에 시름만이 서리서

리 없혀 있는 학우의 어머니, 《나》의 그 어머니... 《어디선가 아들만은 행복한 운명을 만나라고, 아버지 없는 홀손으로, 쪼개진 혼전을 다시 쪼개시여, 기대와 믿음에 차, 책보를 메워 주시던 어머니》. 그러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선채로 내 돌로 굳어 진단들》 어이 잊으며 착하게 부지런하게 살아 온 어머니와 아들이었기에 착하게만 살려 했던 그 아들이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고 《폭도》가 되었다면 어머니시여, 마땅히 불효한 아들을 매를 들어 후려 치시라고 눈물겹게 하는 그 호소!

《폭도》를 낳지 않은 어머니가 《폭도》의 어머니되고, 착하고 어질은 아들이 《폭도》가 되어 옥에 갇혀 억울하게 죽음을 강요당해야 하는 원한에 찬 남녘땅, 어머니가 바라던 그 희망과 오늘의 절망을 두고 《그 옛날 어머니의 소원이, 변함없을 그 소원이, 참답게 살려는 내 바람이, 내 조국의 운명이》 이 아들을 결국은 《폭도》로 만들었으니 《폭도》의 어머니시여! 《폭도》인 탓에 아들은 부끄럽지 않아 어머니의 아들로 떳떳하다고, 하기에 《눈물을 거두시고 흰머리를 높이 드시고》, 《폭도》를 낳아 키우신 궁지를 《차오르는 만조의 강변처럼 가슴 가득히 안으시고》 《내 조국 방방곡곡, 어머니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속으로 걸어 가시라》고 하는 시인의 가슴에는 식지도 마르지도 아니하는, 진정으로 아들다운 효도의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으니 묻노라 독자여, 이런 시야말로 나를 울게 하고 그대를 울게 하는 사랑과 눈물의 시가 아니겠는가!

이 시인의 사랑의 시에는 고향에 대한 애정, 동지와 벗들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들도 적지 않다. 대학시절 어느 방학때 고향의 동구길을 걸으며 사랑 없이는 찾지를 못하고 다지는 맹세 남김이 없이는 떠나지를 못한다는 시 《고향에서》와 같은 시편들, 하던 일 마저 끝내느라 늦어 지는 아들을 기다려 잠 못드는 어머니와 《무릎위에 책을 펴놓고 마음속 기다림을 읽고 있는》 젊은 안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가정에 대한 애뜻한 사랑 어린 시 《불빛》과 같은 서정시들, 《긴긴 날을 하루같이, 남편의 팔다리가 되어 주고 굶은 시중 웃으며 들어 주는》 영예군인안해의 정성이 담긴 시 《그대의 사랑은...》과 《출장길 끝나 집에 온 저녁》이던 낮가림한다는 두살잡이 아들녀석이 아장아장 팔을 벌리고 무작정 품에 안길적에 느끼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쏟아 낸 시 《낮가림》과 같은 생활적인 시들도 있다. 고향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안해와 자식들, 동지들과 벗들에게 바치는 그 《정》과 《열》과 《피》가 있어 분별의 화근인 미제와 그 앞잡이 피뢰도당의 머리위에 뿔어 활활 타는 《증오의 불》이 있는것이다. 가장 사랑할줄 아는 인간만이 가장 증오할줄 아는것이다. 시인의 애국, 애족, 애민의 열이 적

개심을 낳은것이다.

우리의 소원이고 열망이고 목숨인 통일의 열원을 두고 그것을 시인의 정과 열, 피와 땀이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인 장혜명의 통일의 열원과 시정신이 최대로 집착되고 정화된 시편들가운데서 시초들인 《눈물의 상봉》과 《추석날의 무등산》은 그의 선배 시인들인 오영재의 시 《복수자의 선언》과 동기춘의 《인생과 조국》과 나란히 하고 싶은 시편들이다.

시초 《눈물의 상봉》과 《추석날의 무등산》은 사랑과 눈물이 교차되고 사랑과 증오가 교차되어 붉고 진한 하나의 피덩이로 느껴 지는 시들이다.

《마흔세해만에 돌아 오는 남편앞에, 왜 이제야 오시느냐, 한마디 푸념도 없이, 오히려 쏟아 지는 눈물마저, 남몰래 감추는 영웅의 안해》앞에서 그 녀인을 대신하여 시인이 울고 있음을 나게 된다.

기약할수 없는 상봉의 날을 기다려 기다려 30년, 40년을 하루같이 바친 이 나라 녀인의 순결한 사랑과 한번 지켜 버림 없었고 꺾이지 아니한 그 끈고 억센 절개는 30년, 40년을 죽음의 옥에서도 전향하지 않은 리인모의 신념과 의지와 다를바 없었다. 그가 죽음과 전향의 갈림길마다에서 가슴속에 량심의 맑은 눈물을 흘릴수 있었고 외로움은 매없이 가슴을 허비고 청춘은 속절없이 흘러가도 먼먼 추억의 한끝에 추연히 어려 오는 안해의 이쁜 모습을 마음속에 안고 후회 없는 백발을 머리위에 엮을수 있는것도 애오라지 안해의 그 사랑을 조국의 마음으로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이며 그런 안해와 자식들을 맡아 키워 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은혜를 신념과 의리로 지켜 왔기때문이다.

진정 고마움에 눈물 짓고 감사에 흐느껴 우는 백발의 로인과 녀인앞에서 시인은 눈물 젖은 붓으로 《영웅의 안해여, 그대는 이 나라 모든 사나이들의 가슴속에》, 《목숨은 버릴지언정 저버리지 못할, 아, 조국의 모습을!》 길이길이 아로새겨 주었노라고 썼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사랑과 신념과 의지의 화신들이 《푸른 청춘에 헤어졌다가, 하얀 백발이 되어 만나는》 부부의 상봉앞에서 시인은 울지만 앓았거니! 독자들여, 바라보라 사랑도 가장 불타는 사랑으로, 증오도 가장 불 타는 증오로 가슴 타 섰던 시인의 모습을!

《감방안에서도 진달래를 피우며, 진달래의 노래를》 불렀고, 《안해가 이슬이라면, 눈에 넣고다 니겠다면 아, 그런 사람들》, 《양상히 떠난 남은 가슴이 부서질가봐》 안해와 딸도 차마 아버지품에 안기지도 못하게 만든 철천지원썬들에게 추호도 자비를 바라지 말라고, 《설사 내앞에 무릎 꿇

고 애원한다 해도》, 《나의 총창은 펄쩍이 없으리라》고, 이런 원썬들의 씨를 말리울 때까지 원썬들의 검은 염통을 찢르고 또 찢리리라고 치떨며 부르짖은 시 《인간의 이름으로》는 그대로 불의 시-증오의 시였다.

시인은 그런 증오의 불을 안고 시초 《추석날의 무등산》을 썼고 피눈물 젖은 목소리로 추도시들인 《복수의 칼을 들라!》, 《복수의 철추를!》, 《우리의 눈엔 불이 흐른다》, 《통일애국의 넓은 영생하리》를 읊었던 것이다.

박종철, 조성만, 한국원, 리한렬, 강경대... 그 렐사들의 령전에 바쳐진 추도시들은 이 시인의 통일주제시편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아프게 쓴 시들이었다.

그의 모든 시들은 감정의 열도가 매우 강렬하며 감정의 파열성이 세차며 뿜어 솟구치는 감정 분출의 세기와 압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하여 읊어 볼 맛이 있다.

그의 시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감정의 열도, 파열성, 그 세기와 압은 물론 시인의 시적 표현력, 그 형상능력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 앞서 인간과 생활에 대한 시인의 사랑의 사상과 원썬에 대한 증오사상의 반영과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감정의 그 폭발성과 파열성, 감정이 분출하는 그 세기와 압은 시인의 가슴에서 타는 감정의 끓음이며 장악되고 축적되고 폭발하는 감정의 깊이와 무게이다. 감정의 세찬 끓음이 없이는 감정의 강렬한 열도를 느낄 수 없으며 장악되고 축적된 감정의 깊이와 무게가 없이는 감정이 분출되는 그 세기와 압을 느낄 수 없다.

시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열도, 세기와 압은 시인의 사상감정의 열도와 세기와 압이다. 추도시들에서 몇구절 읊어 보자.

《독야청청 소나무도 푸르름 벗고/ 피눈물같이 검붉은 락엽을 떨구라》, 《청상의 젊은 안해 젖가슴밑에/ 피덩어리 생명을 묻어 두고》, 《울어울어 또 울어/ 우리 몸의 마지막조각까지/ 눈물로 녹아 내린다》, 《우리 흘린 눈물 다 모은다면/ 한강물이 제 깊다하지 못하련만》, 《가슴속에 눈물을 누르고/ 울지 않는 사람들의/ 그 눈물의 값이 어떤것인가를/ 살인악당들이 개죽음으로 알게 하리라》, 《한을 못푼 넓은 죽어서도 눈감지 못한다》, 《살인마들의 정수리에 내려 칠/ 벼락의 칼날을 버리고》, 《애 어린 자식의 시신앞에/ 어머니가 머리 풀고 초상을 치려야 하느냐》, 《티하나 묻지 않은/ 그 가슴우에도 흙은 덮이더란 말인가》, 《청청하늘이여/ 천둥우뢰를 주먹처럼 높이 들어/ 비분의 먹장구름 덧쌓인/ 네 가슴 광-광-두드려/ 억만비줄기를 눈물로 쏟으라》, 《떨리는 주먹에 복수를 감아 쥐고》, 《렐사들의 령혼이 지켜 보는/ 이 함포비앞에서/ 목숨 같은 맹약을 다지나니》...

이상의 시구절들에서만도 우리는 이 시인의 감정의 열도와 그 세기와 압을 느끼기에 아쉽지 않다.

이 시인의 통일주제의 시창작과 그의 시작품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작가의 창작생활에서 작품창작의 대상-즉 생활의 영역과 소재, 주제는 작가의 사회력사적, 시대적임무에 대한 사명과 책임감에 의하여 선택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영역이나 소재, 주제는 작가의 그 어떤 기질이나 심리, 창작적취미와 경향에 의하여 선택되고 창작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작가의 창작생활에서 작가의 창조적경험이나 예술적취미와 기호는 일정하게 작용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을 기본으로 보거나 절대시할 수는 없다. 경험이나 취미, 기호는 작품창작에서 그 개성을 살리는데 일정하게 도모되며 기여하게 되는 보조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하여 나무람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일 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시인이 자기의 력사적, 시대적사명과 책임을 피와 살로 체감하고 자각하는 량심, 그 료리도덕적의식은 생리적기질과 심리의 반영은 아닌 것이다.

인간의 량심은 일반적으로 두가지의 도덕적의식구조를 가지는바 그 하나는 자기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판단의식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가 수행한 행위를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료리도덕적 감정이다. 량심의 의식구조를 이루는데서 중요한 것은 사회공동의 리익과 사회생활의 요구와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부추겨 주는 도덕적의지인 것이다. 이 시인이 지닌 혁명적량심은 분열된 조국 앞에 지닌 자기의 공민적, 시인적사명과 책임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의 숙원이며 우리 인민의 절박하고 당면한 혁명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이라는 념원과 지향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게 하였다. 그것은 그렇게 선택하고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며 자기 선택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가 선택한 길을 계속 걸으려고 하는 정신도덕적의지를 내용으로 하는 료리도덕적의식인 것이다.

이 혁명적량심, 료리도덕적의식에 의하여 시인 장혜명이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통일주제의 문학이었다.

그가 대학시절, 바로 그때에 쓰지 않고서는 아니되었던 시 《남녘의 학우들에게》를 나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독자들은 그가 통일주제의 시를 쓰게 된 까닭과 그 어떤 연유, 동기와 계기가 있었기때문이라고 생각하였거나 몇몇 시인들은 그것을 그의 인간생리적기질과 그 심리의 발현, 예술적취미, 기호, 경향으로 보아 온적도 있었다. 이것은 시인들의 창작을 그들의 생활경위나 그

어떤 연유, 실질적동기와만 연관시켜 보려 한 제한성이며 또한 작가의 인간적개성을 그들의 창작생활과 작품에 미치는 작용으로 절대시하는 잘못된 견해이며 관점이다.

《주체문학론》에 명백히 밝혀 진바와 같이 우리는 문학예술창작에서도 사상론을 주장하고 있다. 문학예술창작은 사상이 결정한다. 애국적인 작가만이 애국적인 작품을 쓸수 있고 혁명적작가만이 혁명적인 작품을 쓸수 있다.

이 시인의 통일의 열원은 사랑과 증오의 사상감정에 있으며 그의 시정신은 통일의 신념과 주장, 통일의 지향과 리상에 있다.

나는 그가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전에 것처럼 심려하셨던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간곡한 유훈을 가슴에 새겨 안고 몸부림하며 피와 살과 땀을 태워 통일의 시를 지으려는 그 뜻과 량심이 소중한고 장하게 여겨져서 허물은 좀 있어도 그의 시편 하나하나를

귀중히 여기게 된다. 나는 시인의 뜨거운 심장과 남다른 창작적재능과 순결한 창작적량심을 믿어 의심치 않거니, 시인이여 그대는 우리 수령님의 통일유훈이 력력히 새겨 지고 우리 장군님의 통일의지가 력력히 새겨 진 통일신념의 노래, 통일리상의 노래를 지으라!

송이송이 불같이 타고 떨기떨기 향기로운 《시의 붉은 꽃》을 엮으라!

바라노니, 시인이여 그대 불 타는 시의 푸른 녀를 안고 식지도 꺼지지도 않는 시의 불을 안고 통일의 노래 부르고 불러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모습을 더 뚜렷이 하라! 주체의 강성대국건설 마당에 나뭇기는 기발 같은 시를 위해, 분렬의 장벽 허물어뜨리는 폭탄 같은 시를 위해 시인이여, 열혈의 시인이여, 그대의 불 타는 통일열원, 시의 푸른 나래를 펼쳐 도약하고 도약하여 완성에서 더 높은 완성에로 치달아 오르라- 나의 사랑인 통일시인이여...

시인과 통일

박세일

6월의 평양에서 울려 퍼진
《북남공동선언》의 발표-그때로부터
이 행성을 가열시킨 그 열과를 호흡하며
시의 용광로
나의 심장도 달아 올랐다
시인의 피가 설설 끓는다

못 참아
내 서둘러 붓을 드니
이 가슴 가득
서정의 바다는 출렁이며
홍분의 파도를 일으키나니

시를 써도
통일의 열망처럼 뜨거운
시의 불길을 지퍼야겠다
통일의 소원처럼 절절한
시의 걱정을 터쳐야겠다

하여 나의 시여
피줄처럼 뽑아 낸 너 한줄한줄
겨레의 가슴가슴 반세기나마 쌓인
불신과 오해의 빙산을 녹이는
화해의 해살로 흘러 들라

뉘를 부어 다스린 너 한편한편
그대로 땡땡 여문 총탄이 되어
통일을 가로 막는 놈들의 염통에

정통으로 날아 가 박히라

시는 기발과도 같아
나의 시여
평양에서도 보이고
서울에서도 보이고
제주도끝에서도 다 바라보이게
통일의 아침노을빛으로 펼쳐이라

그리고 울려 가라
홀어 지고 갈라 진 7천만 우리 겨레
백두산 한지붕아래
아버이 한품으로 불러 들이는
나팔소리로 랑랑히 울려 가라

환희의 불꽃인 나의 시여
감격의 폭발인 나의 시여
김정일 장군님 높이 모신
통일광장의 하늘가로 날아 올라
축포의 꽃보라로 황홀하게 피어 나라

사랑을 고백하듯 고백하노니
나의 얼굴인 나의 시여
내 삶의 흔적인 나의 시여
사람들 기억속에 나의 이름이
그저 시 쓰는 시인이 아니라
분렬의 장벽에 황광-온몸을 부딪쳐
다문 몇조각만이라도 내 손으로 뜯어 낸
아, 한덩이 폭약으로 남게 해달라!

로씨야영화의 밤

알렉세이 와틀라모브

문철 (역)

1

벨지끄의 자그마한 도시에서 나는 어느 날 로씨야인 두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날로 말하면 해외출장을 온 나에게 있어서 제일 쓸쓸한 날이었다. 모스크바에서 안해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왔는데 내용인즉 그가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경우 입국사증을 내주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벌써 몇달동안이나 떨어져 있었었던지라 나는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무척 간절하였다. 그런데 입국사증을 내주지 않다니. 마치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라도 떨어 진것 같았다. 처 역시 심정은 갈을것이다. 수화기에서 들리는 안해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는듯 싶었다. 그는 나를 위로하려고 애 썼고 나는 나대로 처를 달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을 저마끔 홀로 견디며 내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나에게 방을 세 내준 친절한듯 하면서도 어딘가 린색한데가 있는 집주인들과 함께 너렁청하고 썰렁한 집안에서 저녁시간을 보내기가 싫었다. 이해하기 힘든 그들의 말을 들으며 흑맥주를 들이키고 벽난로의 가스불을 지켜 보는 일이 귀찮아 산보를 하려고 밖으로 나섰다.

2월 중순이었다. 모스크바의 겨울을 련상시키는 추위가 방금 물러 간 뒤였다. 거리의 날씨는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고 몹시 쌀쌀하지만 아직 눈은 내리지 않고 운하들이 얼어 붙기 시작하는 우리 수도의 초겨울을 방불케 하는듯도 싶었다.

어느새 나는 인적이 드문 튀르크예인거리에 들어 섰다. 상점들과 음식점들, 약국, 리발소들이 잇달린 3층집들을 지났다. 하늘에서는 세가지 색깔의 조명빛이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였는데 꼭 조명탄들 같았다. 도시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영화관을 장식하는 조명빛이었다. 얼마전부터 얼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운하의 시커먼 물결우에도 그 장식빛이 비끼었다.

이 자그마한 도시에서는 제일 많이 눈에 띄우는 것이 대학생들이었다. 자전거를 탄 젊은 대학생들이 나를 계속 따라 앞섰고 이따금 오토바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결을 달려 갔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고즈넉한 정적이 깃들군 하였다.

나는 인차 광장으로 나섰다. 황혼빛에 거뒀한 자태를 드러내며 큰 사원이 광장에 우뚝 서 있었다. 거리가 점점 좁아 졌다. 상점과 식당들이 더 자주 나타났다. 거리를 면한 일부 건물들의 현관

에서는 보행인들을 유혹하며 네온등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외면하였다. 내가 이제 그중 어느 술집이라도 머리를 디미는 때면 나의 고독과 애수가 몇배로 더 강해 지리라는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던것이다.

걸음을 옮기면서 나는 생각에 잠겼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음에 꼭 드는 이 매혹적인 나라를 안해와 아들에게 선물하고 싶지 않았던가. 이 도시에서는 게르만족의 지나친 풍요와 너무 곳곳한 질서도 찾아 볼수 없고 네덜란드인의 린색성이나 실무성도 보이지 않으며 프랑스인들처럼 멋을 부리거나 교만하게 구는 사람도 볼수 없었다. 물론 나는 이 도시가 나의 심장처럼 귀중한 도시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살뜰한 도시라고 생각지는 않았다. 단지 유럽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로씨야인들에게 그중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 지는 도시일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 졌다. 나는 하던 일을 다 켜버리고 이곳을 훌쩍 떠나가 버리고 싶은 충동을 누를수 없었다. 안해와 아들에게 입국사증을 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는 자신에 대한 모욕 같은것을 느꼈던것이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지도 몰랐다. 모스크바주재 대사관에서는 자기들이 할수 있는것 다 했을것이다. 하지만 로씨야인들이 서로 만나서는 이곳에 영주할 공공의를 한다고 본 관리들도 한둘이 아닐것이다. 사실 가난한 나라들에서 도망쳐 온 이 주민들때문에 유럽은 지금 큰 골치거리를 안고 있었다. 그러니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오려는 녀인에게 사증을 내주지 않을법도 한것이다.

그렇다고 안해가 아들을 떼두고 여기로 올리는 만무하였다. 자식과 헤어질바에야 비록 가난할지라도 한생 조국에서 살려 할것이다.

우리는 로씨야인들이었다. 이 한마디가 모든것을 말해 주었다. 문명한 유럽인들의 눈에는 나의 조국이 무서운 로씨야마피아의 나라로 보였다. 그들은 우리를 멀리 하였다. 하긴 그것은 그들의 권리였다. 나는 이곳 상점들의 화려한 매대앞에서서 판매원들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빵도 치즈도 과일도 샀지만 언제나 자신이 이 도시에 온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제2부류의 나라에서 온 손님처럼 느껴 졌다. 나의 이 구슬픈 심정을 이곳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들은 나를 동정하긴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들의 머리에 무정형의 큰 덩어리처럼 드리워 있는 이 야만

의 나라가 금시라도 평화로운 삶을 즐기는 거리와 상점, 무도장들우에 떨어 저 모든것을 박살내지 않겠는가하는 위구에 싸여 있을것이였다.

나는 밤거리를 걸으며 나와 이 세계를 갈라 놓고 있는 낭떠러지에 대해 생각하였다. 이곳에서 몇달동안 살면서 나는 그 낭떠러지를 애 써 보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우리 벗들도 그런 소리를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내 일신상에 관한 일이 아니라 다른 동포들과 관련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소홀히 여겼던 일들이 지금 뇌리에 되살아 오르는것이였다.

언젠가 경찰에서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온적이 있었다. 일인즉 로씨야인을 몇명 체포하였는데 통역이 요구된다는것이였다. 알고 보니 우리 연구소에 통역으로 동원되기로 경찰과 미리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무때나 그 사람을 데려다 쓰고는 보수를 주었다.

사건은 간단하였다. 상품을 실은 차가 뒤집혀 있고 그결에 로씨야인들이 서 있는것을 띠여 보고 이곳 주민들이 그들을 억류하였다. 로씨야인들은 자기들한테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저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동차결에 발걸음을 멈추었을뿐이라고 했으나 끝내 경찰의 손에 넘어 가고 말았다.

《그래 일이 어떻게 끝났소?》 내가 호기심이 동해서 물었다.

《모르겠소. 아마 돌려 보냈겠지.》라고 말하며 통역원은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때는 이 말을 듣고 별로 깊이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니 아마 그 시각에 자동차결에 도이쉴란드인들이나 미국인들이 서 있었다라면 일이 달리 되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눈에 거슬리는것을 아직 한가지도 보지 못했고 또 모두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주었으며 많은 집들에서 초청해 주기도 했던탓에 기분이 떠서 그때 그 말을 흘려 들었던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모든것이 한순간에 허물어 졌다.

나는 취하도록 마시고 싶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밤이 무사히 끝날것 같지 않았다. 가슴속에 잠자고 있던 슬픔이 밖으로 뿔어 저 나와 무슨 일이라도 치르고야 말것 같았다. 그렇다고 숙소에서 혼자 마실수도 없고 내 일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 자유세계에서 태어나 무게 있는 공민증을 가진 덕에 어느 나라에 가도 배척을 받지 않는 이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거리의 술집에서 마실 생각은 더욱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밤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단을 오르고 다시 내려 자그마한 다리들을 건느다가 발밑에서 번쩍거리는 물을 발견하고 걸음을 툭 멈추었다. 그러자 이날밤에 내가 있을곳이 바로 여기로구나 하는 생각이 불

쑥 들었다. 아마 그때가 10시쯤 되었을것이다. 비가 그냥 내렸다. 날씨는 오히려 좀 따스해 지는 듯 하였다. 바다가 멀지 않은 이곳은 기후변동이 심하였다. 이젠 이곳에도 정말 봄이 왔는가 싶었다. 안해는 편지에 쓰기를 모스크바에 지금 레년에 없이 춥고 맑은 겨울날씨가 계속된다고 하였다.

조국이 그리운 생각은 별로 나지 않았다. 아마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꽉 채우기때문이라. 아니면 여기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도 몰랐다. 이따금 나는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 보곤 하였다. 여기에 영주해서 살 생각이 있는가? 안락을 위해 그리고 힘들게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을 위해. 지금까지 굳혀 온 신념과 감정을 다 묻어두고 낯선 인간들과 귀에 선 언어속에서 순수 생만을 즐기며 죽을 때까지 이방인으로 존재할수 있겠는가? 나는 대답할수 없었다.

2

어디선가 문득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들려 왔다. 천차선로에서 좀 떨어진 골목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나는 그쪽으로 돌아 섰다. 높은 담장너머로 마당이 보였는데 그 마당으로 이상한 차림을 한 사람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붉은군대의투를 입은 사람, 귀뚜개가 달린 겨울군복을 쓴 사람, 로씨야녀인들이 흔히 입는 소매가 없는 짧은 자켓트를 입은 녀성들도 보였다. 한쪽에서는 마당에 불을 피워 놓고 꿀바싸들을 굽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바람벽에 대고 로씨야의 옛 기록영화를 돌리고 있었다. 비방울이 점점이 떨어 지는 속에서 비치는 화면들에 레닌그라드의 모습이 나타난다. 동궁앞광장과 운하들, 이싸아끼엵스키사원...

나는 깜짝 놀랐다. 비 내리는 이국의 밤, 꿀바싸를 굽는 불빛, 건물벽에 비쳐 지는 레닌그라드의 모습, 쏘련군복을 입은 사람들...

나는 담장에 다가갔다.

《로씨야영화의 밤》이라고 이 나라 말로 쓴 간판이 보였다. 표를 파는 처녀가 나에게 이곳 대학생구락부에서 밤마다 안드레이 파르콥스키와 니끼따미할코브의 영화들을 상영하며 로씨야위드카와 로씨야남새국을 대접한다고 알려 주었다.

군인의투를 입은 사람들은 이곳 종합대학에서 슬라브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였다. 이 모임을 조직한것도 바로 그들이였다. 나는 호기심이 부쩍 동했다. 법학이나 의학, 경제학과 같은 인기 있는 학문을 외면하고 생소한 로씨야어를 택한 이 청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우리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몇해가 지나면 이들역시 나와 나의 자식들을 페스트환자처럼 꺼려 하면서 입국사증도 내주지 않고 우리 나라와 영원히 손을 끊으려고 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와 한 형제로 살려는 선량한 마음과 고결한 넋을

지닌 청년들은 아닐까?

머리칼이 새까만 아릿다운 처녀에게 300벨지끄 프랑을 주고 나는 표와 자그마한 딱지 두개를 받았다. 노란 딱지는 워드까딱지이고 파란 딱지는 남새국딱지였다. 처녀는 로어로 말을 오래 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말을 더 건네려 하자 그는 자신 없는듯이 상긋 미소를 짓기만 하였다. 나는 사기로 만든 빈 고뿌를 들고 조용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이날 밤 다리가 아프도록 돌아 다녔지만 이 구락부보다 더 좋은 곳을 찾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문 몇시간동안이라도 이곳에 앉아 영화를 보며 휴식하리라 마음먹었다.

이때 표 파는 처녀가 한쌍의 젊은 남녀를 데리고 나한테로 다가오더니 살뜰하게 웃으며 소개해주었다.

《이곳에서 사는 로씨야사람들이예요.》

그 순간에 내가 느낀 감정을 반가움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까지 나는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의 권리에 대해 말도 많이 하고 그들과 하나의 운명으로 련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사실 동포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떤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 어디까지나 범인류적인 추상적성격을 띤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인지 이곳에 와서 동포들을 띠여 보거나 그들이 하는 모국어들을 들으면서도 선뜻 가까이 가게 되지 않았다. 자칫하다가 로씨야계통의 마피아한테 걸려 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다.

더군다나 내앞에 나타난 남녀동포는 무척 괴벽해 보였다. 사나이는 키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단하게 생기고 목이 쑥 빠졌으며 통통한 손가락들에는 값진 보석반지들이 끼여 있었다. 녀인은 감각적인 입과 우아하게 생긴 손, 검은 눈, 금발머리로 해서 매우 아름다와 보였다. 그들은 나와 알게 된것을 그닥 기뻐 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그들의 미소와 나를 대하는 태도에는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운데가 있었다. 내가 자기들을 경계하고 있으며 대답도 하지 못해 한다는것을 그들도 간파한듯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 사이에는 뭔가 어정쩡하고 미적지근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솔직히 이 《로씨야영화의 밤》에 내 심사는 그닥 편안치 못했던것이다. 아마 이들도 가슴속이 개운치 않아 로씨야목소리가 들리는 이곳으로 왔을것이다. 유쾌한 슬라브어학자들속에서 우연히 만나 악수나 하는것으로 끊어 지고 말번 한 우리의 상면은 이력저력 이어져 서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워드까를 한고뿌씩 손에 들고 마시며 담배를 피웠다. 사나이가 나를 뵈히 쳐다보며 물었다.

《쑤베트촌에서는 일이 잘되어 갑니까?》

《쑤베트촌》이라는 말이 나의 귀에 매우 거칠게 들렸다. 어쩐지 그 말이 모욕적으로 들렸던것이

다. 아마 이 사람들은 나의 인격을 직접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더 모욕적인 말도 던질수 있을것 같았다. 나는 두리몽실하게 한마디 하고는 내쪽에서 물었다.

《여기에 오신지 오래니까?》

《2년반이 되어 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젠 살만합니다. 일도 하고 집도 세냈지요. 얼마전엔 차도 한대 샀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거둔 성과에 대해 보고라도 하는듯 한 어조로 말했다. 녀인은 그의 안해 같아 보였는데 잠자코 곁에 서 있기만 하였다. 녀인은 정말 반할만큼 잘 생긴 녀자였다. 눈길을 천천히 돌리는 모양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그것은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있는 로씨야녀인들에게만 고유한 것이었다. 그는 내가 자기를 지켜 보고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조금도 무안해 하지 않았다. 마치 나의 지나친 호기심을 너그러이 리해하고 그걸 만족시켜 주려고 애 쓰는듯 하였다.

영화가 시작되는 바람에 우리는 이야기를 더 나누지 못하였다. 자그마한 강당이 사람들로 꽉 찼다. 대학생들은 긴 의자에 앉기도 하고 쪽걸상이나 창턱에 걸터앉기도 하고 벽에 기대서 있기도 하였다. 《오블로모브》를 방영하였다. 실내 여기저기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나는 이 청년들이 우리 생활을 어떤 눈으로 보며 이 영화와 함께 로씨야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 내려고 애 썼다.

영화는 대학생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집에 갈념을 안했다. 매부가 끝날 때마다 잠깐 휴식하고는 다시 강당안으로 들어 갔다. 마치 자기들이 보고 싶은것이 영화에 있고 격이며 인칭변화며 하는 까다로운 규정들이 붙은 미개하고 복잡한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영화를 보는데 있는듯 싶었다. 나는 이미 10여년전에 이 영화를 보고 동무들과 감상토론했다. 그러나 외국인들과 함께 관람하면서 나는 《오블로모브》가 우리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꼭 들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이날 저녁에 하나의 선물을 받은셈이었다.

고작 300벨지끄프랑을 내고 모욕당한 로씨야인의 우울한 심사에서 해방될수 있었으니 말이다. 물론 나는 이곳에서 한달동안에 조국에서 한해동안 일한것보다 더 많이 벌었다. 이번 출장은 내가 일시나마 가난에서 벗어나 자기를 인간으로 느낄수 있는, 세계를 볼수 있는 기회였는지도 모르지만 그대신에 나는 나자신조차 다 인식할수 없는 값을 치르어야 했다.

영화는 내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었다. 게다가 약간 취하기까지 하여 나는 지금까지 지켜 오던 자제력과 조심성을 잊었다. 강당을 나서서 담배를 피워 무는데 젊은 부부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여기에 혼자 왔는가 아니면 가족을 데려왔는가 그들은 몰랐다. 나는 안해가 입국사증을 받지 못했다고 한마디 비쳤다.

그들은 놀라지 않았다. 웬간해서는 로씨야인이 입국사증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이 친구들도 들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내 목소리에서 동정을 바라보는 것 같은 어조를 느꼈는지 그들은 우리가 다시 조용한 구석에 마주 앉자 나에게 자기들이 겪은 일을 들려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순수한 로씨야식 발음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발음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서로 말을 꺾기도 하고 논쟁도 하였으며 이따금 의견을 달리하는가 하면 맹목적으로 호상 지지하기도 하였다. 교훈삼아 나에게 들려 준다고도 볼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나는 이상한 자극을 받았다. 그것은 그들이 서유럽을 방황하면서 겪은 모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가 전부 진실이라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들이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그 이야기에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들의 이야기는 이국세계에서 사는 로씨야인에 대한 나의 견해를 확고히 하는데서 또 하나의 증거로 되었다.

3

그들 둘은 아르메니아 태생들이지만 혈통과 언어 측면에서 보면 로씨야인들이었다. 남자는 단파 대학을 졸업하고 녀자는 음악학원을 나왔다. 생활이 점점 어려워 지기 시작하고 땅 가진 사람과 장사능력을 가진 자만이 살아 갈수 있게 되자 그들은 로씨야로 왔다. 그곳은 그래도 좀 나았다. 그러저럭 일자리를 잡을수는 있었다. 하지만 젊고 야심만만하고 또 적당히 살아 가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세대인지라 그들은 친척들과 연계를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며 서방으로 뚫고 들어 갈 길을 찾았다. 입국사증도 해외공민권도 그들한테는 없었다. 청춘과 《쑤베트촌》에서 탈출하려는 강렬한 의욕만 있을뿐이었다.

처음 그들은 뿔스카로 갔다. 그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멀리 가고 싶었다. 도이쉴란드와 국경을 접한 자그마한 도시에서 몇주 일 살면서 저쪽으로 건너 갈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도시는 두개 지역으로 나누어 져 있었다. 국경초소에서는 공민증들을 검열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쓸어 든다든가 보초교대가 늦어질 때가 있었다. 그런 때가 빠져 나가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먼저 남자가 모험을 하였다. 통과할 사람들이 많은 틈을 타서 그는 초소를 에돌아 작은 기발들이 꽂혀 있는 국경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운수가 좋았다. 중년의 도이쉴란드인 초소장이 어서 건

너가라고 손을 뻗 저었다. 그리하여 그는 젊은 안해를 뿔스카땅에 남겨 둔채 홀로 이전의 사회주의 공화국인 지금의 도이쉴란드 연방공화국 땅에 들어 서게 되었다. 그는 곧 정부기관을 찾아 가서 자기는 항시적인 기아의 위협을 받으며 사는 나라에서 도망쳐 온 사람이라고 자수하였다. 잘 믿어 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를 되돌려 보내지 않고 받아 주었으며 이주민 수용소에 넣어 주었다. 그곳에서 하는 일 없이 애수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덕에 꽤 많은 식사와 함께 용돈까지 얼마간 보상 받았다. 정부가 그에 대한 개인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는 몇달동안 줄곧 수용소 생활을 하였다.

그동안에 젊은 녀인은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벌어 먹고 살았는지 누가 알랴. 하지만 녀인의 뛰어난 미모와 젊은 나이치고 너무도 많은 것을 보아 온듯 한 두눈을 보느라니 나의 뇌리에는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구태여 그 생각들을 증명해 보이려고는 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파보아서는 뭘하겠는가?

여러달이 지나서 그는 립시공민증 비슷한 것을 받고 안해를 데리러 뿔스카로 갔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만났으나 함께 국경을 건너려다가 다시 억류되었다. 남편에게는 통과하라고 하였으나 안해는 거절 당하였다. 자기들은 부부간이라고 국경초소원들에게 사정도 해보았으나 공연한 노릇이었다. 다시 헤어지는 수밖에 없었다. 뿔스카에서 더 살아갈만한 돈도 없었다. 안해는 생각다 못해 한 소형집착운전수에게 자기를 제발 데려다 달라고 졸랐다. 그리하여 그는 짐작안에 숨어서 벗들과 친척들, 전쟁로병인 아버지를 비롯하여 정든 사람들을 영원히 등지고 도이쉴란드 땅으로 들어섰다. 아버지는 언젠가 자기가 싸워 이긴 원수에게 빵부스레기를 바라고 투항한 딸을 반역자라고 저주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어떤 무서운 악몽보다 더한 것이었다.

이주민수용소에서 이력저력 지내다가 녀인도 끝내는 도이쉴란드에서 살 허가를 받았다. 당시 그곳에는 로씨야와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로 차고 넘쳤다. 도이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보상한다면서 그들을 모두 받아 주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사나이는 말을 잠깐 그치더니 갑자기 악의에 차서 중얼거렸다.

《난 그 유럽사람들을 리해할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유럽인이었다면 그들이 전쟁기간에 감행한 만행을 보고 도이쉴란드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역시 유럽인들이예요.》 녀인이 반박하였다.

녀인이 뭘 녀두에 두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혹시 남편보다 더 많이 쫓겨 다니며 도이칠란드의 거의 모든 지역에 가보는 파정에 이 부유한 나라의 재부속에 승리한 인민의 두 후손에게 차례질것은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확신하고 자기들이 보다 서쪽인 벨지크로 오게 된것을 녀두에 두었는지 모른다. 이곳은 도이칠란드보다 도시들도 가난하고 도로나 거리도 낙후하였지만 모든것이 보다 단순하고 무질서하고 자유로웠다. 그리고 살려고 찾아 오는 사람들을 쫓지도 않았다.

우리는 이미 술을 몇고뿌째 들이켰지만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다. 나는 워드까를 파는 녀인에게 한병 더 요구하였다. 좌석에는 차츰 화기에 찬분위기가 흘렀다. 우리는 남새국을 안주 삼아 워드까를 마셨다. 이야기하는 사나이의 목소리도 점점 활기를 띠었다. 그는 자기들의 일이 아주 잘되었다고 하였다.

사실 그들은 운수가 매우 좋았다. 타국민이 이 주민형식으로 들어 설수 있는 문은 언제나 빨리 닫기는 법이다. 그래서 그 문을 요행 빠져 나와 해외에 거주권을 가지고 살수 있는 로씨야국민은 몇명 안되었다.

그들이 이곳 말을 배우고 이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기업주가 그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또 이웃들의 반영도 좋고 로씨야인들이 잘 걸려 들곤 하는 시끄러운 사건에도 전혀 걸려 들지 않는 등의 요구조건을 지키면 다섯해후에는 공민권을 얻을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로씨야공민권을 포기해야 하며 동포들과 접촉도 하지 말고 고향에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를 모두 잊고 령에서부터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생활을 꾸리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처음에는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집을 얻을수도 일자리를 구할수도 없었다. 《집을 판매합니다.》라고 쓴 광고가 어디나 붙어 있고 신문마다 차고 넘쳤지만 그들이 정작 전화를 걸면 모른다고 딱 잡아 떼기가 일쑤였다.

그들이 로씨야인이라는걸 어떻게 알아 냈던것이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몇푼의 보조금을 받으며 공동주택에서만 살수 있었다. 그 돈이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생활을 유지할수 있는 량이었다.

그러나 일자리라도 잃게 되는 날이면 아무리 공민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용빼는수 없이 굶어야 했다. 그래서 젊은 부부는 늘 궁핍과 실업에 대한 공포, 자기들은 아무짝에도 소용 없다는 렬등감을 지니고 하루하루 살아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략심하지 않고 근기 있게 노력

하였다. 언어에 대한 남 다른 취미는 없었으나 말을 배웠으며 일자리를 찾고 또 찾았다.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였다. 아이도 봐주고 방도 청소해주고 위생실도 소제해 주고 식당에서 바닥도 밀고 고뿌나 그릇도 닦아 주었다. 이 나라 국민의 10%가 실업에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니 이들 두사람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어떻게 쉽게 차례질수 있었으랴. 더구나 로씨야인들을 쓰려는 데는 어디에도 없었다. 량만적인 개편의 시대가 지나간 뒤라 그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한 평가가 매우 나쁜 때였다. 녀인은 《장미꽃》을 팔러 가고 남자는 대도로에 나서서 구걸하는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무렵에 그들의 머리우에 행운의 별이 떴다. 사나이의 건장한 체격을 보고 가구공장에서 짐꾼으로 받아 주었다. 시험기간에 그는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 젓 먹던 힘까지 다 썼다. 그리고 새끼양처럼 온순하게 굴었다. 결국 합격되었다. 그러자 일이 약간씩 풀리기 시작하였다. 방을 세낼수 있었다. 하지만 웅근 한해를 또 극복해야 했다. 로씨야인들이라고 이웃들이 그들과 인사조차 나누려 하지 않았던것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 압박 받고 천대 받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 나의 이 친구들이 얼근히 취하지만 앓았더라면 이런 말까지 죄다 하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인격과 존엄에 대해 잊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마 그들의 근면성과 소박성이 이웃들을 마침내 감동시킨듯 하였다. 젊고 눈치 빠르고 싹싹하고 조용한 사람들이다. 함께 살만 하다.

인차 안해에게도 일자리가 생겼다. 이웃건물에 자리 잡은 카페를 청소하는 일이었다. 돈이 생기자 그들은 랑동기를 사고 벨지끄인친구들을 초청하였다. 안해는 음악개별수업도 하였다. 이웃들은 그들도 인차 공민권을 받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기뻐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표정은 매우 착잡하였다. 위험이나 병 같은것을 무사히 이겨 낸 사람들처럼 만족에 싸여 지나간 일을 돌이켜 보는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솟아 나지 못하리라는 위구와 불안을 애 써 감추는 사람들 같기도 하였다. 나로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치 않았다. 그 이야기가 수난자의 인생행로처럼 들렸던것이다. 내가 만일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들이 버리고 온 조국에서는 일이 다 잘되어 가고 있는가? 이들도 《쑤베르

촌》에서 일이 잘되어 가는가고 물었지. 하긴 이들은 내가 그 《촌》을 저주하고 자기들을 부러워 하길 바라는것이다.

나는 저주할 생각도 부러운 생각도 없었다. 내가 이제 이들에게 무슨 말을 더 하랴. 떠나왔으니 이제 잊으시오, 당신들이야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니지 않소. 그렇게 말할수도 있다. 또 그렇게 말하고도 싶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변절자를 증오하는 일과 젊고 아름답고 근로하는 그리고 술망나니도 아편중독자도 아닌 구체적인 인간들을 마주하고 싶은 소리를 하는것과는 서로 차이가 있는것이다. 털어 놓고 말해서 나는 그들을 깊이 알게 될수록 정이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나는 부닥치는 난관을 극복하면서 삶을 개척하려고 애 쓰는 그들이 마음에 들었다.

《쑨토프촌》에서 일어 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치고 국내형편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수 있는 로씨야인이 몇이나 되겠는가? 사람들이 그걸 물을 때마다 나는 대답을 피해 언제나 입을 꼭 다물곤 한다.

내가 쓸쓸한 표정을 짓고 말없이 앉아 있자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 처와 아이를 데려다 이곳에서 함께 살려고 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 가 내가 수심에 싸여 있는줄 알고 나를 위로하기 시작하였다. 서두르지 말라, 형편을 보가며 일자리와 집을 잡은 다음 다른 대사관을 통해 처에게 입국사증을 보내도 된다. 유럽에서는 국경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때문에 다른 곳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족을 데려 올수 있다, 그리고 공민권을 얻기 힘들다고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말을 배우게 되면, 보증서들도 있으면 다 살게 해준다,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자식을 위해서야 뭘 가리겠는가?

《그리고 한가지 톡톡히 명심할게 있습니다.》하고 사나이는 말을 계속하였다. 《여기서는 그저 말없이 가만 있으면 편안히 살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느라면 당신의 일거일동을 하나하나 주시 할겁니다.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우리 집 맞은편에 연료공급소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중에 뽀르끼예인이 한명 있지요. 어느 날 우리 부부가 우연히 그 사람결을 지나가다가 무슨 말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보고 웃는줄 알고 우리한테 다가오더니 마구 욕질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를 진정시키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를 모욕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진정을 못하고 점점 더 고아했습니다.》

《분명 심한 모욕을 느낀것 같았어요.》 안해가 말했다.

《더우기 외국인이 뽀르끼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면 큰일난답니다. 참아야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리성을 잃었지요. 불쌍한 사람...》

《이걸 우리 이웃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은 한숨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연료공급소주인에게 그 사실을 대주었지요. 결국 그 뽀르끼예인은 더는 그곳에서 일할수 없게 되었답니다. 여기서는 모든 일을 웃으면서 조용히 해야 합니다. 서른살이 지나도록 온몸에 천을 감고 다니는 뽀르끼예녀자들은 이곳에서 절대로 공민권을 얻지 못합니다. 타곳에 와서도 제 풍습을 버리기 싫어 하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그는 워드까를 한모금 더 마시고 나서 나한테 로씨야에 기업을 하는 친척이 없는가, 자기가 자동차나 방직기 같은것을 팔려고 하는데 런제를 맺어 줄수 없겠는가고 조심스레 물었다.

가까이에서는 대학생들이 맥주를 마시며 한담도 나누고 담배도 피우고 있었다. 세계 어디를 가보나 대학생들은 모두 하나 같았다.

벌써 새벽 4시였다. 《로씨야영화의 밤》은 끝났다. 모닥불이 사그라 들고 군인외투나 자켓트들을 벗은 남녀대학생들, 슬라브어학자들은 하나 둘 자기 시작하였다. 워드까를 팔던 녀인도 끄덕끄덕 졸았다. 영화관을 장식하던 조명등도 꺼졌다. 도시는 잠에 취해 있었다. 집을 찾아 가느라고 거리를 터벅터벅 오가던 마지막보행자들도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 세상에 내 홀로 남아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숙소로 가는 길에 나는 한 뽀르끼예인으로파와 마주쳤다. 로파는 까만 면사포를 쓰고 있었다. 내가 로파에게 눈을 끄쩍여 보이자 그는 놀란듯이 나를 치며 보더니 뭐라고 중얼거리었다. 아마 내가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는 로파에게 엄지손가락을 쳐들어 보여 주었다. 로파는 성난듯이 뺨 돌아 서더니 옆으로 지나가 버렸다. 내가 뽀르끼예어를 모르는게 참으로 유감스러웠다. 만일 알았더라면 《장하십니다, 할머니. 면사포를 계속 쓰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뽀르끼예에서 왔으며 할머니의 조국 뽀르끼예가 이 매력 있는 소왕국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는걸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을것이다.

벌써 동녘하늘이 희붉히 밝아 오기 시작하였다. 그 밝은 노을속으로 압박 받고 천대 받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도 나를 향해 가까이 오는듯 하였다.

(주체88년)

출로

1

고속도로에서 벗어 난 하얀 승용차는 울창한 수림가에 이르러 서서히 멈춰 섰다. 이른바 《문명에로의 지향》이라는 미명아래 더욱더 혼잡하게 변해 가는 워싱턴으로부터 90km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H 자연보호구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이따금 청 높은 소리로 수림의 고요를 깨뜨릴 뿐이었다.

하얀 차체는 가을을 맞아 아름답게 단장된 수림이 시샘할 정도로 유난히 번쩍거렸다. 차에서 50살이 넘은직한 반백의 사나이가 내려 섰다. 그는 헛는 한번 팔지 않고 수림속에 난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색변환도료를 바른 승용차는 주인의 버림을 받은것이 패색한듯 퍼런 색으로 변해 버렸다. 숲속의 나무들은 겨울이 멀지 않음을 예고하며 씩씩이 락엽을 날리고 있었다. 어찌 보면 자기가 뿌리 내린 어머니대지에 새옷을 해드리는것 같기도 했다. 두텁게 쌓인 락엽들은 발이 닿을 때마다 폭신한 감촉을 주었고 흠날리는 락엽들이 얼굴과 목을 간지럽혔으나 사나이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것 같았다. 다만 술진 눈섭을 치켜 들고 《아니, 아니.》 하고 중얼거릴뿐이었다. 지금 사나이의 귀전에 맴도는것은 20분전에 국무장관이 한 마지막말이었다.

《...전 벤자민선생이 <W-U>계획실현에 꼭 참가하리라 믿습니다. 선생을 위해서도 또 장래가 촉망되는 선생의 연구조수인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그 비상한 두뇌가 옳은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문득 살진 눈두덩이밑에서 바지런히 움직이던 국무장관의 노란 눈알이 생각나 벤자민은 쓰겁게 웃었다. 가소로왔다. 덜 진화된것 같은 인간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것이 또 그러한 인간밑에서 일해 온 자신이...

다음순간 조르단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벤자민은 두눈을 꼭 감았다. 국무장관에 대한 아들의 환상을 미리 바로 잡아 주지 못한것이 몹시 후회되었다.

와스스- 가을바람이 락엽들을 거느리고 정면에서 달려 들었다. 벤자민은 머리를 들었다. 무수한

엄호삼

락엽들과 나무들사이로 숲속의 호수가 바라보였다. 순간 벤자민은 흠칫 놀랐다.

(여기야 10년전에 나와 월리가 결별한 곳이 아닌가....)

무엇때문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벤자민 자신도 알수 없었다.

《벤자민, 자넨 너무도 모르고 있네.》

10년전 월리가 한 마지막말이 체념상태인 벤자민의 귀전을 강하게 울렸다. 벤자민은 두손으로 귀를 막으며 괴롭게 신음했다.

《음-》

잠시후 머리를 쳐든 그의 눈가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2

이날 오후, 전국의 통신, 방송들은 일제히 인공두뇌개발센터의 기술고문인 벤자민원사가 자살을 시도한데 대하여 보도했다.

《인공두뇌의 아버지-벤자민씨 자살기도》, 《과학계의 손실》, 《의식적인가, 정신이상인가?》... 등등의 표제밑에 전해 진 각이한 추측들과 결론들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호수에 몸을 던지는 벤자민을 우연히 발견한 늙은 부부가 긴급구조신호를 보낸지 한시간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병원이란 말이 사라져 가던 때이지만 벤자민이 입원한 D. C 병원의 1층홀은 어느새 사람바다를 이루었었다. 접수실의 봉사로보트는 입원실로 올라 가려는 사람들을 간신히 막아 내고 있었다. 사람단련에 지쳤는지 로보트는 일체 정보교환에 응하지 않았다. 홀천정에 설치된 붉은 신호등만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듯 씩씩이 깜박거릴뿐이었다. 사람들은 격분하기 시작했다. 한갓 조립품에 불과한 로보트가 인간의 행동을 방해하고 있다는것이 그들을 자극했던것이다. 이것을 간파했는지 로보트의 언어장치에서 경쾌한 음악이 울려 나왔다. 뒤이어 홀정면의 대형안내판에 병원 원장의 모습이 비쳐 졌다.

《여러분,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규정은 그 누구도 어길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최대관심사인 벤자민원사의 생명에 대해 알려 드린다면...》

유전자설계에 의한 인체개조의 혜택을 받지 못해 키가 작고 통통한 원장의 몸집은 웃음을 자아냈다. 그래도 목소리만은 썩 상냥스러웠다. 음악 효과와 더불어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흥분을 서서히 가라앉혔다.

사람들은 병원 원장의 설명을 통해 벤자민원사가 저녁 7시 현재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였다는 것과 뇌수를 크게 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일상 생활과 연구사업에 지장이 없겠는지 아직은 알수 없다는 것, 환자의 심리상태가 저조한 것이 제일 우려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원 원장은 사람들에게 시급히 해명해야 할 것은 원사를 자살에로 내몬 강한 정신적충격이 무엇때문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부탁인데 철학연구센터의 윌리선생이 래일아침 10시까지 와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하겠습니다.》

안내판에서 병원 원장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경쾌한 음악도 끊어 졌다. 홀에는 고요가 깃들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침묵했다. 알지 못할 그 무엇인가가 그들의 움직임을 통일시켰다. 다름아닌 벤자민원사의 자살시도의 근원이었다. 입원실로 올라 가는 계단식승강기앞에 서 있던 젊은이만이 이상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홀에서 빠져 나갔다. 누구도 이에 주의를 돌리지 못했다.

3

맑은 가을아침이었지만 하늘색조명이 입원실을 밝히고 있었다. 정원쪽 유리벽체에 차광막을 내려 놓아 햇빛 한점 스며 들지 않는 입원실은 쿨직한 푸른 함통이라고 해도 무방했다. 방금전에 병원 원장이 심리치료중이라고 했지만 벤자민에게는 모든 것이 꿈만했다. 침대머리맡의 음향장치에서 울리는, 멀리서 들려 오는 듯한 잔잔한 음악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려 왔고 어린 시절을 생각케 했다. 얼마나 깨끗하고 천진란만하던 시절이었던가...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때에는 흥심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악한들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한 고대동방철학자의 말이 옳단 말인가? 아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면 인류는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제저녁 의식을 회복한 벤자민은 새날이 밝을 때까지도 잠들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참다운 행복과 리상을 안겨줄 것이라고 믿어 왔었다. 현실적으로 풍부한

물질적부의 생산과 축적이 지난 시기에는 인간생활에서 제일 중요시되었던 개인들의 재부축적과 그 가치평가에 대한 논의자체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20세기에 일부 과학환상가들이 예언한 과학기술에 의한 인류의 종말이라는 《렬차》의 운행시간표가 작성되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이 《렬차》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악용한 인간들에 의해, 개인의 명예와 지배욕에 환장한 인간추물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목적지는 《신세계화》로 정해 졌다.

벤자민은 이 사실을 어제아침 국가회의실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W-U》계획발표때에야 알게 되었다. 회의에서는 국무장관이 《W-U》계획에 대한 연설을 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싶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지금 동서방의 몇몇 나라가 과학연구의 새로운 경지에 들어서 경쟁적으로 앞을 다투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멀리 앞섰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그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걸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국가전략연구소에서 작성한 <W-U>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방과 동방의 종교나 철학사조들에게서는 신적인 존재나 정신적존재에 대하여 많이 논의하여 왔습니다.》

연설자는 자국주도하의 《세계화》를 실현하려면 지금까지 학술적으로만 논의해 온 신적인 존재나 정신적존재 같은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데 대해 장황히 역설했다.

《...

지배욕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여 서로 지배하려 든다면 세계는 재난의 참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고급한 두뇌를 가진 인간들에게 렬등한 인간들이 복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W-U>계획에 의한 <신>의 출현은 렬등한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무능을 깨닫게 하여 줄 것이며 <신>을 창조한 사람들에게 복종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열을 올리는 국무장관의 생쥐같은 얼굴을 쳐다보며 벤자민은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저 국무장관도 자기를 《고급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지. ...)

벤자민에게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모두가 가소롭게 여겨 졌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였고 존중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력사발전의 뒤전으로 밀려나 마지막숨을 몰아 쉬고 있는 개인주의사상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고도 새로운 발명이나 되는듯 열을 올리는 그들을 보니 이런 덜 진화된 인간들이 국가정책작성자들이었던 말인가 하는 환멸감을 금할수 없었다. 이 고랑내나는 《W-U》계획이 실현될수 없다는것은 불 보듯 뻔했으나 그 후과를 생각할 때 몸서리치지 않을수 없었다. 벤자민을 더욱 깜짝 놀래운것은 국무장관의 다음말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20세기 말에 들고 나왔던 <세계화>는 너무도 소극적이고 그 실현을 추동하는 강력한 담보가 없었던탓에 강한 반발에 부딪혔으며 종당에는 세계의 일극화가 아니라 다극화의 결과를 빚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W-U>계획은 강력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벤자민원사가 개발한 생물소자에 의한 인공두뇌입니다. 새로운 인공두뇌는 정보처리속도와 처리능력에서 천문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 시냅스들을 조절하면 인간의 지능수준을 감별해 낼수 있을뿐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지향까지도 탐지해 내게 될것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환성과 박수갈채, 아비규환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아니...) 벤자민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

침대에 누워 있는 벤자민에게는 그때 회의를 중단시킨 자신의 행동과 국무장관과의 마지막대화, 자살기도 등이 꿈속에서 흘러 간것처럼 느껴졌다.

4

인공두뇌개발에 대한 국무장관의 말은 사실이였다. 그것은 벤자민의 필생의 연구과제였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성공시킨것이였다. 여기에는 친구인 윌리의 공적도 깃들여 있었다. 대학동창인 두사람은 대학시절부터 인공두뇌개발을 공동연구과제로 삼고 지혜와 정열을 합쳤었다.

20세기 후반기부터 해산진통을 일으킨 인공두뇌는 두사람이 대학공부를 하던 시기에 이르러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우주비행과 핵발전소운영, 해저개발과 날씨예보 등 인공두뇌의 리용분야와 활동능력도 점차 더 확대되고 높아지고 있었다. 당시의 인공두뇌는 뇌수의 주요부위들의 기능을 프로그램화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처리하는 주프로그램에 결속시킨 기억장치-전자뇌수에 불과했다.

벤자민과 윌리는 인공두뇌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리용하기로 결심했다. 대뇌신경세포들의 기능을 대신할수 있는 극소형생물소자를 개발하여 그것들을 결합시킨 인공두뇌를 제작하자는것이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지적활동을 보장하는 대뇌의 세포수는 매 사람의 유전자와 영양상태, 뇌수의 크기 등에 의해 100억~180억개사이로서 평균 140억개로 추정할수 있다. 그런데 매 신경세포들의 기능과 전기적신호, 신호전달물질들이 서로 차이므로 그것을 모방한 생물소자의 종류도 100억개가 되어야 했다. 그야말로 다방면적인 지식과 강의한 인내력을 요구하는 연구였다.

인공두뇌의 선행개발자들은 인공두뇌의 수학적 모형화를 실현한데 기초하여 이미 50억개에 달하는 대뇌세포들의 비밀을 밝혀 내고 체계화해 놓았었다. 이 연구성과들은 벤자민과 윌리가 나머지 대뇌세포들의 비밀을 해명하는것을 가급적으로 촉진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인공두뇌개발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길수 있게 하였다. 윌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행과학자들에게 진심의 감사를 표시했고 과학기술의 진보는 어느 개인의 공적이 아니며 과학기술의 성과가 개인의 독점물로 될수 없다는데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이것이 윌리가 인공두뇌개발만이 아니라 철학연구와 정치활동에도 발을 들여 놓게 된 시초였음을 벤자민은 펍 후에야 깨닫게 되였다.

대뇌세포들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 내고 컴퓨터 모의실험에서도 성공한 두사람은 실현단계에서 큰 문제점에 부딪혔다. 대뇌세포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른 대뇌세포들과 련결된 접속부위(시냅스)들이 수십~수만개나 되였다. 이것은 매 대뇌세포가 수만갈래의 신경회로(결합방식)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였고 뇌수전체적으로는 신경회로망의 갈래가 천문학적수자에 달한다는것을 의미했다. 그러니 대뇌세포를 모방한 극소형생물소자로 인공두뇌를 제작하는 경우 그 크기가 초고층건물과 맞먹는 엄청난것으로 될수 있었다. 그리하여 벤자민과 윌리는 극소형생물소자를 집적한 극미소생물 집적회로개발을 선행시켰다. 그것은 인공두뇌의 크기를 사람뇌수의 크기와 비슷하게 할수 있었다.

하지만 성공에로의 길에 가로 놓인 장애물이 완전히 없어 진것은 아니였다. 얼마후 뜻밖에도 윌리가 인공두뇌개발센터에서 탈퇴하는 비상사건이 벌어 졌던것이다. 둘도 없는 친구이며 방조자였던 윌리를 잃은것은 벤자민에게 있어 큰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그때에도 벤자민은 쓰러지지 않

있었다. 그런데 수십년간의 고행길을 걸어 성공의령마루에 올라 선 그에게 흉측한 《피물》이 덩어 들줄이야...

침대에서 일어 난 벤자민은 유리벽체쪽으로 다가가 차광막을 제껴 놓았다. 밤색의 유리벽체를 통해 변화한 거리의 전면모가 선명하게 안겨 왔다.

(...물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방대한 자료와 정보들을 기억할수 있는 인공두뇌에 비해 다양한 정보처리의 속도나 정확성에서 못하다고 볼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성이 결여된 《기계적사고》를 하는 인공두뇌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창조적활동을 방조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할뿐 결코 사람의 유연한 사고능력을 흉가할수 없는것이다. 더우기 인공두뇌는 인간지성의 산물, 인간발전의 산물이다. 문제는 자주정신과 창조적적극성, 현대과학기술발전에 맞는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인 경우 인공두뇌를 그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로, 심지어 인간의 지배자로 오인할수 있다는것이다. 《W-U》계획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다.)

5

아침 8시였다. 윌리가 도착할 때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다. 벤자민이 그를 특별히 부른것은 자신을 속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껏 벤자민은 인공두뇌개발센터에서 탈퇴한 윌리를 두고 과학자의 본분은 물론 친구의 의리마저 저버린 배신자로 낙인해 왔었다. 그러나 저승의 문턱에서 되돌아 오고 보니 자신이 너무도 청맹파니었음을 뼈저리게 뉘우치게 되는것이였다.

《벤자민, 자넨 너무도 모르고 있네.》

이것은 10년전 윌리가 한 말이였다. 그날은 인공두뇌개발센터의 연구사인 동시에 이름 있는 대학의 명예교수인 윌리가 《불건전한 사상주입》이라는 오명을 쓰고 강의권리까지 정지 당한 날이였다.

장마철이여서 이날은 시꺼먼 먹장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우르르, 팡》 하늘을 산산이 찢어발기며 번개가 지더니 요란한 우뢰소리가 뒤따랐다. 온 우주가 성난듯 싶었다. 이에 도전하여 얼마전에 개발된 특대형상온초전도축전기의 뾰족한 안테나들이 머리를 쳐들고 번개를 잡아 들였다. 비 오기 직전에는 대기중에 음이온량이 많아 저 사람들의 기분을 돋구어 준다지만 숲속의 호수가에 서 있는 벤자민과 윌리의 표정은 심각했다.

《윌리, 언제인가 내 말했지만 과학자가 정치에

상관할 필요는 없는거야. 오늘일만 봐도 그렇지 않나...》

벤자민의 말에 윌리는 긴 한숨을 내쉴뿐이였다. 강한 정신적충격으로 하여 그의 눈확은 몇시간 사이에 폭 꺼져 들어 갔었다.

벤자민은 속에서 불이 일었으나 윌리의 처량한 모습을 보니 더 말할수 없었다.

후두둑- 마침내 큼직한 비방울들이 나무잎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빙어리가 된듯 싶던 윌리가 두눈을 똑바로 뜨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물론 과학자가 정치가는 아니네. 하지만 세계에는 아직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상조류들과 그 잔재들이 남아 있네. 때문에 과학자가 정치를 배제하면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것과 같은 결과를 빚어 낼수 있지. 지금 일부 정치가들이 떠드는 <인간개성의 보장>이나 <인간개성의 다양화>가 별로 새로운 말이 아니지만 사람들사이에 불화를 조성하고 있네. 이것을 보고도 못 본척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자네의 조르단도 요즘...》

《내 아들애긴 말게.》

벤자민은 강압적으로 윌리의 말허리를 꺾었다. 하지만 머리를 수그렸다. 그것은 며칠전 조르단이 다니는 대학으로부터 좋지 못한 통보가 들어왔기때문이였다. 갓 대학생이 된 조르단이 비법적인 마약사용에 참가했다는것이였다. 수치스러웠다. 물론 아들의 우연한 실수라고 볼수도 있었다. 그러나 여하튼 없은것만 못한 일이였다. 그래속으로 자식교양에 힘을 넣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있는터였다.

윌리가 자기의 약점을 정확히 찢렸음을 벤자민은 자인했다. 하지만 그것이 윌리가 자기 변호나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윌리는 어째서 내 말을 리해하려 하지 않는가?...)

벤자민은 윌리를 설복했다.

《윌리, 제발 부탁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연구에만 집중하자구.》

그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허나 효력은 없었다. 오히려 윌리의 신경을 자극했을뿐이였다.

《벤자민, 자넨 너무도 모르고 있네.》

자기에 대한 뜻밖의 평가에 소스라쳐 놀란 벤자민은 친구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안겨 든것은 비 내리는 재빛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입술을 깨문 윌리의 옆모습이였다. 이 순간 벤자민은 자기들 두사람의 사이가 이전처럼 되지 못

하리라는것을 절감했다. 그것은 단순히 리해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였다. 신조의 차이였다.

《좋네. 자네 마음대로 하게. 나도 상관하지 않겠네.》

이 마지막말을 던진 벤자민은 주저없이 호수가를 떠났었다.

며칠후 월리는 인공두뇌개발센터에서 탈퇴하여 철학연구센터로 들어 갔던것이다.

...

벤자민은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인공두뇌개발이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월리가 철학연구센터로 옮겨 갔는지 이제야 깨달은 자신이었던것이다. 더구나 얼마전에는 월리가 쓴 《인간의 두뇌개조》라는 논문의 심의를 의뢰해 오자 단호히 거절했었다. 월리에 대한 고까움도 있었지만 중요하게는 논문의 목적이 인간의 사상개조에 있다는것이 비위에 거슬렸던것이다.

(월리가 날 얼마나 원망했으랴...)

결국 친구로서의 의리를 저버린것은 벤자민 자신이였다. 이 모든것은 과학기술의 발전도 물질적번영도 인간의 건전한 사상의식에 담보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때문이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인류의 행복과 번영은 안중에 없는 악한들에게 리용 당할번 했고 목숨까지 버릴번 했던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인간의 탈을 쓴 악당들이 존재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물론 인간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계로부터 진화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구한 인간의 진화과정은 한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동물계로부터 물려 받은 낡은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 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인간의 정신령역에서의 진화인것이다.

고도로 발전한 오늘의 인간사회에서도 매 인간들의 사고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아직도 인간의 동물적습성의 반영인 개인주의적사고방식에서 벗어 나지 못한 인간들이 존재하는것이다.

(이런 덜 진화된 비렬한들이 인류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을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은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었으나 벤자민은 한시바삐 월리를 만나 보고 싶었다. 그런데 월리가 자기를 만나주겠는지 또 용서해 주겠는지 알수 없었다.

《따르릉-》 갑자기 벤자민의 사색을 중단시키며 종소리가 울렸다. 정각 10시였다.

(《세계의 미래와 자주세계》라!)

벤자민은 벌써 이 말을 세번째로 곱씹고 있었다. 반시간전까지만 해도 침대에 누워 있던 그를 태운 승용차는 지금 철학연구센터로 달리고 있었다. 10시가 되어 벤자민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월리가 아니라 그의 제자였다. 젊은이는 오늘 센터에서 《세계의 미래와 자주세계》라는 주제의 연구토론회가 있어 월리선생이 늦어 지게 된다는것을 알려 주었다. 이 소식에 벤자민은 실망하지 않았다. 반대로 월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 만일 며칠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벤자민은 그가 누구든 다시 상종하려 하지 않았을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벤자민은 자기 중심의 개인적울타리를 걸어 버린 벤자민이었다.

승용차의 음향장치에서는 경음악이 울리고 있었다. 문득 벤자민은 당장 퇴원하겠다는 자기의 말에 깜짝 놀라던 병원 원장의 모습이 생각나 가볍게 미소했다. 그때 원장의 작달막한 몸이 더욱 줄아든듯 싶었다. 달아나는 정신적안정을 부랴 부랴 걸어 모은 병원 원장이 설복하려 들었으나 벤자민의 완강하면서 정열적인 자세앞에서 그는 마침내 수그러 들고 말았었다. 갑자기 음악이 꺼지더니 승용차의 액정화면에 방송원의 모습이 나타났다.

《특별보도입니다. 어제저녁 벤자민원사의 연구 조수이며 아들인 조르단씨가 자기의 이름으로 새로 개발한 인공두뇌의 특허권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소집된 국회청문회에서 벤자민원사의 건강상태로 보아 조르단씨의 제의가 타당하다는 견해들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벤자민은 급소타격을 받은듯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벤자민, 쓰러져선 안되네. 그건 불의앞에 항복하는거야. 일어 나라구. 어서.》

흐리마리한 의식속에서도 벤자민은 이 웨침만은 알아 들었다. 그는 이를 사려 물고 두눈을 떴다. 승용차안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허나 월리의 목소리는 현실처럼 들렸었다.

《그래 일어 나겠네.》 하고 중얼거리며 벤자민은 몸을 일으켰다. 이어 벌어진 사태를 랭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벤자민의 비상한 추리력은 조르단이 저지른 행동의 배후에 음모군들이 있었음을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리용 당했다 해도, 아무리 명예욕에 환장을 한 인간이라고 해도 어떻게 제 아버지의 발명을 가로 챌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아들이 되기를, 아니 인간이 되기를 포기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러니 내가 지금껏 짐승을 키워 왔단 말인가.···)

《음-》 벤자민은 괴롭게 신음하며 두눈을 감았다. 그의 눈앞에 고등학교시절의 조르단의 모습이 나타났다.

《···동물과 달리 사회적의식이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명예욕은 본성이예요. 그런데 아버지 너무도 소심해요. 현실감각이 무디단 말이에요.》

그때 벤자민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철학적인 말을 하는 조르단이 대견스러워 가볍게 책망했을뿐 그 말속에 숨어 있는 아들의 개인주의적사고방식을 꿰뚫어 볼념을 못했었다. 결국 아들에 대한 자기의 눈 먼 자부심과 눈 먼 사랑이 조르단이 인간쓰레기로 되는것을 보지 못하게 한것이였다.

《아!》 벤자민은 자책감으로 하여 몸부림쳤다. 언어수감장치가 설치된 승용차는 이제 벤자민의 말 한마디에 자칫하면 또다시 모든것을 잃을수 있었다. 벤자민은 극단으로 몰려 가는 자기의 생각을 제지했다. 그러다가 승용차의 액정화면에 월리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의 머리속에서 잡생각들이 사라져 버렸다.

《···

끝으로 저의 <인간의 두뇌구조>론문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상의식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사상의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만 보기로 합시다.

사람은 출생후 처음에는 생리적영향과 부모들의 영향, 그후에는 학교와 사회생활을 비롯한 점차 확대되는 사회적영향과 교육, 체험을 통하여 풍부한 지식과 사상의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달리 표현한다면 뇌수의 발달과정 즉 뇌 신경회로망의 형성과정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이 뇌 신경회로망형성의 진행정형에 따라 사람은 높은 지성과 건전한 사상의식을 소유할수도 있고 반대로 무능하고 불건전한 사상의식을 가진 존재로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데로부터 저는 나이에 따르는 뇌 신경회로 결합순서의 비밀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인간이 고도로 발전된 지능과 건전한 사상의식을 소유할수 있게 뇌 신경회로망의 형성을 조절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승용차는 철학연구센터앞에 이르러 자

동적으로 멈춰 섰다. 차에서 내려 서는 벤자민의 등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 왔다. 너무나 귀에 익은 목소리여서 벤자민은 보지 않고도 그가 누구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 사람은 어제저녁 병원홀에서 맨 먼저 빠져 나간 젊은이였다. 벤자민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리발 같은 시선앞에서 젊은이는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어제 전, 아버지가 저를 먼저 찾으실줄 알았어요.···》

《뭐 아버지라구?!》

《아버지, 제 이름으로 특허권을 신청한것때문에 그러십니까? 제 앞날을 생각해서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리고 월리선생은 만나지 않는것이 좋을겁니다.》

조르단의 철면피한 태도에 벤자민은 경악실색했다. 이제는 아버지를 혼시하려 드는것이다.

《이 자식, 이젠 날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 수치스럽다.》

징그러운것을 털어 버리듯 조르단에게서 물러난 벤자민은 센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문득 걸음을 멈춘 그는 뒤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를 어째 볼 생각은 말라. 아직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생각이 있다면.》

벤자민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그의 승용차가 조르단의 앞을 가로 막아 벤자민을 보호했다. 살기쁜 웃음을 지으며 안주머니에 손을 가져 가던 조르단은 깜짝 놀라 전기에 감전된것처럼 그 자세에서 굳어져 버렸다.

지금 벤자민의 머리속에서는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무르익고 있었다. 첫 시작은 《W-U》계획의 본질과 그 반동성을 폭로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센터의 유리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월리가 달려나왔다.

《벤자민.》

《월리.》

두 친구는 서로 뜨겁게 포옹했다.

이날 오후 3시, 검은 압력이 손을 뻗었으나 벤자민원사가 요청한 기자회견은 제 시간에 시작되었다.

기자회견에서 벤자민은 말했다.

《최근 미국정부가 작성한 <W-U>계획은 마치 국민들을 위한것 같지만 실지 그 계획의 첫 피해자는 우리 미국사람들입니다.

···

과학의 량심을 짓밟는 <W-U>계획은 인류지성의 적이라는것을 저는 뒤늦게나마 서슴없이 공포합니다.》